



공공기관 고졸채용·청년인턴·유연근무
수기공모 우수 사례집

2012.11



기획재정부
MINISTRY OF STRATEGY
AND FINANCE



한국조세연구원
KOREA INSTITUTE OF PUBLIC FINANCE



공공기관 고졸채용·청년인턴·유연근무
수기공모 우수 사례집

2012.11



기획재정부
MINISTRY OF STRATEGY
AND FINANCE



한국조세연구원
KOREA INSTITUTE OF PUBLIC FINANCE

CONTENTS

I) 고졸 채용

- | | |
|--------------------------------|----|
| 1. 갈림길 | 6 |
| 2. 인생을 변화시킨 선택 | 13 |
| 3. 인턴, 딱 내 스타일~! | 19 |
| 4. 나의 인생시계 오전 5시 18분 | 25 |
| 5. 당당한 고졸신입! | 30 |
| 6. 새로운 나를 만든 고졸 채용 | 35 |
| 7. 가방끈이 긴 것보다 노력의 끈이
길어야 한다 | 41 |
| 8. 남들보다 조금만 더 빠르게 | 47 |

목차

Ⅱ) 청년인턴

- | | |
|--------------------------------|----|
| 1. 청년인턴, 그 보물섬 탐험기 | 54 |
| 2. 내 꿈에 날개를 달아준
- 공공기관 청년인턴 | 61 |
| 3. 멘티였던 내가, 멘티가 될 너에게 | 67 |
| 4. 맏집 좋게 한 우물만 파며... | 73 |
| 5. 나와라, 부딪쳐라, 체득하라! | 78 |
| 6. 청년인턴들이여! 양복을 입어라 | 85 |
| 7. 열정과 사명감, 두 가지면
충분합니다 | 91 |
| 8. 꽃피워라, 28청춘! | 97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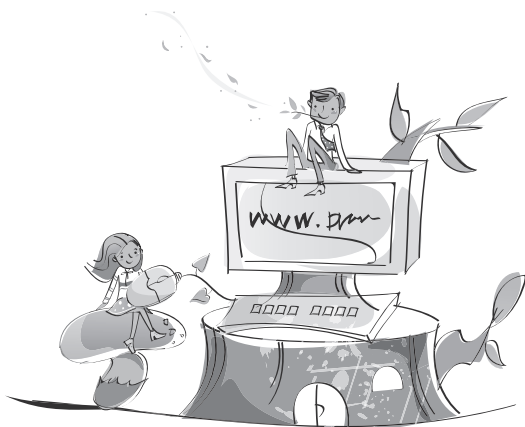
CONTENTS

Ⅲ 유연근무

1. 요즘 아빠와 요즘 남편 스타일! 104
2. 떳떳한 엄마, 떳떳한 며느리,
떳떳한 직장인 111
3. 일과 학업! 자기계발의 든든한
지원자 유연근무! 117
4. '행복 복원 기술원' 에서
일한답니다 121
5. 飛上_날개를 달다 127
6. '유연근무' 행복한 가정,
즐거운 직장생활의 시작 131
7. 워킹맘으로 사는 법!
어렵지 않아~요! 136
8. 유연근무제를 할 수 있게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142



I 고졸 채용



1

갈림길

김 ○ ○ / 한국수자원공사

고등학교 마지막 방학 중 펼쳐질 미래에 대해 불안해하고 있던 내 앞에 찾아온 K-water. 새롭게 시작되는 인생의 첫 갈림길에서 고민했던 소설 같은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근거없는 자신감

2012년 1월 마지막 고등학교 방학, 전문대학 진학을 결정하고 대학 입학시험과 함께 앞으로 펼쳐지게 될 내 미래에 대해서 고민하고 걱정하고 있던 겨울날 핸드폰 문자 소리와 함께 찾아온, 어쩌면 다시는 오지 않을 마지막 기회. “OO아, 선생님이다. 한국수자원공사에서 채용공고가 나왔는데, 네 성적이면 충분히 가능성이 있을 것 같다. 어떠니?” 문자를 보는 순간 가슴속에서 부글 부글 끓어오르는 무언가 때문에 등에 땀이 흥건해졌다. ‘반드시 합격하고 말 테다!!’ 그렇게 입학시험을 내팽개치고, 바로 입사지원서를 작성했다. 수없이 고민했던 내 미래만큼이나 열심히 작성했던 자기소개서. 지우고 쓰기를 수없이 반복하다가 날짜를 확인해보니 어느새 원서 접수 마감일이 다가왔다. 정신

없이 자격증과 증명서들을 싸들고 부랴부랴 달려간 학교. 원서접수 마감 30분을 남겨두고 겨우 접수하게 된 원서. 긴장감이 넘치는 험난한 혈투는 이제 시작일 뿐이었다. 원서 접수 후 일주일이 지난 때 쯤이었을까? 문자메세지로 합격통보가 날아왔고, 기뻐할 새도 없이 바로 1차 전형을 준비했다. 문제집은 준비할 필요도 없었다. 원서를 접수하면서부터 벌써 회사에서 근무하고 있는 내 모습을 떠올리면서 문제집을 사뒀기 때문이다. 미리 준비해 놓은 덕분인지 1차 전형(KACT: 직무능력검사)은 시간에 쫓기지 않고 여유롭게 확실한 답을 찾을 수 있었고, 1차 전형 합격이라는 결실을 맺었다.

하지만, 문제는 2차 전형(면접)에 있었다. 면접이라니...! 이제 고작 20살인데 면접 경험이 있을리가 있겠는가. 드라마에서나 보던 멋진 주인공이 하는 그 면접을 지금 내가 준비해야 한다는 사실에 격정보다는 두근거리는 희열을 느꼈다. A4용지 8장을 뽁뽁하게 채운 예상 질문들과 어필할 수 있도록 준비해놓은 1분짜리 자기소개서를 연습하고, 친구들 앞에서 모의면접을 했다. 하지만 결과는 참담 그 자체였다. 내용이 무슨 소설이냐며 당장 바꾸라는 요구가 쇄도하고, 하도 버벅대서 친구들이 자기가 해도 그것보단 낫겠다며 야유를 해대는 바람에 외운 대본을 전부 수정하고 시간이 날 때마다 대본을 붙들고 숨 쉬듯이 외우고 다녔다. 만반의 준비를 다하고, 도착한 K-water 본사. 내 면접순서는 처음도 아니고 끝도 아닌 어중간한 순서에 배치되었다. 긴장을 놓을 수도, 풀 수도 없는 그야말로 진퇴양난의 상황에 놓여졌다. 그때 옆자리에 앉아 있던 응시자의 어머니께서 따뜻한 차를 주셨고, 그러자 긴장감이 사르르 녹아내렸다. 면접장으로 향하는 발걸음은 자신감에 가득 찼고, 마침내 내 인

생에서 처음으로 보게 되는 면접이 시작되었다. 면접이 시작되자마자 날아온 첫 질문은 나를 당황하게 만들었다. “자기소개서에 특별한 내용이 없네요?” ‘세상에나, 나름대로 열심히 생각하고 또 생각해서 작성했는데, 별 볼일 없나니...’ 그 이유는 면접장에 함께 들어온 다른 응시자가 학생회장 경험이 있다는 소리를 들었을 때서야 깨닫게 되었다. 설상가상으로 내가 준비했던 예상 질문은 단 하나도 나오지 않았고, 다른 응시자에게로 시선이 쏠린 채 마무리되어가는 분위기였다. 그때 면접관 중 한 분이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이 있으면 해보세요.”라고 말씀하셨고, 수많은 예상 질문 중 하나였던 그 질문에 내 자신을 충분히 어필할 수 있는 대답을 하면서 마지막 그 순간만큼은 난 드라마에서 보았던 멋진 주인공이 되었다.

면접을 마친 후, 까닭모를 눈물이 났다. 떨어지더라도 정말 내 인생에서 한 획을 긋게 되는 순간이었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리고 기적과 같이 나는 합격 소식과 함께 K-water 정읍권관리단으로 출근을 하게 되었다.

방향을 잃은 나침반을 잡아주는 복극성

첫 직장을 공기업이라는 정말 어마어마한 회사에서 시작하게 된 나는 방향 잃은 나침반과 같았다. 나는 어떤 일을 해야 하는지를 정확하게 알지 못한 채 바쁘게 움직이는 선배님들을 바라만 보면서 방황했다. 이런 나에게 ‘멘토’라는 복극성이 빛을 발했다. 나와 39명의 동기들은 K-water에서 시행된 멘토링제도를 통해 직장생활에 적응하고, 선배님들의 노하우를 전수받을 수 있었는데, 그 효과는 정말 대단했다. 아무것도 모르고 있던 나는 정수 처리과정과

운영방법을 알 수 있었고, 혼자서 알 수 없는 정보들은 선배님들의 오랜 경험에서 나온 살아있는 지식을 통해 깨닫게 되었다. 물론 이 모든 경험이 쉽게 얻어진 것은 아니다. 출근을 하면, 아무것도 모르더라도 일단 밖으로 나가서 설비들을 관찰하고 모르는 것이 있으면 선배님들께 묻고 또 물었다. 한번쯤은 귀찮게 생각하고, 다른 사람한테 물어보라는 선배님이 계실 줄 알았는데, 모두들 자세하게 알려주고 직접 현장에 데리고 나가서 많은 경험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셨다. 그리고 사무실에 돌아와서 선배님들이 부탁하는 자료들을 정리하면서, 그저 시키는 일이니까 잔말 말고 해야지 하기보다는, 자료 안의 내용을 유심히 살펴보았다. 전기방식 정리, 전력요금 산출, 통신정보와 경보, 수질 측정 결과와 현황 등등 정말 수없이 많은 자료들과 정보들이 있었다. 회사에 출근하고 퇴근시간까지 나에게 주어지는 모든 기회들을 나의 경험으로 만들기 위해 애쓰고, '다음에 시키실 때 내가 스스로 척척하게 되면 대견하게 보시겠지?' 라는 생각으로 기회에서 얻은 경험을 나만의 매뉴얼로 만들었다. 하루하루 쌓이는 매뉴얼과 점점 자리에 적응해 가는 내 모습을 보면서 보람을 느끼던 중 엄청난 사건이 터지고 말았다.

사고(事故)를 통해 사고(思考)를 얻다

입사 3달 만에 내가 근무하는 정읍권관리단의 댐에 전례가 없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런 일이 생기면 '이런 일이 왜 나에게만 벌어지는 거야'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을 것이다. 하지만 신입사원에게 있어서 사고는 엄청난 기회라고 생각한다. 댐의 작동원리와 운영방법을 세세하게 알 수 있게 되었고, 선

배님들의 놀라울 정도로 완벽한 대처 모습을 보면서, 더 많은 지식과 노하우를 배울 수 있었다. 이 외에도 크고 작은 일들이 발생할 때마다 멘토 선배님의 침착한 대처가 빛을 발했고, 멘티로서 옆에 항상 따라다니던 나는 정말 값진 경험을 할 수 있었다. 이론으로만 배우는 것보다 직접 몸으로 느껴야 한다는 말의 뜻을 알게 되었다. 다양한 상황을 접하면서 나는 회사 CCTV를 유심히 관찰하는 습관이 생겼고, 이 습관으로 평소에 들어가는 약품의 투입량의 10배를 초과한 양의 약품이 들어갈 뻔한 사고를 사전에 파악하여 대처할 수 있었다. 정말 우연이라고밖에는 믿을 수 없는 상황이었다. 비록 우연이지만, 이 과정은 나에게 큰 동기 부여가 되었고 인턴의 신분이었지만 자부심을 갖게 되었다. 사고(事故)를 통해 사고(思考)를, 위기의 상황에서 생각할 수 있는 능력은 어떤 노하우보다 많은 도움이 되었다.


사이드미러의 교훈

어느새 6개월간의 인턴기간이 끝나고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정규직 전환 하루 전, 당일 본사에서 하게 될 발표회 준비 때문에 걱정을 가득 품고 회사로 출근하는 차 안에서 앞유리만 보며 ‘발표회는 어떻게 해야 좋은 성적을 받을까’ 고민을 하다가 문득 사이드미러를 보고 생각이 났다. 운전할 때 사이드미러를 보면서 뒷차를 확인하듯이, 지난 6개월이라는 시간 동안의 나의 모습을 돌아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 나는 그동안 선배님들과 함께 현장에서 일하고, 물어보면서 수없이 많은 경험을 해왔다. ‘그래, 여기서 선배님들과 함께 했던 경험을 바탕으로 발표를 하자.’ 열심히 작성한 PPT자료를

들고 교육원으로 가면서 지난 시간 동안의 나의 모습을 떠올리면서, '변하지 않은 모습을 보여주자' 라는 생각을 했다. 마침내 발표시간이 다가왔다. 멘토님께서 보는 앞에서 발표를 시작했다. 나의 경험을 바탕으로 한 PPT 내용과 수없이 많이 보았던 현장과 설비들, 내 머릿속의 이야기를 막힘없이 발표를 하고 내려왔다. '아무것도 모르던 내가 이만큼 성장했구나' 라는 뿌듯함과 함께 갖은 장비와 설비들을 보면서 질문하고, 새기는 나의 모습들이 새록새록 떠올라서 눈시울이 붉어져 말문이 막혔다. 결과는 놀랍게도 최우수상. 고등학교 시절 발표 하나에도 용기내지 못했던 내가 첫 면접에서 당당히 입사하여 사람들 앞에서 발표를 하고, 이렇게 상까지 받게 될 줄은 정말 꿈에도 몰랐다. 나를 성공으로 이끌어 준 가장 큰 요인은 내 사고방식을 바꿀 수 있도록 직장 생활의 노하우를 전수해준 멘토님과 선배님들의 조언이 아닌가 싶다. 멘토링 제도가 없었다면, 그저 시키는 일만 하며 사무실에 앉아 있는 내가 되었을 것이다. 낯선 직장생활에 가장 큰 도움이 되어준 멘토라는 존재는 어떤 제도보다 큰 힘이 되었다.

준비~ 땀!

부모님께서 항상 하시는 말씀이 있다. 공부 좀 해라, 나중에 나이 들면 공부 안 한 걸 후회할 거다 등등. 듣기 싫은 잔소리가 아니라, 사회경험에서 나오는 진심으로 해주는 말이라는 것을 이제는 알 것 같다. 매일 같이 등교하고 수업하고 하교해서, 씻고 밥 먹고 자고 시험기간에 공부하고... 지루하고 평범할 수도 있겠지만, 그 속에서 자신의 모습을 돌아볼 수 있었으면 좋겠다. 초등학교

생 때에도 집에서 뒹굴거리며 반복되는 일상애, 방학숙제로 일기 쓸 때 쓸 이야기
 야기가 없어 거짓말을 하지 않았는가. 학생이 된 지금도 반복되는 일상이라면
 나중에 자기소개서에 작성할 내용이 없어, 거짓말로 둘러대기 바쁠 것이 뻔하
 다. 남들과 똑같이 가려고 하지 말고, 자신만의 개성을 찾아야 한다. 제도나
 제언을 통해 무언가를 바라지 않고, 신입사원다운 열정, 그리고 모든 일에 대
 해 의문을 가지고 성장하며, 자신의 그릇을 크게 만들 수 있다면 그것만큼 더
 큰 자기계발이 어디 있을까? 인생은 마라톤과 같다고도 한다. 이제 출발지점
 에서 첫발을 뗐으니, 앞으로 많은 노력과 시간이 필요하지만, 결승점은 언젠
 가 우리 눈앞에 나타나게 된다. 모두 제자리에 준비~ 땅! 

2

인생을 변화시킨 선택

한 ○ ○ / 한국자산관리공사

안녕하십니까. 2011년 12월 29일 최종 합격 통지를 받고 한국자산관리공사에 입사한 신입직원 한○○입니다.

작년 취업 걱정에 한숨만 쉬던 제가 당당히 입사하여 합격 수기를 쓰고 있는 모습을 보니 무척 설레고, 기분이 좋습니다.

이 글을 보게 될 고졸 취업 준비생들이 저의 수기를 보고 조금이나마 힘이 되었으면 하고 취업하기까지의 과정, 그리고 취업 후의 자신에게 나타난 변화에 대해 이야기해볼까 합니다.

한국자산관리공사에 입사하기까지

“축하합니다! 귀하는 우리 공사 ‘채용대상자’ 로 확정되었습니다.”

제가 이 회사에 고졸 채용을 통해 입사할 것이라고는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선생님의 권유에 따라 인문계에 진학한 학생이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한 학기를 다니며, 이론상으로 배우는 지식보다는 현장에서 직접 부딪치며 쌓는 지식이 저에게 더 중요한 밑거름이 될 것이라 생각하였습니다.

다. 부모님과과의 상의 끝에 인문계를 자퇴하고 전문계에서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컴퓨터 관련 자격증 공부를 시작하였습니다. 6개월간 공부를 하며 저의 관심분야를 생각해 보았고, 어렸을 때부터 경제에 대한 관심이 많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상경에 관한 전반적인 수업을 할 수 있는 상고로 진학하였습니다. 관심이 많던 분야에 대한 수업이 이루어지다보니 자연스럽게 좋아하게 되었고, 좋은 성적을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고등학교 3학년, 저는 ‘선취업 후진학’을 원했습니다. 처음 입학했을 때처럼 사회를 먼저 경험하고 대학에 진학하게 된다면, 본인에게 더 필요한 공부를 할 수 있을 뿐더러 경제적 부담을 덜 수 있다는 생각이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1학기 때까지 상고 출신의 남학생들이 입사할 만한 기업은 거의 없었습니다. 남자의 경우는 병역 필이거나 면제자라는 조건이 항상 붙었고, 군에 입대해야 하는 상황의 남성 고졸자는 지원조차 불가능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던 중 정부의 고졸 채용 확산정책이 발표되었고, 남녀를 가리지 않는 채용 분위기가 확산되었습니다. 저는 평소 경제에 관심이 많았기에 금융이나 경제와 관련된 기업에 취업하기를 희망하였고, 처음에 산업은행에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처음 취업전선에 뛰어든 저는 자기 자신의 커리어를 위해 실력을 꾸준히 쌓아오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첫 고배를 마신 저는 실패하였다는 느낌보다는 본인이 준비한 만큼의 결과가 돌아온다는 사실과 아직 배워야 할 부분이 많은 사람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후 한국자산관리공사에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소통을 강조하는 기업문화에 걸맞게 토의를 중심으로 한 면접을 보았고, 각각 다른 나이와 성별, 가치관에

을 가진 사람들과의 토의를 통해 앞으로 사회생활에서의 대화의 중요성을 인식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같은 조원들과의 사적인 대화를 통해 저보다 인생 경험이 많은 분들의 인생관을 직접적으로 들을 수 있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끝날 때에는 서로의 성공을 기원하며 떠나는 모습을 보며 무엇보다 바꿀 수 없는 소중한 경험을 하기도 했습니다.

채용이 확정되고, 1월 2일에 자산관리공사에 입사한 신입직원에게 처음으로 실시한 것은 회사 전반적인 업무의 흐름과 자기리더십 교육, 직장 예절 교육 등 부서에 배치된 후 이용할 수 있는 효율적인 교육 위주로 진행되었습니다. 사회에 처음 발을 내딛는 사람들에게는 어떠한 교육보다 자신이 입사하는 회사의 전반적인 업무, 입사 후 찾아오는 심리적 부담에 효율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마인드컨트롤, 구성원들과 좋은 관계를 유지할 수 있는 예절 등이 중요한데, 이러한 교육을 이수함으로써 부점 배치 후 원활한 적응을 하는 데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특히 자기리더십 강의를 들음으로써 저를 포함한 동기들이 자기 존중감을 가질 수 있었고, 인생의 주체가 '본인'이 되어 어떤 일든 자부심을 가지고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물 안 개구리

입사 후 가장 크게 느낀 부분은 제가 '우물 안 개구리'였다는 사실입니다. 필기시험, 면접 등 실제적인 사회생활을 경험하고 같은 회사에 지원한 사람들의 인생 이야기, 가치관 등을 들으며 저는 '우물 안 개구리'에 불과하였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나 자신에 대한 확신을 가지기에는 경험하지 못한 것이

너무 많고 경험해야 하는 것도 많다는 것을 알게 된 후로 사람은 꾸준한 자기 계발이 필요함과 동시에 여러 사람과의 관계를 통해 듣는 것들이 인생을 살아가는 데 큰 도움이 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처음 면접을 볼 당시에는 긴장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나 동료이기도 하면서 경쟁상대도 되는 같은 지원자들과의 진솔한 대화와 가치관 등을 들으며 세상에는 다양한 사람이 존재한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고, 앞으로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재산 역시 사람이라는 것을 깨닫게 된 소중한 경험이었습니다. 면접에서 만난 여러 사람과의 대화는 지금도 제가 힘들 때 다시 한 번 도전하게 되는 원동력이 되었고, 저와 지금도 연락하며 서로를 격려해주는 동반자가 되었습니다.


입사 후 가장 큰 변화는 능동적인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정해진 틀에 따라 주어진 공부만 하며 지냈던 모습에서 현재는 저의 미래를 위해 직접 계획하고 실천하게 되었습니다. 퇴근시간, 수행 중인 조직 내 역할 등 실제 현장 경험을 함으로써 앞으로의 수행하게 될 업무에 필요한 역량을 생각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직장 내 선배님들과의 지속적인 교류를 통해 저의 목표와 방향성에 대해 상담하기도 하고 격려와 응원을 받기도 합니다. 직장 내에서는 저보다 입사 선배이지만 도움을 요청할 때면 형, 삼촌, 아버지가 되어 저의 일에 앞장서서 아낌없는 응원을 해주실 때, 가족 같은 조직문화에 감사하기도 하고, 후에 입사하게 될 고졸 후배들에게도 좋은 선배가 되리라 다짐하곤 합니다. 이렇듯 단순히 경제활동에 흥미가 있어 상고에 진학을 하고 금융 공기업에 입사하는 행운아가 되었지만, 더 이상은 행운이 아닌 노력으로 저와 회사의 미래를 위해 능동적으로 인생을 설계하고 움직이는 사람으로 변화하였습니다.

현재는 대학을 진학하기 위해 사이버대학을 통한 전문학사 취득을 목표로 업무가 끝난 후 사이버 강의 및 자격증 준비를 통해 계획을 하나하나 실행해 나가고 있습니다. 7개의 강의와 2개의 자격증을 매일 준비하는 과정을 일과 병행하다 보니 것은 가끔 지치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저는 공부하고 있는 제 자신을 가만히 생각하면 뿌듯합니다. 단순히 ‘필수적인’ 대학공부가 아닌 ‘내가 하고 싶은’ 공부를 하기 때문입니다. 전문학사를 취득한 후에는 경영학과에 편입하여 2년간 또래 아이들이 경험하고 있는 대학생활을 경험하고 싶습니다. 2년 동안 대학생 신분을 경험하며 또래관계를 더욱 넓게 형성하고 싶고 마치지 못한 학사과정을 수료하여 4년제 대학 졸업을 하는 것이 저의 직장 생활 후 첫 번째 목표가 되었습니다.

고졸 채용 확대

고졸 채용을 확대시키기 위해서는 정부는 기업 ‘인턴제’를 적극 활용해야 합니다. 고졸자들이 사회에 진출한 후 잘 적응하기 위해서는 올바른 직업 선택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고등학교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취업캠프’나 ‘성공적인 취업을 위한 프로그램’들의 경우는 필기시험이나 면접에는 도움이 될지 모릅니다. 그렇지만 정작 본인이 지원하는 금융권은 무엇을 하는 곳인지, 유통업은 무엇을 하는 회사인지 모르고 연봉, 복지만을 보고 지원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정보를 바탕으로 취업을 하게 되면 큰 불만은 없지만, 큰 만족도 할 수 없는 취업자들이 생기기 마련입니다. 고졸 채용을 더욱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고졸 채용을 확대함과 동시에 취업 희망자에게 직업

의 정확한 이해를 도울 수 있는 ‘올바른’ 취업시스템이 도입되어야 합니다. 예를 들면 기업이 어떠한 일을 하는지, 직업의 성향은 어떠한지, 기업의 문화는 어떠한지 등은 취업 희망자들에게 오래 일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요건 중 하나입니다. 전문계에 진학하는 취업을 희망하는 학생들은 ‘인턴제’를 활용하여 1년 동안 여름·겨울 방학 때 본인이 원하는 직종의 기업에서 직장문화를 경험할 수 있는 시스템을 도입하여 입사지원서를 낼 때 적성에 맞는 업종의 직업에 지원하고, 채용될 수 있도록 도와야 합니다. 물론 기업의 입장에서 인턴제를 도입하게 되면 고려해야 할 사항이 많습니다. 하지만 고졸 채용을 실시하는 기업은 고용을 위한 사전 절차 역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기업이 인턴제를 활용하기 위해서는 학교에서도 학생추천제를 활용하여 학생의 성향에 맞는 기업에 인턴으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많은 관심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제도가 자리잡게 된다면 기업은 적절한 인재를 채용해 역량을 최대화할 수 있을 것이고, 학교는 학생의 적성에 맞는 적절한 직업을 적극 추천해주는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궁극적으로 가장 중요한 취업자 본인 역시 선택한 직종에 대해 정확히 파악하고 선택할 수 있기 때문에 ‘적성이 맞는 직종에 적합한 학생이 즐겁게 일할 수 있는’ 고졸 채용 확대 정책의 취지에도 부합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고졸 채용 확대 정책에 따라 공공기관 취업에 성공한 고졸 채용자로서 이러한 정책이 지속적으로 유지되는 것은 좋은 문화라고 생각합니다. 각각의 위치에 적합한 인재를 배치하는 정책이 대한민국 전체적으로 확산되어 훌륭한 채용문화가 형성되었으면 합니다. 

3

인턴, 딱 내 스타일~!

신 ○ ○ / 한국동서발전(주)

고등학교 3년 내내 꿈꿔왔던 발전회사에 입사!

19살에 어린 나이에 입사하여 겪었던 좌충우돌 인턴 생활기를 지금부터 소개합니다.

3년의 꿈이 이루어지기까지...

지난 2월, 제 또래 친구들은 한창 수능 준비에 열을 올리고 있을 때 저는 취업 준비에 몰두하고 있었습니다. 저의 목표가 남들보다 빠른 사회 진출이었기에 마이스터고에 입학하게 되었고 3년 동안 여성 발전원을 꿈꾸며 발전회사에 입사하기 위해 성적, 자격증, 토익 등 일명 스펙 쌓기에 정신이 없었습니다. 고난이도의 체력을 요구하는 전기기능사 실기시험도, 복잡한 프로그램을 C언어로 제작하는 일도 발전회사에 입사만 할 수 있다면 뭐든 척척 해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KBS의 「스카우트」라는 프로그램에서 동서발전 고졸사원을 채용한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스카우트는 PPT와 면접으로 예선, 본선, 결선을 거쳐 최후의 1인을 뽑는 서바이벌 형식의 프로그램이었습니다.

방송출연을 해야 한다는 것 때문에 거부감도 들었지만 평소 너무나도 가고 싶었던 회사였기 때문에 망설임없이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난생 처음 경험하는 일이라 눈앞이 깜깜했습니다. “남들 앞에서 이야기하는 것조차 꺼려하는 내가 카메라를 똑바로 쳐다보고 말할 수 있을까...” 후회도 많이 했습니다. 하지만 고작 카메라 몇 대로 3년 내내 끄궂왔던 모든 것을 포기할 수는 없었습니다. PPT자료 수정만 수십 번, 발표 연습만 수백 번, 만반의 준비를 갖추고 예선을 거쳐 본선에 진출하게 되었습니다.

4시간의 기다림 끝에 본선 현장에서 결선 진출자를 가리는 발표를 시작했습니다. 다리는 후들후들거려서 제대로 걷지 못하고 목소리는 나오지도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미래의 나의 모습을 생각하며 마음을 천천히 가다듬고 발표를 시작했습니다. 결과는 합격. 결선에 진출한 기쁨을 채 누리기도 전에 최후의 1인을 뽑는 미션이 주어졌습니다. “친환경 에너지 발전기를 만들어라” 처음 이 미션을 부여받았을 때 걱정이 앞섰고 방송에서 망신만 당하는 건 아닐까 두려웠습니다. 그렇지만 부모님께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보여드리고 싶었기에 청계천 전자상가를 매일 돌아다니며 열심히 준비했습니다.

드디어 결선 당일, 강의 유속을 이용한 소수력 발전기를 만들어 심사위원들 앞에서 발표를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결과는 좋지 못했습니다. 제가 만든 발전기는 유지·보수하는 데에 어려움이 많다는 게 심사위원들의 생각이었습니다. 결국 최후의 1인에 들지 못했고 이 결과에 대한 실망감은 말로 표현할 수가 없었습니다. 모든 걸 포기하고 있던 그때, 놀라운 반전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전원 모두 합격’이라는 심사위원의 폭탄선언이었습니다. 잘못

들은 것은 아닐까, 내가 꿈을 꾸고 있는 것은 아닐까, 믿겨지지 않았습
니다. 합격이라는 것을 실감하게 해준 합격증을 전달해 줄 때 저도 모르게 왈카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이렇게 기쁜 날 절대 울면 안 되는데…” 하면서도 멈
추지가 않았습니다. 나에게 이런 기회를 주신 모든 분들께 정말 감사했고 절
대 쉽게 얻어진 결과가 아니었기에 앞으로 더 열심히 해야겠다고 몇 번이고
다짐했습니다.

호녀 등극!

스카우트 프로그램을 통해 입사를 하게 되었을 때 저보다 더 좋아하셨던 분
들이 바로 부모님이셨습니다. 제가 이 자리에 오기까지 얼마나 많은 갈등을
했고 마음고생을 했었는지 누구보다도 잘 알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어렸을 적, 아버지의 수많은 사업실패로 생활을 이어나가기가 어려웠고 치
매에 걸리신 할머니마저 부양해야 하는 상황이 오게 되었습니다. 이런 형편
때문에 부모님께서서는 저를 더 이상 대학에 보낼 수가 없었고 저 또한 짐이 되
고 싶지 않았기 때문에 빨리 독립을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대학이 아닌 취업을 먼저 선택하게 되었고 그 중에서 국가의 적극적인 지원으
로 최고의 기술인이 될 수 있는 마이스티고에 진학하여 전기 관련 공부를 하
게 되었습니다.

저는 기술을 배우면서 날로 성장해가는 제 자신을 보고 뿌듯함과 자랑스러
움을 느끼며 후회 없는 선택을 한 것 같아 만족스러웠지만, 저희 부모님께서
는 항상 얼굴에 근심 걱정이 가득하십니다. 단순히 자신들의 부담감을 덜어주

기 위해 선택한 것이라고 생각하시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번에 한국동서발전이라는 좋은 회사에 취업하여 어엿한 직장인이 된 저를 보시고 얼굴에 웃음꽃이 활짝 피셨습니다. 항상 저에게 “고맙다. 정말 고맙다... 넌 엄마 아빠의 자존심이야” 하시면서 제 손을 꼬옥 잡아주십니다. 요즘 이런 부모님의 모습을 보시고 많은 분들이 저를 효녀라고 부릅니다. 저도 요즘 부모님의 얼굴을 보면서 진정한 효도의 의미를 알아가고 있습니다.

차이는 인정한다. 하지만 그 차별에 도전한다!

8월 무더운 어느 여름날, 꿈에 그리던 발전회사에 입사하여 인턴사원으로 서 일을 시작했습니다. 이곳에서 제가 그토록 원했던 발전원의 꿈을 이룰 수 있다는 생각에 무척 설레고 기뻐지만 더 이상 학생 신분이 아니란 생각에 어깨가 무겁기도 했습니다.

처음 일을 시작하기 전, 가장 기본적인 발전설비에 대해 배우기 위해 현장에 나갔습니다. 어마어마한 크기를 자랑하는 기계 설비들과 기계 소리들 때문에 조금 무섭기도 했지만 앞으로 이곳에서 일할 생각을 하니 친근하게 느껴졌습니다.

우선 설비들을 점검, 관리하는 일을 하기 위해서는 기계들의 위치를 파악하는 것이 제일 중요했습니다. 하지만 처음 보는 현장에 덩그러니 혼자 남겨지고 나니 어디서부터 뭘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서 길 잃은 강아지처럼 눈만 말뚱말뚱 뜨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몇 번 헤매고 실수도 하면서 이게 어떤 설비인지, 어디에 있는지, 어떻게 조작하는 것인지 하나하나 알게 되었고 차근히

일을 배워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이곳에서 한달 남짓 뜨거운 보일러 현장에서 근무를 해보면서 느낀 것은 여자이기 때문에 하기 힘들고 어려운 일이 많다는 것입니다. 크고 작은 밸브들을 직접 조작하고 하루에도 현장을 수십 번 왔다갔다 해야 하는데 보통 체력이 아니고선 여간 힘든 일이 아니었고 또, 현장에 한번 다녀오면 얼굴은 빨갱게 익어 땀으로 범벅이 되어 기운이 쭉 빠져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런 제 자신을 보고 “여자 발전원의 한계가 이런건가...?”란 생각도 많이 했었습니다. 하지만 이대로 무너질 제가 아니었기에 체력을 기르기 위해 피나는 노력을 하였고 남자들의 신체적인 장점을 대신할 저만의 차별화된 강점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섬세함과 예민함은 기계 설비들을 점검하는 데에 큰 도움이 되었고 이런 점은 저만의 비장의 무기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도 많은 사람들은 제가 하는 일에 대해 걱정하고 놀라운 시선으로 바라봅니다. “여자애가 기계 많은 곳에서 일하기 힘들지?”, “여자가 발전원으로 일을 한다고?” 이렇게 말씀하실 때마다 “여자도 할 수 있다!”라는 걸 꼭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내가 하고 싶은 일에는 남자, 여자가 따로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라란 걸 최고의 발전설비 전문가가 되어 당당하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인턴사원, 나에게 주는 또 다른 의미

저는 현재 한국동서발전에서 채용 확정형 인턴사원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처음엔 “거의 정규직과 다름없는 상황에서 왜 인턴사원을 거치는 걸까?”

생각했습니다. 평소 제가 생각하는 인턴사원은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는 이 도저도 아닌 애매한 위치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 취업준비가 한창인 사촌언니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언니에게 회사에서 있었던 일들과 지금 인턴사원으로 일하고 있는 저의 일상에 대해 말해주었습니다. 그러자 “아직 인턴사원이 뭔지 모르는구나? 지금이 기회야. 많이 배워둬” 라고 말했습니다. 그날 이후로 저는 회사생활에서의 모든 것들이 180도 바뀌게 되었습니다. 인턴사원은 애매한 직위가 아니라 애매한 것을 정해주는 것이란 걸 깨닫게 된 것입니다. 인턴이기 때문에 더 다양한 것, 더 많은 것을 배울 수 있는 것이고 무한한 가능성을 보여줄 수 있는 절호의 기회인 것인데 여태까지 그것을 모르고 그저 정규직 전환만을 원했던 제 모습이 부끄럽게 느껴졌습니다.

저는 신호등 앞에 설 때면, 그저 초초하고 시간낭비라 생각하여 빨리 초록 불로 바뀌기만을 기다렸습니다. 하지만 단순히 이 시간을 기다리는 시간이 아닌, 잠시 가던 길을 쉬었다가는 시간으로 바라보면 어떨까 생각해보았습니다. 인턴사원도 이와 같다고 생각합니다. 무작정 정규직 전환만 바라보고 가는 것이 아니라 잠시 멈춰 서서 나 자신을 돌아보고, 많은 것들을 경험해 볼 수 있는 좋은 기회로 삼고자 합니다.

지금 저는 인턴사원이라는 위치 덕분에 소중한 경험을 쌓고 많은 것들을 배우고 있습니다. 짧지도 길지도 않은 5개월가량의 인턴기간은 나의 역량을 마음껏 펼쳐 한층 더 성숙해질 수 있는 발판이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4

나의 인생시계 오전 5시 18분

오○○ / 한국주택금융공사

열 아홉 살, 그리고 첫 세상나들이

안녕하십니까. 한국주택금융공사에 합격하여 서울남부지사에서 근무하고 있는 오○○입니다. 현재 대한민국은 전 국민 고학력화 사회로 불린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대학 진학률이 80%에 육박하기 때문입니다. 그러한 상황에서 저 또한 대학이 아닌 취업을 결정하기까지 많은 갈등과 고민을 했습니다. 하지만 그 갈등과 고민 중 대부분을 차지하는 것이 '다른 사람들의 시선'이었습니다. 자신의 의지와 희망이 아닌, 외부의 영향을 받아 정작 본인이 원하는 진로를 선택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를 많이 접해 왔습니다. 그러한 선택은 대부분 '후회'라는 부정적인 결과로 이어지는 것 같습니다. 물론, 자신의 목표를 이루기 위해 대학에 진학하여 전문적인 공부를 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제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바로 '되는 대로' 식의 진로 결정입니다. 되는 대로 대학을 선택하고, 되는 대로 학과를 선택하고... 저도 마찬가지로 뚜렷한 목표도 없이 '성적이 되는 대로 진학을 해야겠다'라는 불확실한 미래로 뒤편 되겠지 하는 무책임한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러던 중 교내에서 증권투자상담

사 자격증 취득을 원하는 사람을 모집했고, 초등학교 때부터 각종 자격증 공부에 흥미를 가지고 있었던 저는 이번에도 증권투자상담사 자격증 취득을 목표로 방과 후에 남아 공부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 접하는 분야라서 많은 어려움이 따랐지만, 하나하나 배워가며 국민에게 있어 기초가 되는 ‘금융’의 중요성을 느낄 수 있었고 그 때의 자격증 공부를 계기로 ‘금융인’의 꿈을 꾸게 되었습니다. 사실, 금융인이라는 꿈은 너무 막연하고 포괄적이었습니다. 그러나 제게 있어서만큼은 새로운 변화의 시작이었습니다. 금융인의 꿈을 갖게 되면서 뜻이 없던 진학에서 취업으로 진로의 방향을 바꾸었고, 그 때 금융인 하면 은행원밖에 몰랐던 저에게 또 하나의 터닝 포인트가 찾아왔습니다. 그건 바로 킨텍스에서 열렸던 취업박람회였습니다. 취업을 희망하는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열린 취업박람회에는 대기업, 금융권, 공기업 등 많은 기업들이 참여했었습니다. 그때, 저는 설레이는 마음으로 ‘한국주택금융공사’의 상담 부스에 앉아 설명을 듣게 되었고, 저에게 또 다른 기회로 다가왔습니다. 서민의 가장 기초인 의·식·주 중에 ‘주’를 도맡아 서민의 주거 복지를 위해 힘쓰는 금융 공기업. 바로 한국주택금융공사를 알게 된 것이 몇 달 후 저의 19년 인생에 큰 변화를 가져다주게 될 줄 누가 알았을까요?

달콤한 열매를 맺기 위한 노력

취업박람회를 뒤로 하고 취업 준비를 하며 저의 19년 인생에서 첫 슬럼프가 찾아왔습니다. 고졸 채용이 확대되면서 내노라하는 대기업과 공공기관 등에서 취업의뢰가 들어왔고 저 또한 지원했지만, 서류 불합격, 면접에서의 낙방

등이 점점 저를 지치게 만들고 자신감을 저하시켰습니다. ‘좋은 곳이니까 지원해 봐야지’라는 어설플 감정으로 도전장을 내밀었던 것이 고스란히 결과로 보여지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나’를 꾸며쓰기에만 급급했던 그때, 불합격은 어쩌면 당연했던 것일지도 모릅니다. 그때는 이유를 모른 채 불합격의 슬픔과 나를 알아봐주지 않는 것에 대한 서운함만 탕했습니다. 그러다보니 자신감 저하로 이어지며 모든 것이 무기력해졌습니다. 이때, 제가 취업을 포기하고 ‘되는 대로’ 식의 대학 진학으로 진로를 바꾸려고 고민을 하던 중 선생님께서 종이 한 장을 건네주셨고, 그게 바로 ‘한국주택금융공사 채용공고’였습니다. 몇 개월 전 “이 회사에서 일하고 싶다고 생각했던 곳이 채용을 시작한다? 어쩌면 나에게 찾아온 기회일지도 몰라. 포기할 때 포기하더라도 마지막 승부수를 띄워보자!”라는 생각으로 차근차근 준비하기 시작했고, 나를 꾸미는 것이 아닌, 나를 나타내기 위해 노력한 결과, 최종 합격이라는 달콤한 열매를 맺을 수 있었습니다.


“네, 저는 고등학생입니다”

우선 이 타이틀에 대한 답을 먼저 하고 싶습니다. ‘네, 할 수 있더라구요’입니다. 이렇게 대답하는 이유는, 저조차도 막막했던 첫 사회생활을 겪어보니 아직 잘 한다고는 자신할 수 없지만 할 수 있다는 것만큼은 확신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전까지 저는 업무적인 부분에 대한 걱정이 많았습니다. 과연 내가 대학교 졸업하고 근무하시는 분들처럼 할 수 있을지, 혹시 뒤처지는 것은 아닐지 막연한 불안감이 앞섰지만, 무엇이든 부딪쳐보지 않으면 가능성을 알

수 없다는 말처럼 저를 시험해보기로 결정했습니다. 걱정과 긍정은 한끝 차이! 라는 생각으로 업무 연수를 받기 시작했고, 현재 공사에 근무하고 계시는 분들께서 직접 강의를 해주셨기 때문에 훨씬 이해도를 높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사에 배치되면 바로 업무에 투입될 수 있도록 전산교육도 함께 실습하였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전산 실습을 하지 않았으면 어쩌나 싶을 정도로 신속하게 업무를 처리하는 데 도움이 되었습니다. 또한, 공사 컨택센터에서 직접 상담사 옆에 참관하여 상담 내용을 들어보기도 하고, 직접 고객을 응대해보는 경험도 하며, 실전에 대한 준비를 할 수 있었던 것이 현재 고객님의 이야기를 들어주는 데 큰 몫을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연수를 받으며 느낄 수 있었던 것은 ‘고등학생이라고 못할 것은 없다’라는 것이었습니다. 다만, 다른 분들보다 더욱 피나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은 분명했습니다. 그게 바로 자기계발입니다. 어린 나이에 취업했다는 장점을 자신의 강점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다른 친구들보다 앞서 있는 시간을 어떻게 활용하느냐가 관건이라고 생각합니다. ‘적금을 드는 것보다 자기계발에 돈을 지출하는 것이 미래에 더 큰 부자가 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현재 부족한 영어 회화능력을 기르기 위해 퇴근 후 직장인 회화반을 수강하고, 주말에는 취미 한 가지를 정해서 활동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2년이 지난 후, 재직자 특별전형으로 못다한 학업도 이어갈 것입니다. 이처럼 ‘선취업 후진학’이 계속되기 위해서는 국가 차원에서도 노력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언니 제가 취업할 때, 정책이 바뀌면 어찌죠?”

이 말은 제가 학생의 입장이 아닌, 공사의 직원 입장으로 참여했던 코엑스 취업박람회에서 직접 학생들을 상담해주며 가장 기억에 남았던 말인데요, 고등학교 2학년 여학생이 저에게 건넨 말이었습니다. 이번에 고졸 채용이 확대되면서 고3 학생들은 환호하고, 고2 학생들은 불안해했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정책이 바뀌면 취업을 준비하는 고등학생들의 미래도 불확실해지기 때문입니다. 이 불안함을 잠재우기 위해서는 확실한 기준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다른 문제점은 고등학생을 위한 채용에 대학생들이 휴학을 하고 고졸 전형에 지원하는 것인데요, 이번에도 기사화되었던 내용 중 하나가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명목상으로는 고등학교 졸업이 맞지만, 경쟁자로서의 형평성에는 어긋나는 것이 아닐까요? 필기시험과 자격증 등에서 많은 실력 차이가 나는데, 서류전형에서 고등학생이 불리한 것은 부정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졸 채용’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고등학교 졸업 예정자’로 채용이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끝으로, 진로 결정에 앞서 선택을 두려워하고 있는 친구들이 많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아프니까, 청춘이다』라는 책의 내용 중 사람이 80세까지 산다고 가정하고 24시를 인생에 비유했을 때, 지금 저는 오전 5시 18분을 살아가고 있다고 합니다. 5시에 선택을 잘못했다고 해서 하루가 망가지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공사가 발전하기 위해서는 창의적인 인재가 필요하고, 창의적인 인재가 되기 위해서 앞으로 어떠한 도전도 두려워하지 않는 멋진 고졸 인재가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5

당당한 고졸신입!

이 ○ ○ / 공무원연금공단

엄마의 암투병으로 바꾼 진로

고졸로서 선취업을 택하게 된 첫 번째 계기를 돌이켜 보면 4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4년 전 중학교 2학년이었던 나는 다른 학생들과 다를 것 없이 친구들과 노는 거 좋아하고 인문계 고등학교를 나와 4년제 대학교를 입학하여 대학교 생활을 즐기며 캠퍼스에 대한 환상을 가지고 있었다. 그런데 이 일이 생김으로써 자연스럽게 선취업에 대한 생각을 가질 수 있게 되었던 것 같다. 그 일은 정말 상상조차 하지 못했던 엄마의 암 판정이었다. 처음에는 언니와 내가 어린 나이기 때문에 숨기려고 하셨던 것 같았다. 하지만 검색이 이상해서 자꾸 알아내려고 하다 보니 아빠께서 사실대로 말씀을 해주셨다. 그 일로 인해 어리광을 부릴 수 없는 상황이 되었고 수술과 치료를 받아야 하는 엄마를 대신해서 자연스럽게 집안일을 맡게 되었다. 또한 암치료에 드는 비용은 중류층 집안도 휘청하게 만든다는데 우리집에도 경제적인 문제가 많이 생기기 시작했다. 그런 모습을 보면서 얼른 커서 우리 집안에 도움을 주고 싶다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되었다. 엄마의 암투병으로 인해 나에게도 여파가 없진 않

왔다. 혼자 집안일과 엄마 간호를 하다 보니 저절로 공부할 시간은 적어지고 그러다보니 성적은 날이 갈수록 떨어졌다. 중학교 3학년, 엄마의 수술이 잘 마무리가 되고 요양을 하고 계실 때 나에게 중요한 시기가 왔다. 바로 고등학교 진학을 할 시기가 되었던 것이다. 일이 있어서 집안에 경제적으로 도움을 주고 싶다는 생각은 계속하고 있었지만 그래도 다른 애들과 마찬가지로 인문계로 진학 후 대학교에 입학할 생각을 하고 있었다. 그때 바로 아빠의 권유로 특성화고로 진학을 하게 되었다. 그때 아빠는 ‘용의 꼬리가 되느니, 뱀의 머리가 되어라’라고 말씀해주시면서 아빠 생각 한 번만 믿고 특성화고로 진학을 해보라고 하셨다. 정말 지금 생각해보면 이렇게 좋은 직장에 고졸로서 입사하게 하려고 하늘에서 저렇게 큰 시련을 주었구나 하는 생각을 하면서 계획된 일인 것마냥 흘러간 것 같다. 만일 엄마가 암에 걸리지 않으셨다면 성적이 떨어질 일도 없고 자연스럽게 인문계 고등학교에 입학을 했고 그렇다면 선취업에 관한 기회 또한 없었을 것이며 식구가 더 푹푹 뭉칠 수 있는 기회가 없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면서 ‘고생 끝에 낙이 온다.’에 큰 공감을 하였다.

선취업의 좁은문을 뚫기 위해 노력

그렇게 특성화고에 입학을 하게 되면서 더 악착같이 공부를 하고 좋은 직장에 취업을 하기 위해 자격증이나 취업 관련 강의는 욕심내면서 공부하고 들었던 것 같다. 적성에도 맞았고 남들보다는 확실하게 동기 부여가 되었기 때문에 더 좋은 성적과 결과가 따르지 않았나 생각한다. 또한 내가 대학에 진학을 하고 남들과 똑같이 취업을 준비한다면 그 많은 경쟁률을 뚫고 내가 원하는 직장

에 들어갈 수 있으리라는 확신이 들지 않았다. 그런 사회적 문제로 인해 더욱 더 선취업에 대한 확고한 의지가 있었다. 그러한 의지 덕분인지 학교에서 가장 먼저 채용시험을 보고 합격을 하고 가장 먼저 입사하게 되었다. 가장 먼저라는 꼬리표 때문에 학교에 자랑거리가 되었다. 그렇기 때문에 학교의 명예와 선취업을 원하는 다른 친구들의 본보기가 되기 위해 더 열심히 했던 것 같다.


지금 생각해보면 정말 뜻밖의 결과였던 것 같다. 어렸을 땐 축구선수를 꿈꿨으며 그후 과학선생님, 공인회계사, 펀드매니저 등 많은 꿈에 대한 변화가 있었다. 하지만 머릿속에 있었던 것은 하루 종일 사무실에 앉아 일하는 사무직에 대한 거부감이었다. 그런데 한 학년 한 학년 올라가면서 현실을 직시하게 되고 안정적인 직장을 찾고 있는 나를 발견하게 되었다. 돈에 얽매이지 않고 멋진 인생을 살아보고자 다짐했던 어릴 때 내 모습은 사라지고 없었다. 하지만 사무직에 있다고 멋진 인생을 살 수 없을 거라는 생각은 잘못된 것이었다. 현재 입사 후 일을 해보니 사무직에 은근한 재미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리고 내가 생각했던 조직보다 큰 조직이어서 여러 일을 해볼 수 있고 많은 사람들과 만날 수 있어서 앞으로의 일에 대한 설렘과 기대가 교차하고 있다.

그리고 우리 공단에서 고졸 채용은 20년 만에 이루어졌다고 한다. 그 얘기를 듣고 우리의 직속 선배인 분들은 어떤 모습일까 하는 궁금증을 갖게 되었다. 입사 후 동기들과 함께 회사 선배님들이 하시는 교육을 받았다. 교육하시는 선배님들은 그 분야에서 두각을 나타내고 있는 분인데 고졸 선배님들도 많이 계셨다. 학력은 고졸이지만 다들 회사에서 중요한 위치에서 일을 하고 계

졌다. 솔직히 고졸이라는 학력에 조금은 기죽어 있었지만 고졸 선배님들을 보고 나도 할 수 있겠다는 용기와 자신감을 얻었다. 그리고 일 잘하는 직원이 되려고 노력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일에만 매진하지 않고 나의 시간을 많이 가지려고 노력할 것이다. 여가생활은 하지 않고 일과 집을 반복하는 사람들 중에 그 자체에서 좋은 기운을 뿜어내는 사람은 별로 없다고 한다. 여가생활을 함으로써 재충전의 시간을 갖고 자기계발이 계속됨으로써 그 좋은 에너지가 다시 업무에 적용이 된다고 생각한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하고 싶고 배우고 싶은 것에 대해 투자를 아낌없이 하면서 모든 것에 열정을 가지고 살 것이다. 열정을 갖고 산다면 내가 가지고 있는 좋은 에너지가 다른 사람들에게까지 전해질 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는다. 이제 갓 입사한 신입이어서 하고 싶은 것도 많고 되고 싶은 것도 많다. 하지만 세월이 갈수록 초심을 잃고 열정이 식을 것 같지만 항상 처음과 같은 마음을 가지면서 지금 다짐한 것을 지켜나가고 싶다.

고학력 실업난 해소할 고졸 채용 늘려야

끝으로, 지금 현재도 많은 친구와 후배들이 선취업을 희망하면서 공부와 자격증 취득 등에 열을 올리고 있다. 나로서는 정부정책 때문에 정말 운 좋게 공단에 합격할 수 있었는데 앞으로도 고졸 채용에 대한 좋은 인식들이 만들어져서 후배들에게도 좋은 자리들이 많이 생겨 기회가 없어서 좌절하는 모습은 보고 싶지 않다. 그리고 청년실업이 문제인데 무슨 고졸 채용을 하느냐는 말을 할 수도 있다. 그러한 이유로 계속해서 고졸 채용을 억제하게 된다면 진

학하는 학생들이 많아지고 또한 진학 후 취업에 대한 경쟁률과 눈높이가 높아지면서 대기업으로만 몰린다면 지금과 같은 실업문제가 악순환이 될 것이다. 미래의 문제를 미리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고졸 채용을 계속해서 적극적으로 하였으면 좋겠다. 그리고 기업에서는 박학다식한 사람을 원하고 회사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을 원한다. 내가 사장이라고 해도 그것은 당연하다고 생각한다. 그렇지만 옛날과 다르게 고등학교 과정에서도 많은 것을 배우고 얻는다. 그렇기 때문에 옛날의 고졸과는 다르게 대졸과 비교하여도 뒤떨어지지 않는다. 그리고 이번에 대졸과도 함께 교육을 받았는데 개인만의 장점이 있듯이 고졸이 약한 것은 대졸이 받쳐주고 대졸이 약한 것은 고졸이 받쳐줌으로써 서로 상생할 수 있다는 것을 느꼈다. 그리고 고졸로 선취업을 하는 경우는 대학 진학을 포기하고 취업하기 때문에 학력이 고졸로 끝난다. 그렇기 때문에 고용이 불안정한 일자리에선 취업을 꺼려하고, 그것이 고졸 채용의 확대를 막는 원인이 되기도 한다. 고졸자로도 충분히 할 수 있는 자리가 있는 기업들이 먼저 앞장서서 고졸 채용에 대해 모범을 보여주었으면 한다. 계속해서 고졸 채용이 확대되어 일반화된 모습을 보고 싶고 고졸 선배로서 후배들을 양성해보고도 싶다. 

6

새로운 나를 만든 고졸 채용

양 ○ ○ / 한국전력공사

새로운 도전, 현실이 된 고졸 채용

중학교 학창시절을 정말 열심히 보낸 만큼 여러 가지 부분에서 고등학교 진학을 고민해 볼 수 있었다. 대부분의 친구들과 함께 일반 인문계 고등학교에 진학할 수도 있었고 몇몇 친구들과처럼 특수목적고등학교에 진학하는 방법도 있었다. 혹은 특성화고등학교로 진학하는 방법도 있었다. 어느 선택을 하는 것이 옳은 선택일까 거듭 고민을 했지만 쉽사리 결정을 할 수는 없었다. 그러던 중 마이스터고등학교라는 새로운 고등학교가 생긴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정부의 새로운 정책으로 인해 처음 개교하기 때문에 이 학교에 대해 아무런 정보도 알지 못했다. 그러나 선생님의 도움으로 몇 가지 정보만을 듣게 되었고 그 정보는 내가 그 학교를 선택하는 계기가 되었다. 그것은 바로 학비 면제와 대학에 가지 않고도 좋은 직장에 취업할 수 있다는 것. 아버지께서 편찮으신 가정형편에서 내가 조금이나마 부모님을 도와드리는 기회이자 처음으로 혼자서 결정한 선택이며 새로운 도전이었다. 고등학생의 신분으로서 대학이 아닌 취업을 목표로 한다는 것이 대학 진학과는 달리 당시에는 불확실한 미래

였지만 도전해 볼 가치는 충분하였다.

고3을 준비하는 겨울방학, 한국전력공사 고졸 확정형 채용공고를 보게 되었다. 허나 나는 앞서 계속되었던 불합격 때문에 입사에 대한 자신감이 떨어져 있었고 또다시 불합격을 겪게 될까 두려웠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전력공사의 채용공고는 너무나 매력적인 기회였고 전기를 전공하는 나에게는 다시는 올 수 없는 절대 놓칠 수 없는 기회였다. 토익공부, e-test, 승강기 기능사 등을 취득하고 공부하며 열심히 노력해 왔기에 '다시 한 번 해보자.'라는 생각으로 지원을 하였다. 과거에 풀어보았던 인적성 검사책을 다시 펼치고 반복해서 풀고 기관에서 진행하는 인성검사도 해보면서 준비했다. 많은 사람들의 조언을 얻어가며 PPT도 작성하고, 면접을 준비할 때는 컨설팅도 받고 모의면접도 진행해보고 영상으로 답아서 모니터링도 하며 '마지막'이라는 생각으로 준비했다.

면접 당일, 극도의 긴장상태에 빠져 이른 시간부터 면접 장소에서 내 차례를 기다렸다. 기다리면서 혼자 운동장에서 면접을 연습하기도 하면서 긴장을 풀고 순서를 기다렸다. 기다림에 지쳐 심적으로 무너져갈 때 담임선생님의 문자메시지가 큰 힘이 되었다. '이건 마라톤이다. 결승점이 얼마 안 남았다.' 그 문자 덕분에 자신감 있게 면접을 치를 수 있었다. 그렇게 면접을 끝내고 나니 그냥 내 자신이 너무나 뿌듯하고 대견스러웠다. 면접이 끝난 후 다시 일상생활로 돌아왔고 그 전의 면접들과는 달리 편안한 마음으로 결과를 기다렸다. 편안하게 하루하루를 보내니 합격자 발표일은 금세 다가왔고, 겸손한 마음으로 기다린 끝에 합격이라는 결과를 얻었다.

첫 사회생활, 배울 점 투성이

2박 3일간의 인턴 교육과정을 마치고 서울본부 북부지사 배진운영팀 계기 파트로 배정을 받았다. 19살이라는 나이에 이루어낸 첫 사회생활이기에 떨리는 마음을 품에 가득 안고 있었다. 어린 나이와 고졸, 부족한 경험 때문에 처음부터 많은 업무를 하지는 못했다. 업무절차서를 하루 종일 공부하는 것이 유일했고 그 밖에 서류정리, 청소와 같은 간단한 일이 나의 업무였다. 처음엔 ‘아무리 인턴이지만 나를 무시하는 건가?’라는 생각이 들기도 했다. 하지만 사실 내가 업무를 하기에는 부족한 점이 너무나 많았고 업무절차를 익히는 것이 가장 우선이었다. 때문에 차장님께서도 항상 나를 챙겨주시면서 여러 정보를 가르쳐주시고 도와주셨다. 차장님뿐만 아니라 다른 선배님께서도 현장 견학을 시켜주시는 등 많은 부분을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셨다.

마침내 첫 업무가 생겼다. 전기공급 약관 및 세칙을 개정하는 것이었다. 너무나 막막했지만 사실 당시로서는 내가 가장 고객과 동등한 입장에서 생각하고 바라볼 수 있는 위치였다. 그래서 최대한 고객의 마음으로 모르는 부분, 혹은 불명확한 부분을 찾으려고 노력했다. 어떤 식으로 개정하면 고객이 명확한 의미를 파악할 수 있을지 선배님께 조언을 구해가며 고쳤다. 그 결과, 나의 개정이 인정받을 수 있었다. 첫 업무라는 점이 긴장되기도 했었지만 좋은 결과를 얻어, 회사생활에 자신감을 얻는 계기가 되었다.

본격적으로 업무를 하게 되면서 과장님과 파트너를 이루어 고압계기 현장을 다녔다. 고압은 저압과 달리 수전설비를 갖추고 있고 그 설비들은 큐비클 안에 들어 있다. 시설 역시 상당히 깨끗하기에 언뜻 보면 전혀 위험해보이지

않는다. 하지만 말 그대로 고압(high voltage)이기 때문에 함부로 다가서거나 건드리면 안 된다. 하지만 나는 안전해 보이는 설비 때문에 그 부분을 인식하지 못했으나, 과장님께서서는 항상 ‘고압을 다룰 때에는 방심하면 큰일 난다.’라고 주의를 주셨다. 또한 간단한 업무를 할 때에도 작업절차를 꼭 지키시는 과장님의 모습을 보면서 안전절차와 작업절차 준수의 중요성을 배울 수 있었다.

새로운 목표, 스스로를 설계하다

어린 나이에 걸출한 직장을 얻었다는 게 내 마음 속에서 ‘이제 다 됐다.’, ‘난 성공했어!’라는 자만심이 되어 현실에 안주하려 했다. 또한 처음에는 ‘나를 인턴이 아닌 한 구성원으로 존중받고 싶다.’였으나 어느 순간부터 ‘난 인턴이니깐, 어리니깐 못해도 괜찮아.’라면서 책임을 회피하려는 자세를 취해버렸다. 하지만 선배님들과 함께 현장을 다니고 업무를 하면서 ‘어떻게 하면 좀 더 내가 도움이 될 수 있을까?’ 고민을 하다보니 현장업무에 필요한 운전면허, 문서 작성에 필요한 능력 등 갖추어야 할 것들이 떠오르고 그것이 목표가 되고 준비하게 되었다. 또한 선배님들과 많은 대화를 나누면서 자기계발의 중요성을 알았다. 어린 만큼 더 많은 기회들과 시간들이 있고 다른 청년인턴과 신입사원들에 비해 부족한 점이 많기 때문에 그 차이를 극복하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해야 한다고 말씀하셨다. 선배님들 중 퇴직을 몇 년 남겨두시지 않은 한 선배님은 최근 전기기술사를 취득하셨다. 그 선배님께서서는 공부에는 끝이 없다고 하시고 나 역시 그 선배님을 통해 많은 것을 배우고, 나 자신을 반성을


하게 되었다.

인간관계, 소통에 대해서도 역시 목표가 생겼다. 사실 고졸 채용으로 입사하게 되면 선배님들과 많은 나이 차이가 생기기 마련이다. 연배가 삼촌부터 아버지뻘까지 나이 차이가 상당하다. 그래서, 나이 차이로 인해 함께 어울리는 데 어려운 점이 많다. 나 역시 고졸 채용 확정형 인턴생활을 하며 아버지와 연배가 비슷하신 선배님들과 어떻게 지내야 하는지 많은 걱정이 되었고 수차례 곤란했던 적도 있었다. 다른 선배님들과도 나이 차이가 많이 나서 어딜 가든 막내기에 무슨 일이 생겼을 때 의견을 전달하는 등 서로 소통하고 이해하는 과정은 항상 어렵기만 했다. 그러나 이것 역시 어렵다고 소극적인 자세를 취한다면 고칠 수 없다. 따라서 항상 적극적으로 먼저 다가가고 노력하는 자세를 가져야 한다는 걸 몸소 깨달았다. 때문에 회사 내의 크고 작은 행사가 있을 때 언제나 참여하려 노력하고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도록 준비하는 자세를 갖추는 것이 새로운 목표가 되었다. 또한 비록 5개월이라는 짧은 인턴기간이지만 이 기간 동안 쌓은 소중한 인연들을 지켜나가는 것 역시 하나의 목표이다. 첫 사회생활이자 첫 직장이 이곳이어서 얼마나 감사하고 행복한지 글로다 표현할 수가 없다. 인턴생활이 종료된 후 정직원으로 입사하게 되어서 다른 곳으로 발령을 받는다고 해도 이 인연은 계속 되리라 믿는다.

고졸 채용, 미래를 바꾼다

고졸 채용이 아니었다면, 지금의 나 역시 과도한 입시 경쟁에 부딪히고 괴로워하고 있었을 것이다. 고졸 채용으로 인해 새로운 길이 열렸고 앞으로도

이 정책은 계속 되어져야 한다.

사실 나는 고졸 채용 후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19살이라는 나이에 첫 사회생활, 첫 직장을 시작하면 모르는 것이 너무나 많다. 아직은 과장님, 부장님보다 선생님, 누나, 형이 익숙한 나이이다. 때문에 옆에서 도와줄 사람이 필요할 것 같다. 이미 많은 회사에서 멘토제를 실시하고 있고 우리 회사 역시 실시하고 있지만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회사들이 많다. 나 역시 멘토가 누군지 몰라 애를 먹었다. 따라서 멘토제를 더욱 강화하여 실행한다면 쉽게 회사에 적응할 수 있을 것이다. 더불어 대졸 채용자들과 고졸 채용자들은 다를 수밖에 없다. 아무리 고졸 채용자가 뛰어나다 해도 어느 정도 차이가 나기 마련이다. 따라서 고졸 채용자들에게 추가적인 자기계발능력 기회를 만들어 준다면 좀 더 수준 높은 고졸 채용이 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든다. 

7

가방끈이 긴 것보다 노력의 끈이 길어야 한다

박 ○ ○ / 한국남동발전(주)

“전력은 국력이다”

이 문장은 제 꿈을 이루게 한 문장입니다. 전문가가 되자는 부푼 꿈을 안고 마이스터고에 입학한 나. 기계분야의 최고가 되기 위해 고등학교 내내 기능사 자격증, 전공 실습, 내신 성적에 온 관심을 가지고 살아왔습니다.

고2가 되면서부터 취업에 관한 이야기들이 학교에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마이스터고 학생들을 대상으로 큰 기대를 가졌던 여러 대기업, 공기업, 중소기업, 강소기업 등 많은 회사에서 원서자격을 주고 학우들은 하나 둘씩 회사에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막연히 한국전력공사나 한전 자회사에 취업을 하고 싶다는 생각을 가지고 인·적성공부와 면접 준비만 하고 기다렸습니다.

그러던 중 2학년 2학기 말에 한국남동발전에서 고졸 채용을 실시한다는 소식을 듣고, ‘드디어 내가 꿈꾸던 한전 자회사에 취업할 기회가 왔구나.’라고 생각하며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더욱이나 고졸자는 경쟁률도 전보다 낮았고, 인·적성시험과 면접만 보고 채용 확정형 인턴이 되는 것이었습니다.

채용모집 날짜가 점점 늦어졌지만 드디어 2학년 겨울방학 때 한국남동발전
에 지원할 마이스터고 학생들은 한 학교에 4명씩 충남 태안에 위치한 한국발
전교육원에서 1주일간 교육을 받아야 한다는 연락이 왔고 저는 이것 또한 하
나의 좋은 기회라고 생각하며 교육을 이수하러 갔습니다.

교육을 이수하는 동안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무분별하게 사용하는 전기에
대해 소중함도 알고, 전기가 어떻게 만들어지며 발전-송전-배전의 과정을 간
단히 배울 수 있었습니다. 우선, 전기는 보통 원자력, 화력, 수력, 조력, 풍력,
소수력, 양수 등 여러 발전소에서 전기를 생산하는데, 특히 남동발전은 화력
발전소라서 연료(석탄)를 쉽게 공급하기 위해 발전소가 거의 바닷가에 위치하
며 그 연료를 보일러 내에서 연소시킨 후 연소하고 생긴 증기가 터빈을 회전
시켜 터빈과 연결된 발전기에서 전기를 생산하는 원리였습니다. 그 원리를 배
우고 나니 전기가 정말 복잡하고 생각보다 어렵게 생산된다는 것을 알 수 있
었습니다. 그 밖에도 신재생에너지(태양광, 소수력, 풍력, 연료전지 등)에도
많은 개발과 연구를 하고 있는 것도 배웠습니다. 1주일간의 연수를 이수하고
학교로 돌아와 다시 남동발전에 대한 면접을 준비하니까 전보다 확연히 지식
이 많아지고 자신감도 늘었습니다.

한 달의 시간이 남았을 때부터는 학교에서 아침부터 밤까지 시험과 면접 준
비를 했고, 기숙사에서 새벽 1시까지 열심히 준비했습니다. 시간이 흘러 시
험일이 다가왔고 인·적성시험이 쉽지는 않았지만 잘 통과하고 면접도 준비
한 대로 잘 보고 마침내 최종 합격을 했습니다.

그땐 정말 내가 스스로 노력해서 얻은 결과라서 세상을 다 가진 듯한 기분

이었습니다. 학교 친구들이나 주변 사람들은 “너 아직 고졸인데 공기업에 취업을 했구나. 대단하다. 요즘 사회는 고졸에게도 이렇게 좋은 기회가 주어지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런 기회 또한 아마 정부에서 고졸자들에게 채용 모집 기회를 주지 않았으면 저는 공기업에 지원조차 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고졸 인턴으로 글로벌 파워 리더의 꿈을 설계한다

지금은 한국남동발전 영흥화력본부 연소기술팀에서 열심히 인턴으로 생활하고 있습니다. 회사 공통 업무에 관한 내용 이외에도 전력거래, 성능관리, 연소기술, 기술지원, 발전 업무에 각 파트별로 과제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비록, 아직 정식 사원은 아니지만 확정된 인턴이어서 남동발전이라는 회사는 앞으로 제 인생의 많은 부분을 차지할 것입니다. 미래의 계획이나 제 인생 설계도 회사와 관련됩니다. 우선, 고졸자로 채용이 되었지만 군대를 다녀온 후 야간에 대학교에 다닐 것입니다. 회사 일을 하면서 좀 더 전력에 관한 공부도 많이 하고 지식도 쌓을 것입니다. 또, 나중에는 전력산업도 해외에 많이 진출해서 다른 자원이 많은 나라에 직접 발전소를 지어 플랜트 산업과 신재생에너지 개발 산업에도 많은 비중을 둘 것입니다. 남동발전에서 주가 되는 화력에너지도 무한하지 않기 때문에 대체에너지를 발굴해서 전기를 생산하는 데 화력 정도의 출력을 높이려면 해외에 가서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외국어 공부에도 심혈을 기울일 것입니다. 우리는 일반 고졸자가 아닌 ‘글로벌 영마이스터’이기 때문에 영어는 필수입니다. 이렇게 여러 방면으로 젊음이라는 무기 하나를 가지고 도전해서 21세기가 필요로 하는 글로벌 파워 리더가 될 것입니다.

하지만, 앞으로 사회에서는 고졸자들에게도 저처럼 더 많은 기회가 주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학력이 높은 사람들은 그만큼 공부를 열심히 해서 대학에 간 것이기 때문에 나름대로 마땅한 인정을 받아야 합니다. 우리 사회는 정말 고졸자들도 취업의 문을 두드릴 수 있게 기초적인 시스템이 갖추어져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는 마이스터고나 특성화고 등 여러 학생들은 진흙 속에서 피어나지 못하는 진주로만 남게 될 것입니다. 정부에서는 고졸 채용을 늘리자, 고졸에게 기회를 많이 주자라고 말하면서 어느 정도는 실천하고 있지만 저희로서는 사실상 아직은 기초 단계에도 미치지 못한다고 생각합니다. 다행히도 공기업에서는 특히 한국남동발전에서는 대졸이나 고졸이나 큰 차별을 두지 않고 업무도 같은 것을 하고 있으며 여러 가지로 주어지는 혜택 등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 대기업은 아직도 대졸과 고졸의 자리가 확연히 차이가 나는 곳도 많습니다. 물론, 고졸자들은 대졸자들보다 학력도 짧고 배움의 기간도 짧습니다. 하지만, 그런 이유로 완전히 고졸과 대졸이 하는 업무나 위치 등에 많은 차이를 보인다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고졸에게도 실력 향상을 위해 사내대학이나 회사 근처의 대학교에 다닐 수 있는 환경도 만들어 주고 좀 더 좋은 곳에서 생활할 수 있게 기숙사 시설이나 복지 등 대졸과 비슷한 혜택을 누릴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주어야 합니다. 대졸자들이 고등학교, 대학교에서 공부를 열심히 했다면 저희 고졸자들은 학교에서 자신들만의 전공 분야의 실습에 몰두해서 각 분야 최고의 전문가로 성장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실제로는 뛰어난 고졸 인재들이 눈부신 활약을 함으로써 많은 고졸 채용 확대가 이루어진 기업도 있고, 덕분에 크게 성장한 기업들도

있습니다.


고졸 채용, 포퓰리즘 아닌 장기적 관점에서 이루어져야

지금 유럽이나 여러 선진국에서는 고졸자들에 대한 시선이 매우 좋다고 합니다. 미국이나 일본 등에서는 학력 지상주의 늪에서 벗어나 고졸자들에게 균형적인 취업 조건을 주어 취업률도 향상되고 사회 전반에 걸쳐 전문가가 많이 배출된다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정부나 회사에서 단지 취업률을 높이는 데 중점을 두고 겉으로만 고졸을 우대하자는 성격도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선거철이 되면 더욱 이 고졸 채용 제도에 대한 관심이 모이는데 선거나 정치적인 계산을 위해 고졸 채용이라는 중요한 문제가 거론 되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물론, 고졸 채용 확대가 100만명이 넘는 청년실업난의 근본적인 대책이 될 수는 없겠지만, 어느 정도는 해결방안이 충분히 될 수 있습니다. 다만, 기업들이 양적 확대만 강조하고 일자리 창출이라는 미끼를 만들면 안 됩니다. 또 정부는 정치적 이득을 누리려는 포퓰리즘적 발상을 하면 안 됩니다. 기업은 자기들에 회사에 필요한 고졸 인재를 발굴해서 조금 더 성장시켜 이윤을 낼 수 있고 회사에 발전이 될 수 있는지 그런 점들을 보고 신중히 생각해야 하는 부분입니다. 순조롭게 고졸 채용에 대한 제도가 진행되려면 정부-기업 간의 많은 의견 교환을 통해 좋은 정책이 마련되어야 합니다. 서로 소통이 원활히 이루어지지 않으면 한 쪽에 치우쳐 고졸자들이 이리저리 엉거주춤한 상태가 될 것입니다. 확실한 정책이 마련되어야 고졸자들도 채용제도와 기업을 믿고 자

신들의 인생 설계도 하고 회사에서 무엇을 하고 어떻게 성장하고 배워나갈지 미래 계획을 세울 수 있을 것입니다.

가방끈보다는 노력의 끈이 더 길어야

저를 포함한 지금의 마이스터 1기 친구들이 고졸 채용 확대제도가 도움이 되어 자신들이 원하는 곳에 선취업해서 열심히 일하고 대학교도 졸업하고 회사에 꼭 필요한 인재가 된다면 점점 마이스터 학생들도 늘어날 것이고, 사회에서도 전폭적인 지지를 해 줄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고졸자, 정부, 기업 모두가 한 마음으로 노력해야 합니다. 숫자를 보고 판단하지 말고 정말 고졸자들에게 밝은 세상을 볼 수 있게 정책을 좀 더 마련해주시고 학력보다는 실력, 가방끈보다는 진실된 땀과 눈물로 만들어진 노력의 끈이 더 길다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사회가 하루빨리 다가오기를 기대합니다. 

8

남들보다 조금만 더 빠르게

안 ○ ○ / 한국전력공사

커서 뭐가 될래?

어릴 적에는 하고 싶은 것이 너무나 많았습니다. 친구들과 어울려 놀면서 빨리 어른이 되면 좋겠다는 말을 하며 과연 이다음에 내가 커서 과연 무엇이 되겠느냐는 미래에 대한 막연한 상상의 나래를 펼치곤 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날수록 꿈이 없는 맹목적인 공부를 해나갔습니다. 공부는 당연히 지겨울 수밖에 없었고 스트레스는 늘어만 갔습니다. 어느샌가 생활기록부의 장래 희망란은 막연하게 회사원, 공무원 같은 개성 없는 단어만이 적혀 있었고 제 관심은 오로지 성적난에 쏠려 있었습니다. 이러한 사실이 숨막히게 다가오자 저는 새로운 변화를 꾀하기 위해서 남들이 하지 않는 새로운 것에 도전하기로 했습니다. 그 당시 처음 출범하는 마이스터고등학교 1기에 도전한 것입니다.

처음으로 스스로 노력하며 얻은 값진 결과였습니다. 제 선택은 확실히 저를 변화시켰습니다. 여전히 성적에 대한 압박은 있었지만 최소한 나 자신이 무엇을 위해 공부하고 노력하는지는 알 수 있었습니다. 예전부터 관심을 가졌던

전기과에 진학한 저는 이 분야에서만큼은 최고가 되는 막연한 목표를 구체화할 대상으로 한국전력공사를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막연했던 목표가 정해지자 제가 해야 할 일은 너무나도 명백해졌습니다.

목표는 달성했다. 하지만….

고등학교 1학년 입학부터 한국전력공사의 채용정보에 대해 귀를 기울이고 적성검사에 관한 책을 공부하며 한국전력공사의 전반적인 정보를 수집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오랫동안 기회를 노려온 한국전력공사 채용정보를 입수하자마자 응시하고 필기시험을 거쳐 면접까지 모두 통과해 마침내 한국전력공사의 채용 확정형 인턴시험에 최종 합격하는 쾌거를 이루었습니다. 오래전부터 준비해오고 확고한 신념을 가지고 준비했던 터라 합격의 쾌감은 이루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기다리고 기다리던 인턴이 되었지만, 문제는 그때부터 시작되었습니다.

문제의 발단은 제가 사회에 대한 경험이 너무나 부족하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이제껏 공부가 전부였던 학생 때와는 너무나 다른 환경이 펼쳐졌습니다. 처음 접한 회사 생활은 낯선 일의 연속이었습니다. 학교와는 다른 분위기, 학생 때와는 달라진 위치와 할일... 모든 것이 낯설기만 했습니다. 처음 한국전력공사의 문턱을 밟고 사무실에 들어가자마자 느낀 것은 공기가 다르다는 점입니다. 학교와는 확연히 다른 분위기였습니다. 학교가 조금 느슨하고 자유로운 분위기였다면 사무실은 과연 이곳이 사회구나 하는 긴장감이 들게 했습니다. 얼떨결에 자리를 배정받고 자리에 앉아 명찰을 받고 나서야 달라진 환경이

똑바로 보였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입은 정장이 왜 그렇게 어색했는지 모르겠습니다. 호칭에서부터 변화가 느껴졌습니다. 학생 때는 그냥 이름으로만 불렀지만 이제는 ‘안○○씨’하고 불리니 그제야 사회에 나왔구나 하는 실감이 들었습니다. 학생 때는 너그럽게 용서되던 실수도, 더 이상 어린아이처럼 굴 수도 없다는 사실이 조금씩 두려워졌습니다.

한전에서 고졸로 적응하기

처음 몇 달은 정말 정신없이 보냈습니다. 매 순간순간 닥쳐오는 상황이 새로웠고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막연했습니다. 하지만 다행스럽게도 인턴업무를 시작하기 전 교육원에서 받은 전반적인 교육이 적응하는 데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실제 현장에 가서 업무에 적응하기란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책에 나와 있는 것처럼 정형화되어 있는 경우는 매우 드물고 너무나도 다양한 현장 여건에 따라 다른 상황이 펼쳐졌기 때문입니다.

사회 경험이라곤 고등학교까지가 전부인 저에게 사회에 나가서 직접 부딪히는 일은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대부분 대졸로 입사하신 분들이라 대학을 거쳐 나오면서 얻게 된 경험이나 지식에는 분명 차이가 있었고 저보다 연세도 훨씬 많으신 분들이 많았습니다. 제가 과연 한전에서 잘 적응할 수 있을까라는 불안감이 밀려오는 가운데 저를 도와주신 분들은 다름 아닌 팀에 계신 분들이었습니다. 고졸에 세상물정 모르는 어리바리한 인턴사원이 실수를 할 것 같거나 새로운 업무를 맡길 때에는 항상 제가 하는 업무를 지켜보고 잘못된 점이 있으면 지적하고 시정해주셨습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저를 위해 전체적

인 업무의 흐름과 업무에 대한 자세한 지침이 적혀 있는 업무지침서를 주셨습니다. 만약 제가 모르는 것이 있어 질문할 때면 학교에서 선생님이 알려주듯 차근차근 친절하게 설명해주셨습니다. 고등학교도 졸업하지 않고 나온 제가 신기하고 또 대견했는지 마치 아들 대하듯 친근하게 해주셨습니다. 막연히 걱정했던 적응은 직원 분들의 따뜻한 관심 덕에 무사히 마칠 수 있었습니다.

적응 완료, 그런데 또 무슨 문제가?

주위의 여러분들의 도움으로 적응하는 데는 문제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그 다음부터였습니다. 한국전력공사의 특성상 기술적인 지식은 필수적으로 요구됩니다. 그러나 제가 단편적으로 배운 지식으로서는 현장에 적용하기란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다행스럽게도 저에게는 든든한 아군이 있었습니다. 멘토링과 e-러닝이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멘토링은 아직 회사와 업무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가 떨어지는 인턴사원이 빠르게 회사와 업무에 적응할 수 있도록 나이 차이가 적은 멘토를 선발하는 제도입니다.

제가 실질적인 업무에 들어가자 멘토링 제도는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한전이 관리하는 계량기의 하자 및 보수, 한전의 전기 공급 사업을 대행하는 단가 업체에 대한 시공 지시, 고압 및 저압 고객의 제각각 다른 사정과 민원 등. 너무나 다양한 종류가 있었기 때문에 그때마다 업무지침을 보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했고 예외적인 특수한 경우가 많아 곤란했습니다. 그때마다 경험이 풍부한 멘토 선배가 예전에 있었던 비슷한 유형의 자료, 상황에 맞는 대처방법을 알려주셔서 큰 불편 없이 매끄럽게 업무를 처리해 나갈 수 있었습니다.

또 하나의 아군인 e-리닝은 제 부족한 지식을 메꾸는 데 큰 도움을 주었습니다. 한국전력공사에서 운영하는 e-리닝은 수준 높은 다양한 강의를 제공했습니다. 제목부터가 흥미로운 강의들은 제가 전공뿐만 아니라 폭 넓은 분야에 관심을 가지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무엇보다도 집에서든 들을 수 있다는 점이 가장 좋은 점이었습니다.

Change my life!


한국전력공사에 입사한 후 제 인생은 확연히 바뀌었습니다. 고등학생 신분에서 어엿한 직장인으로 변신해가는 과정. 친구들은 아직 교복을 입고 학교에 있을 생각을 하니 저도 모르게 웃음이 나왔습니다. 이제 스스로 돈을 벌고 사회에 나감으로써 지금까지 걱정과 고생만 시켜드린 부모님께 조금이나마 근심을 덜어드리려는 기특한 아들 노릇과 함께 제가 하고 싶은 일을 한다는 것에 대해 자부심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아직은 모르는 것 투성이지만 매 순간순간 새로 배워나가는 내용들은 피가 되고 살이 되어 언젠가 전문가로서 우뚝 서 있을 제 자신을 상상하며 열심히 부딪히며 배웠습니다. 한국전력공사에 고졸 채용으로 입사하면서 진로의 방향을 미래의 전력기술인으로 설정하고 자신의 분야에서 최고가 되기 위해 노력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습니다.

Thank you! 고졸 채용

고졸 채용은 제게 있어서 인생의 큰 전환점이 된 계기입니다. 옆집의 대학생 형, 누나들이 취직걱정을 하는 것을 보면서 새삼스럽게 청년취업에 대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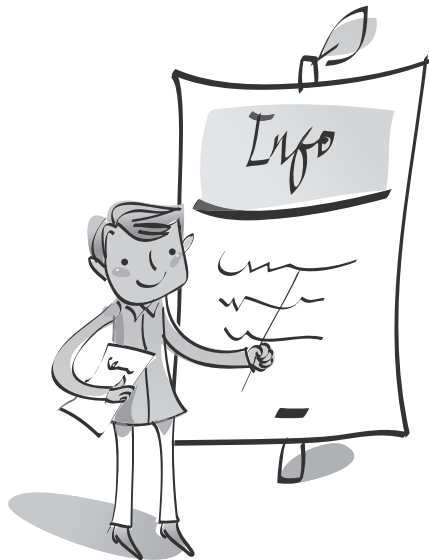
걱정이 앞섰습니다. 과연 대학을 나와서 취업이 될까 의문스러웠습니다만 고졸 채용은 그런 걱정, 고민, 근심을 한꺼번에 날려주었습니다. 남들이 부러워할 어엿한 회사에 취직해 남들보다 빠르게 사회에 적응한다는 것은 제 자신의 입장에서 보면 아주 큰 재산이라고 생각합니다. 고졸 채용이라는 좋은 정책의 혜택을 본 만큼 저 말고도 다른 여러 사람이 혜택을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더 많은 분야에서 고졸 채용이 확대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아직까지 고졸 채용은 분야가 한정되어 있습니다. 또, 대학생들에 비해 사회경험이 적고 배운 것도 적어 회사생활 적응은 자연스레 어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회사에 들어와서 가장 큰 도움을 받은 회사생활에 잘 적응하기 위한 멘토링 제도와, 다양한 업무 지식을 습득할 수 있는 사내 e-러닝을 비롯한 각종 교육의 확충이, 고졸 채용을 하는 기업과 취업자 모두에게 문제점을 해결하는 대안이 될 것입니다.

교복 대신 정장을 입고 단정하게 넥타이를 맨 출근길, 복직이는 지하철 속에서 자리에 앉아 잠시 생각할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제 비록 나이는 어리지만 홀로 설 수 있는 최소한의 자격을 얻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역에서 나오면서 오늘은 무슨 업무가 기다리고 있을까 궁금해 하며 한국전력공사로 출근합니다! 



Ⅱ 청년인턴



1

청년인턴, 그 보물섬 탐험기

정 ○ ○ / 한국환경산업기술원

보물찾기!

후배들에게 대학생활에 대해서 조언을 해줄 때면, 해변에서 보물을 찾는 것이 대학생활이라고 이야기한다. 대학이라는 섬. 그 안에서 자신이 원하는 보물을 찾아나서는 것이다. 그 보물이란 자격증이 될 수도 있고, 새로운 사람들과의 만남이 될 수도 있고, 연애가 될 수도 있다. 물론 그때 보물이라고 찾은 것이 정말 가치가 높은 보석일지, 아니면 그저 돌맹이에 불과할지는 후에 결정이 될 일이다.

재수라는 기나긴 항해를 통하여 캠퍼스라는 섬에 들어갔던 대학교 1학년 시절. 가능한 많은 보물들을 얻고 싶었던 나는 친구들과의 술자리 대신 국토대장정을 통한 전국 여행을 택하였다. 그렇게 나의 대학생활은 졸업 때까지 영화제 자원활동가, 문화역사 답사단 등 다양한 시간으로 채워졌다. 이러한 활동들은 나에게 매번 새로운 즐거움과 값진 경험들을 남겨주었다. 내가 추구했던 보물들은 학원에서 얻는 영어나 자격증이 아닌 대학생만의 젊은 패기와 열정으로 얻을 수 있는 시간이었던 것이다. 적어도 이 시간들은 돌맹이 이상의

가치가 있으리라 믿고 있다.

새로운 보물섬을 발견하다!

대학교 졸업 후, 2년 4개월의 군 생활을 장교로 무사히 마친 2011년 6월. 나는 전역하면 무엇이든 할 수 있으리라는 자신감에 차 있었지만, 자신있게 낸 입사지원서들은 연이어 불합격 통보로 돌아왔다. 처음의 자신감은 가라앉는 배처럼 서서히 가라앉고 있었다.

유난히 추었던 작년 겨울, 찬바람을 맞으며 도서관을 향하던 나는 친구와의 통화에서 우연히 ‘공공기관 취업박람회’에 대한 이야기를 듣게 되었다. 공공기관은 생각도 하지 않고 있었기에 나에게 큰 관심사는 아니었다. 하지만 박람회 마지막 날, 도서관에 가기 위해 가방을 챙기고 집을 나선 나의 발걸음은 결국 코엑스로 향하고 있었다. 그래도 한번 보고 오는 것도 나쁘지는 않을 거라는 생각이었다. 그리고 그곳에서 만나게 된 ‘한국환경산업기술원’. 그곳은 나의 새로운 보물섬이 되었다.

그 당시의 나는 ‘취업’ 만을 바라보고 있었던 것 같다. 고등학생 시절, 환경기자단인 ‘무지개 기자단’의 활동을 통해 더 살기 좋은 지구를 만들겠다는 ‘환경’에 대한 꿈을 찾을 수 있었지만, 주위 친구들이 하나둘 취업을 하자 어느새 나의 꿈은 사라지고 ‘취업’이 목표가 되어버린 것이었다. 마치 목적지는 잃어버리고 어디든 육지에만 닿기를 바라는 배와 같았다.

그러던 나와 한국환경산업기술원과의 만남은 취업의 무게에 짓눌려 있던 나의 꿈에 날개가 되어주었다. 독일이나 일본에 비하여 우리나라의 환경산업

과 기술이 뒤쳐져 있다는 것이 항상 안타까웠던 나에게 환경R&D사업과 환경 기업 육성을 담당하는 이 기관의 업무는 너무나 매력적이었던 것이다. 그리고 박람회에서 30분간의 상담을 통해 들었던 청년인턴 소식은 놓칠 수 없는 기회로 다가왔다.

섬에 보금자리 만들기

2012년 6월 4일 금요일, 나는 긴장한 마음으로 신문을 한 장, 두 장 넘기다가 한 기사에 시선을 고정하고 읽어 내려갔다. 그 안에는 지난 3개월간의 결실이 들어 있었다. ‘중앙일보-한국환경산업기술원 공동기획캠페인’이란 제목의 기사가 한 지면을 채우고 있었다. 기사를 다 읽은 나는 안도와 성취의 숨을 내쉴 수 있었다.

청년인턴으로 내가 배치된 부서는 환경기술본부의 성과확산실이었다. 우리 실의 업무는 부서명과 같이 환경R&D사업의 성과 확산! 그중에서도 내가 맡은 업무는 환경기술의 홍보 및 정산업무였다. 좀 더 정확한 표현은 환경기술 홍보·정산업무 ‘지원’이었다. 멘토 선생님의 업무를 도와 처음 시작한 일은 규정에 따른 정산데이터 정리. 이 업무를 진행하며 나는 공문서 접수와 행사 일정 관리 등의 업무를 함께 맡게 되었고, 이를 통하여 우리 실의 업무를 조금씩 파악해 나갈 수 있었다.

우리 원 뒷동산의 벚꽃이 예쁘게 피어날 무렵인 4월, 나는 주요 언론사에 환경기술에 대한 기획 기사를 보도하는 업무를 하게 되었다. 지난 10년간 진행된 ‘차세대 핵심 환경기술 개발사업’의 성과와 그와 관련된 유용한 정보를 국

민들에게 제공하는 기획기사였다. 우선 나는 국민들이 관심을 가지는 환경이슈부터 조사를 하였다. 이어서 각 환경이슈에 맞춰 차세대 환경기술들을 분류 및 선별하였고, 언론사와 협의를 진행할 협의자료를 작성하였다. 하지만 이러한 과정이 쉽지만은 않았다. 신규 부서인 우리 실에서 추진하는 첫 기획기사이기에 모든 과정이 새로웠던 것이다. 나는 더욱 모든 과정 가운데 내가 가진 능력을 다 발휘하였다. 그리고 ‘대국민 공감 환경기술 공동기획보도’를 ‘지원’이 아닌 나의 본연의 업무로 담당할 기회를 실장님께 얻을 수 있었다.

그 이후 진행된 언론사들과의 협의를 통해서 보도계획이 구체화 되었고, 나는 내 이름으로 기안한 첫 번째 ‘추진계획(안)’을 환경기술본부장님께 보고 할 수 있었다. 2개월간의 노력이 담긴 보고서였다. 그날 이후, 나는 더 이상 ‘인턴’이라는 이름표를 인식하지 않았다. 5회의 기획기사가 모두 보도되기까지 내 업무를 책임감으로 하게 된 것이다. 그리고 이런 노력은 매주 보도되는 기사를 확인하며 충분히 보상받을 수 있었다. 우리 실에서 자리만 차지하는 것이 아닌 내뭇을 해냈다는 생각에 더 뿌듯했는지도 모른다.

보물섬에 또 다른 이름을 짓다!

여느 때와 같이 출근하여 업무를 하던 나에게 메신저로 인턴 동기가 사진 한 장을 보내왔다. 서류를 정리하는 박스였는데, 그 앞에는 ‘Green Thinking, Better Tomorrow’라는 문구가 은색코팅으로 새겨져 있었다. 이것은 우리 기술원의 또 다른 이름인 슬로건, 내가 지은 슬로건이다.

나는 업무 외에도 다양한 활동에 참여했다. 우리 원 문화동아리에 들어가

다른 부서 사람들과의 친분을 쌓기도 하고, 사이버 강의를 통하여 업무의 전문성을 높이고자 하였다. 우리 원의 사이버 강의는 벌써 네 과목을 수료하고 새로운 과목을 듣는 중이다. 이러한 여러 활동들 중 나에게 가장 기억에 남는 일을 들라고 하면 그것은 슬로건 공모전이다.

따스한 날씨 속에 마음도 풀어지는 5월, 전 부서에는 우리 원 슬로건을 공모한다는 공문이 도착하였다. 수많은 기업들이 회사명과 함께 회사의 지향점을 표현한 개성 있는 슬로건으로 사람들 머릿속에 기억되듯이, 우리 원도 또 다른 이름을 만들기로 한 것이다.

나는 공고문을 확인 후 가벼운 마음으로 공모전 준비를 시작하였다. 하지만 슬로건을 만드는 것은 내 생각만큼 쉬운 일은 아니었다. 매일 출퇴근 2시간 동안은 우리 원의 비전과 직원들의 열정을 담은 슬로건 구상에 여념이 없었다. 내 머릿속에서는 수많은 단어들 수차례 조합과 분해를 반복하였다. 그리고 결정한 몇 개의 슬로건. 나는 모니터의 이메일 창을 띄워놓고, 슬로건을 재차 확인 후에야 전송버튼을 누를 수 있었다.

몇 주 뒤, 심사를 통하여 발표된 10개의 슬로건. 200대 1의 경쟁률을 뚫고 올라온 작품들이었다. 그 작품들 중 두 번째 자리에는 내 슬로건이 자리잡고 있었다. 그리고 연이어 진행된 두 차례의 전 직원 설문조사를 통해서 내 작품은 결국 1위를 하게 되었다. 그날 또한 다른 날과 같이 담담히 업무를 하였지만, 우리 원의 슬로건을 내 손으로 만들었다는 기쁨은 말로 다할 수 없었다.


청년인턴제를 통하여 얻은 보물들

일반적으로 가지고 있는 ‘인턴’에 대한 이미지는 단순한 사무 보조이다. 친구들의 인턴 생활을 보며 나 또한 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다. 하지만 청년인턴만큼은 다르다는 것을 8개월의 경험을 통하여 알 수 있었다. 우리 원은 ‘인턴’이라는 직위와 관계없이 각종 교육과 세미나, 워크숍 등 여러 행사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해주었다. 특히 각자에게 맞는 분명한 업무를 부여해주었다. 이를 통하여 나는 국가 환경R&D행정에 대한 실무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었다. 또한 멘토링제도는 업무 초기 적응에 큰 도움을 주었다. 특히 우리 부서는 멘토 선생님뿐만 아니라 모든 연구원들이 항상 많은 조언을 해주셨고, 덕분에 지금의 업무를 감당할 수 있는 큰 힘을 얻을 수 있다.

하지만 아무리 귀한 다이아몬드 원석을 찾더라도 가공하지 않으면 그 본연의 가치를 드러낼 수 없듯이, 청년인턴제도는 자신의 노력에 따라 그 진가를 달리할 것이다. ‘인턴’이 아닌 ‘정규직원’이라는 마음으로 맡은 업무에 임한다면, 청년인턴제도는 생각보다 많은 보물을 얻을 수 있는 기회다. 그 보물이란 소중한 인연이나 실무능력 향상 또는 나와 같이 잊었던 꿈을 찾아내는 것이 될 수 있다.

입사한 지 8개월이 지나고 있는 지금, 나는 중앙일보를 비롯한 3개 언론사와 환경기술 홍보업무를 하고 있으며, 우리 원 직원의 언론홍보 능력 향상을 위한 매뉴얼 제작을 추진하고 있다. 출장회의를 하고, 각종 보고서와 공문을 만들며 고민하며, 언론홍보 매뉴얼 자문회의를 준비하는 등 여러 업무들 속에서 나는 오늘도 내가 조금씩 성장하고 있음을 느낀다. 더불어 소중한 인연

들과 내 비전을 찾음으로써 생긴 열정은 청년인턴을 하면서 얻은 소중한 보물이다.

오늘도 나는 설렘을 안고 출근길에 나선다. 이제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은 잠시 머무르는 섬이 아니라, 내 꿈을 이뤄 나갈 큰 대륙이다. 이곳에서 나는 많은 분들의 사랑과 관심을 받으며 내 꿈에 더 다가갈 수 있었음에 감사하고, 앞으로 정규직원이 되어 우리나라의 '녹색성장'에 기여할 나의 모습을 기대해 본다. 

2

내 꿈에 날개를 달아준-공공기관 청년인턴

박 ○ ○ / 한국산업인력공단

無경력으로 사회에 나온다는 것

‘서류 전패’ 혹은 ‘광탈(광속탈락)’ 아마 제가 대학 4학년 2학기를 다니면서 가장 많이 쓰던 단어가 아닐까 싶습니다. 대학을 갓 입학하고 나서 공공기관에 당당히 입사하는 선배를 동경의 눈빛으로 바라보며 저 역시 행정학을 전공한 만큼 공익을 추구하는 공공기관에 입사하고 싶다는 꿈을 키워왔습니다. 저의 대학생활은 공공기관 입사의 기본이라 할 수 있는 높은 토익점수와 취업에 도움이 되는 자격증 그리고 높은 학점을 받기 위해 일명 ‘스펙’ 쌓기에 열중했던 것 같습니다. 대학생활 동안 제가 가지게 된 ‘스펙’은 평점 4.0을 바라보는 학점, 토익 900점 그리고 가산점을 주는 각종 자격증, 매 학기 봉사경험 그리고 1년간의 어학연수 경험이었습니니다. 취업전선에 뛰어들기 전 제가 가진 스펙이 남부럽지 않으며, 이 정도면 취업은 무리 없을 것이라는 근거 없는 자신감에 휩싸여 있었습니다. 하지만 본격적인 공채시즌이 시작되고 저에게 정말 치명적인 단점이 있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사회경험 없음!’이었습니다. 학점을 쌓고 자격증만 땀지 어디에선가 ‘돈’을 벌어본 경험

이 없던 것입니다. 공공기관에 입사지원을 해 토익점수 덕분에 서류에 통과하고 몇 번의 탈락과정을 거쳐 필기시험을 처음 합격했을 때의 기쁨도 잠시, 저의 경험 부족은 면접에서 여실히 드러났습니다. ‘우리 기관에서 어떤 직무를 수행하고 싶은가?’ 참으로 기본적인 질문이고 미리 준비한 답변이었지만 실제 사회경험이 없는 탓에 구체적이지 못하고 뜬구름 잡는 대답만 하고 심지어 다른 질문에도 제대로 답변하지 못한 채 씩씩하게 면접장을 나와야 했습니다. 그 이후 대학생활 동안 준비해온 제 모든 것들이 하루아침에 아무 소용이 없는 것처럼 느껴졌고 사회경험이 없다는 이유로 시작조차 하지 못할까 하는 두려움에 휩싸였습니다.

내일의 희망으로 다가온 ‘공공기관 청년인턴’

그렇게 공공기관 입사의 문을 두드린 지도 어언 6개월째, 입사원서를 작성하고, 집과 도서관을 오가며 공부하는 날들이 반복되었습니다. 졸업 후 계속 되는 탈락에 아르바이트라도 해야 하나 고민을 하며 초점 없는 눈으로 채용공고를 살펴보던 중 제 눈을 반짝 빛나게 하는 단어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청년인턴’! 그동안 공공기관 청년인턴은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는 부정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계속 공백기가 길어지는 것보다 그동안 가고 싶었던 공공기관의 청년인턴으로 근무하면 실제 기관의 분위기도 파악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청년인턴제를 수료하면 한 조직에 속해 사회생활을 해 보았다는 경력으로 남아, 제 최대의 단점인 ‘경력 없음’을 극복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는 생각에 공공기관 청년인턴에 지원하기로 마

음먹었습니다. 마침 한국산업인력공단의 청년인턴 공고가 났습니다. 한국산업인력공단의 청년인턴 채용과정은 서류와 필기시험만 통과하면 바로 인턴으로 채용되고 6개월 후 PT면접, 논술시험, 직무적성검사, 인성면접, 근무성적평가 결과에 따라 정규직으로 채용되는 형식이었습니다. 평소 면접에서 탈락의 고배를 마셨던 저에게 면접 없이 청년인턴으로 채용될 수 있다는 점이 참 매력적으로 다가왔고 취업을 위한 장기적인 전략으로 더 나올 것이라 판단되었습니다. 시험공고가 나고 한국산업인력공단의 청년인턴을 목표로 꾸준히 시험공부를 해나갔습니다. 서류심사를 통과하고 전공, 상식, 한국사로 구성된 필기시험을 치루고 드디어! 2012년 2월 한국산업인력공단의 청년인턴 합격 소식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이때 전 공공기관 입사에 한 걸음 더 다가갔다는 생각과 그리고 내일이 있다는 희망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철부지 청년인턴, 세 마리 토끼를 잡다

2012년 3월 새로운 학교에 입학하는 느낌으로 시작한 저의 첫 사회생활. ‘인턴이라 정규직 직원과 차별을 당하진 않을까?’ 라는 막연한 걱정만 앞섰습니다. 하지만 그런 걱정은 기우였고, 인턴임에도 정규 직원처럼 대해주는 문화에 깊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청년인턴이었지만 신규 직원처럼 직원 역량교육도 다녀올 수 있었고 공단의 직원이 수강할 수 있는 사이버 강의도 수강할 수 있어 자기계발을 지속적으로 할 수 있었습니다.

제가 6개월간 인턴생활하면서 얻은 것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째, 실무를 경험하면서 다양한 업무를 파악할 수 있었습니다. 6개월 동안 단순한 사무 보


조 업무가 아닌 공단의 사업 중 하나인 ‘숙련기술장려 직업진로지도 강의 지원 사업’을 담당하게 되었습니다. 강의 지원을 받을 학교를 모집 및 외부강사 초빙부터 강의를 지원하고 강사로 지급까지의 사업 전반을 수행하였습니다. 처음에는 인턴이 이렇게 사업을 맡아서 할 수 있을지 걱정도 많이 되었지만 모르는 것은 물어보고 직접 부딪쳐 적극적인 배움의 자세로 시간이 지나자 제가 맡은 사업의 전문가가 되어 있음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외부 고객을 만날 때 ‘~담당자님’이라고 불릴 때 느꼈던 뿌듯함은 잊을 수 없습니다. 둘째, 상황대처 능력을 키울 수 있었습니다. 평소 무뚝뚝하고 내성적인 성격이라 타인을 대하는 것을 매우 어려워했었습니다. 하지만 인턴업무를 하면서 다양한 민원전화를 받을 뿐만 아니라 국가기술자격시험 본부요원으로 근무하면서 많은 외부 고객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정말 간단한 질문조차도 답변하지 못하였지만 계속 부딪치면서 다양한 상황을 접하고 그에 따른 문제해결 능력을 기를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한 저로 인해 고객이 고맙다고 미소 지으며 인사할 때 뿌듯함 또한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인턴생활을 하면서 제 인생에 영향을 준 훌륭한 선생님들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6개월간 팀의 직원뿐만 아니라 주말에 국가기술자격시험 본부요원 업무를 수행하면서 지사 외의 많은 직원들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제가 하고 있는 일이 얼마나 의미 있는 일이며, 미래 어떻게 자기계발을 해야 할 것인지에 대한 조언을 해주셨습니다. 또한 업무를 어떻게 효율적으로 진행시킬지에 대해 한번 더 생각할 수 있었습니다.

無경험 대졸자에서 有경험 신입사원이 되다

빛의 속도처럼 빠르게 지나간 청년인턴으로서의 6개월. 길면 길고 짧다면 짧은 6개월간 청년인턴 동기 5명과 함께 스터디 모임을 구성해 PPT면접, 논술시험, 인성면접 등 정규직 채용시험을 위한 준비를 꾸준히 해왔습니다. 평소 사무실에 30분 일찍 출근하고, 어떤 일이든 배움의 자세로 열심히 참여하려고 애썼고, 맡은 일은 남들보다 두 배로 뛰는 부지런함을 보여줌으로써 팀원들에게 성실하고 책임감 있는 직원이라고 인정받기 위해 노력하였고 이는 근무성적평가 만점이라는 결과로 나타났습니다. 6개월 전에는 낯선 환경에 과연 적응할 수 있을지, 6개월간 업무를 잘 수행할 수 있을지 걱정했었지만 청년인턴으로 많은 업무를 배우고 직접 체험하면서 한국산업인력공단이라는 무대에서 제가 더 빛날 수 있고 한국산업인력공단을 빛나게 할 수 있을 것이라는 자신감이 점점 커졌습니다. 이러한 자신감을 바탕으로 다가오는 시험 준비에 더욱 전력을 기울였습니다. 스터디 모임을 통해 쌓은 공단에 대한 지식과 제가 업무를 수행하면서 느꼈던 점과 저의 포부를 정규직 채용시험 때 잘 녹여낼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직무에 대해 알지도 못하고 자신감 없이 면접을 보던 6개월 전 저의 모습과는 확연히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마라톤 처럼 꾸준히 기나긴 여정을 달려온 결과 ‘일반직 5급 합격’ 테이프를 끊을 수 있었습니다. 아직도 자랑스러워하는 부모님의 모습을 잊을 수 없습니다.

대한민국 청년이 웃는 그날까지

직접 6개월간 ‘공공기관 청년인턴’으로 근무하면서 느꼈던 점은 저와 같이

경험 없는 사회초년생에게 참으로 값진 시간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직접 실무를 경험할 수 있고 혹은 인턴이라 중요한 업무를 맡기지 않는다 하더라도 직접 현장의 분위기를 보고 배울 수 있다는 것은 분명한 장점입니다. 이는 나중에 다른 기관의 입사를 준비할 때 인턴으로 근무하지 않은 다른 지원자 사이에 분명 보이지 않는 차이가 느껴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 역시 공공기관에서 일하고 싶은 꿈이 있었지만 사회경험이 없는 탓에 면접에서 자신감 없는 모습을 보여 탈락의 슬픔을 맛보았고, 그로 인해 더욱 자신감을 잃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중 시작하게 된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의 인턴생활은 저의 가치를 높여준 소중한 기회였고 제가 그토록 원하던 공공기관인 한국산업인력공단의 정규직으로 취업할 수 있었던 디딤돌이 되어주었습니다. 공공기관 청년인턴제도는 현재 정규직으로 전환되는 전형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전형 역시 많이 있습니다. 청년인턴제가 취업으로 연계될 수 있는 징검다리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발전해 나아가간다면 대한민국의 많은 취업 준비생들이 웃을 수 있는 날이 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3

멘티였던 내가, 멘티가 될 너에게

김 ○ ○ / 한국조폐공사

한국조폐공사에서 근무한 지 벌써 1년 6개월. 청년인턴을 거쳐 정규직으로 근무하고 있는 지금, 청년인턴을 먼저 시작했던 선배로서 내가 너에게 들려줄 수 있는 이야기는 무엇이 있을까?

기회의 발견

나는 휴학 한 번 없이, 5년 동안 대학교를 다녔어. 참 오래 다녔지? 내게 주어진 4년이란 시간을 알차게 보내고 싶어서 복수전공, 교직 이수, 교환학생, 체험활동 등 할 수 있는 건 최대한 다 해보자는 생각에서 방학에도 짹짹한 시간표를 만들곤 했지.

하지만 내가 졸업하던 2011년 2월, 난 그리 행복하지 않았어. 이제 더 이상 대학생도 그렇다고 직장인도 아닌, 아무것도 아닌 신분으로 그 해 봄을 맞이해야 했거든.

뉴스에 나오는 취업난이 나에겐 크나큰 스트레스였고, 풀기 어려운 난제였어. 그 ‘스펙’이란 녀석에 발목이 잡혀서 전전공공하고 있었지. 또 ‘귀하의 무

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라고 하면서도 날 뽑아주지 않은 회사들이 늘어가면서 자신감은 줄어들고, 그만큼 내 눈높이도 점점 낮아졌어.

그때쯤이었을 거야. 공채 소식이 아닌 청년인턴을 모집한다는 공고를 봤어. 그것도 ‘신의 직장’이라는 공기업 청년인턴이었지. 그 당시 나는 한 민간기업에 2차까지 합격한 상태였지만 그래도 한번 해보자 하는 생각에 원서를 접수했어. 서류전형, 인·적성 검사로 이어진 2차 시험까지 통과하면서 점점 고민이 커졌어. 아버지는 민간기업의 정규직 자리와 청년인턴의 자리를 놓고 고민하는 내가 한심했는지 청년인턴을 택한 내게 크게 화를 내시기도 했지. 하지만 아버지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결국 내가 선택한 것은 청년인턴의 길이었어.

부풀었던 꿈, 바람을 빼고 다시 부는 꿈

결론적으로 난 졸업을 한 지 2개월 만에, 오랜 기간 낙방을 한 사람들보다는 빨리 사회생활을 시작하게 되었지. 고향인 전주에서 회사가 있는 대전으로, 홀로서기를 시작하는 게 나도 두렵기는 했어. 하지만, 너도 그랬듯 ‘여기서 잘만하면 정규직이 될 수 있다’라는 부푼 꿈과 희망으로 인턴생활을 시작했지.

그런데 들어와 보니 어땠니? 가끔 뉴스에 나왔던 기사처럼 회사에서 거창한 일을 맡기진 않았지? 기사에는 복사나 서류 전달만 시켰다고도 하더라. 하지만 다시 한 번 생각해봐. 네가 회사의 입장이라면 5개월짜리 인턴에게 무엇을 기대할까? 과연 회사가 네게 어떤 성과나 실적을 기대할까?

신입직원과 비교할 때 ‘청년인턴’의 신분상 장점은 아직은 완전한 직원으로

보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어리숙하고 실수를 할지라도 그걸 용납할 수 있는 폭이 크다는 거야. 또 인턴 대부분이 대학교를 갓 졸업한 사회 초년생인 만큼 더 많은 보살핌과 관심을 받을 수 있지.

그래서 나는 다시 마음을 먹었어. 주어진 5개월 동안 정규직에 목숨 걸기보다는 내게 주어진 특권을 가지고, 내가 얻어가야 할 것들에 대해 연구하고 최대한 많이 배워가기로.

인턴기간 - 사내 생활

우선 공사의 현황에서부터 제도, 사규, 직장 내 예절 등 기본적인 것에서부터 세부적인 것까지 두루두루 알아두어야 했지. 처음엔 전화받는 것이 익숙지 않아서, 전화벨만 울려도 긴장이 되곤 했어. 그것 이외에도 새로운 상황에 놓일 때마다 내가 과연 올바른 방법으로 대처하고 행동하고 있는지 확신이 서지 않을 때면 선배님들께 조언을 구하곤 했어. 선배들이 해준 이야기들이 많은 도움이 되었지.

회사 전반에 대해 공부한 뒤에는 발령받은 부서 업무에 대해 연구했어. 내게는 이 일이 다른 어떤 일보다 흥미로웠지.

내 아버지는 기념주화 수집가였어. 그래서 나는 일찍이 화폐나 주화, 기념주화들을 접했었지. 그런데 신기하게도 내가 발령받은 부서가 기념주화와 화폐를 담당하는 화폐사업팀이었어. 또 나의 멘토는 기념주화사업을 담당하는 과장님이셨지. 참여자에서 주최자의 입장이 되어 볼 수 있다는 건 내겐 너무나 큰 영광이었어. 호기심으로 가득찬 나는 하루라도 빨리 업무를 배우고 싶

었지.

하지만 조폐공사의 주력 사업인 만큼 보안이 높은 사안이라서 과장님들도 쉽게 사업업무 전반에 대해선 알려주실 수 없었어. 그래서 우선 책자와 보고서 등을 중심으로 화폐와 주화, 기념주화 등에 대해 공부를 했어. 하나의 사업들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각 단계에서 세부적인 업무 프로세스는 어떻게 구성되고 진행되는지. 그리고 어느새 해외제품과 국내제품을 비교하고 기념주화의 소비 자로서 기존 프로세스에 어떤 개선사항들이 필요할지 정리를 하게 되었어.

하루는 멘토인 과장님이 일과 관련해 궁금한 것을 물어보라고 하셔서 내가 수집하고 정리했던 자료들을 살짝 보여드렸지. 개선 여지가 있음에도 왜 수정이 안 되는지, 더 좋은 안들을 추가하고 반영될 수 없는지, 과장님은 하나하나 짚어가며 차근차근 설명해주셨고, 그런 소통을 통해서 사업의 어려움, 기관 간의 관계에 대해 다시 배울 수 있었어.

과장님께서도 내가 고민했었던 기념주화사업에 관한 개선안들에 긍정적으로 검토해 보겠다고 하셨고 추후에는 기념주화 구매자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도 실시하였지.

인턴기간 - 퇴근 후 생활

인턴 초기에는 퇴근 후 자기계발을 위해 학원을 다녔는데, 그렇다 보니 팀원 분들과 빨리 친해지기가 어려웠어. 주어진 시간 동안은 인생 선배님들에게 가르침을 받는 게 더 나은 선택이란 생각에 두 달째부터는 팀 회식에도 참석하고 다른 모임에도 많이 참여했어. 처음에는 그런 자리가 어렵고 부담스럽기

도 했지만, 한두 차례 만나 뵙고 이야기를 나누다보면 어느새 삼촌이나 아버지처럼 너무나도 자상하게 나를 챙겨주시고 많은 조언들을 해주셨어. 회사 생활과 관련된 조언을 비롯해서 앞으로 펼쳐질 인생을 위해서 어떤 준비가 필요하고 어떻게 대처해 나가야 하는지, 나 자신에 대해 다시 한 번 성찰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지.

그런 자리에 참석하다 보니 한 분, 두 분 아는 분들이 늘어났고, 그 덕분에 이전보다 더 즐겁게 회사생활을 할 수 있었어. 어딜 가든지 아는 사람들이 있다는 건, 소위 '든든한 뺨'이 있는 느낌이었지. 상대방의 도움이 많이 필요한 입장에서는 그 무엇보다 값어치 있는 귀한 선물이었어. 외국어 공부를 하고, 자격증을 따는 것보다 더 유용하고 소중한 것들을 얻을 수 있었기에 나의 선택이 뿌듯했고, 그 모든 시간들이 아깝지 않았어.

또 다른 새로운 시작

인턴의 시작은 봄의 따스함이 가득했던 4월이었는데, 어느덧 인턴기간 종료일인 9월 말이 되었고 전체 인턴 중 소수를 선발하기 위해 인턴들은 또다시 시험을 보게 되었어. 과제제출 및 평가, 토론면접, 개별면접, 프레젠테이션 면접까지 많은 시험들을 통과해야만 했지.

합격도 중요했지만, 그동안 정들었던 화폐사업팀 팀원들과 헤어질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종료일 하루 전 회식자리에서 평평 울던 내 모습이 생각나네. 과장님들도 마음이 짠하셨던지 아무 말 없이 토닥여 주시지만 했었지.

발표가 있던 날, 평정심을 유지하려 노력했지만 쉽지가 않았어. 내가 합격

하든, 동기가 합격하든 마음이 편치는 않을 것 같았지. 퇴근 무렵 발표된 결과를 보고서, 나는 팀원들에게 축하를 받을 수 있었어. 기쁘기도 했지만 한편으로는 함께 남을 수 없는 동기들에게 미안한 마음이 들었어. 아마 나를 비롯한 직원 분들도 그 점에 대해서는 마음이 쓰였을 거야.


다음 주 월요일 아침 어수선했던 마음을 추스르고 새롭게 발령받은 부서에서의 첫 시작을 위하여 집을 나섰어.

더도 말고, 덜도 말고 한가위만 같아라

조폐공사에서 맞은 가을도 어느덧 두 번째가 되었어. 특히 이번 추석은 정말 즐겁고, 마음 편안한 한가위를 보냈지. 부모님에게도 큰 선물을 해드렸고, 나 자신도 안정을 찾을 수 있었으니까.

그동안 일하면서 고민도 많았고 스트레스도 심했어. 하지만 청년인턴으로 입사해 정규직이 된 지금에 이르기까지 오직 소수에게만 돌아가는 그 행운을 잡을 수 있었던 것은 다양한 분야로의 노력과 원만한 대인관계, 자기 변화, 계발이 없이는 어려웠다는 나의 결론이야.

취업을 준비하던 시절, 나도 너처럼 스펙에 연연하며 스펙 앞에 많은 것을 포기했었지. 하지만, 내 글을 읽어본 너라면 스펙이 전부가 아니라는 걸, 너의 진실된 모습을 보여주고 네가 얼마만큼 어떻게 변화할 수 있는지 네 가능성을 보여주는 게 네가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이라고 감히 말할게.

내년 가을에는 사무실 창가 너머로 보이는 알록달록 물든 단풍나무들 사이로 반가운 네 소식을 들을 수 있기를 기대할게. 

4



맷집 좋게 한 우물만 파며...

문 ○ ○ / 한국수자원공사

한 우물 속 컴퓨터

어렸을 적부터 ‘컴퓨터 하나만을 바라보고 인생을 살아야겠다.’라고 굳은 마음을 먹은 지 벌써 20여년이 훌쩍 지났다. 내 인생 처음 만져 봤던 애플사의 그 커다란 컴퓨터를 잊을 수가 없다. 그 후로도 컴퓨터와 함께한 시간이 많아서인지 대학도 소프트웨어학과를 선택하고, 입학하면서도 제일 먼저 구입한 것도 노트북이다. 지금이야 스마트폰, 태블릿PC가 많지만 그때는 긴 전철 왕복시간을 버티는 유일한 즐거움이였다. 지금에 와서야 드는 생각이지만 정말 한 가지를 좋아하고 한 가지 길만 걸어온 것이 참 다행이다.

청년인턴에 이르기까지

나는 청년인턴에 이르기까지도 수많은 고민과 좌절에 부딪혔다. 프로그래밍 위주로 강의가 개설되는 소프트웨어학과에서 데이터베이스에 모든 관심이 집중되었던 나에게는, 사실 모든 강의가 유익했었던 것만은 아니었다. 데이터베이스의 길을 따라가고 싶었던 나에게 처음으로 희망이 보인 것은 대학교 교

수님 밑에서 연구생으로 짧게나마 데이터베이스와 관련하여 프로젝트에 참여할 수 있었을 때였다. 그렇게 두 달이 지나고, 정말 운 좋게도 한국데이터베이스진흥원에서 주최하는 DB개발, 관리자 커리큘럼에 참가할 수 있었고, 이력서를 접수하면서 오라클 데이터베이스 자격증도 취득할 수 있었다.

청년인턴, 그 문턱에서

그러던 어느 날, 한국수자원공사에서 청년인턴을 모집한다는 공고를 보게 되었다. 자격증을 취득하느라 공채시기를 놓쳤던 나에게 정말 황금 같은 기회가 찾아왔던 것이다. 청년인턴 면접을 보면서 긴장을 많이 해서 떨리던 내 목소리가 아직도 기억이 난다. 한국수자원공사에 대하여, 대학교 생활에 대하여 여러 질문을 받았고 정확히 두 번째 면접이던 나에게겐 느낌이 좋지만은 않았다. 그렇게 길지만 짧았던 면접을 보고 며칠이 흘렀을까, 발표 날까지 이력서도 손에 잘 잡히질 않았다. 만약 합격한다면 나는 과연 수자원공사에서 어떤 일을 하게 될 것인가에 대한 기대에 부풀어 있었다. 그리고 문자메세지를 받고 합격을 확인한 후에 모니터에 비치던 기뻐하는 내 모습이 아직도 눈앞에 아른거린다.

청년인턴, 인생의 터닝 포인트

합격을 하고 청년인턴으로서 첫 출근하던 날, 대기실에서 면접날에도 만났던 청년인턴 동기들을 보면서 '이제 진짜 사회생활의 시작이다.'라는 생각이 들었다. 수도권지역본부 운영처 시설관리팀 시스템과에 배정이 된 나는 수도

운영시설 운영, 관리의 업무를 맡았다. 처음엔 ‘청년인턴이 무엇을 할 수 있을까, 내가 잘 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들로 머리가 팍 차 있었지만 차장님, 과장님들께 업무를 조금씩 배울 때마다 잡생각들은 사라져갔다. 청년인턴을 하는 동안에 실무에 쓰이는 데이터베이스를 꺾어볼 수 있을지, 또 중요한 데이터들이 한가득인데 실수는 하지 않을지 걱정 반 기대 반이었다. 그러던 나에겐 출근해서 매일 오전에 히스토리안 데이터베이스와 오라클 데이터베이스를 점검하는 업무가 주어졌다. 전국에 걸쳐 댐과 보 관리로 홍수 예방, 용수 조절을 하는 수자원공사의 현장에 배치된 계측기들이 보내오는 실시간 수도운영 데이터들을 점검하는 업무였다. 점검업무 덕분에 자연스럽게 지역별로 배치되어 있는 정수장, 가압장, 취수장들을 알게 되었고 현장에서 어떻게 어디를 거쳐서 실시간 수도운영 데이터들이 지역본부까지 도달하는지에 대해 큰 그림을 그릴 수 있게 되었다. 청년인턴인 나에게 실무에 쓰이고 있는 데이터베이스를 접할 수 있는 기회는 정말 하늘의 별 따기임을 알았기에 최선을 다해 배우려고 노력했다. 그 외에도 수도권지역본부에서는 성남정수장에서 만드는 병물 지원도 한 달에 한 번씩 지원을 나갔었고, 가끔 찾아오는 출장으로 강천보 개관식, 경인아라뱃길 출범식에도 참여하여 청년인턴으로서 하루하루가 인생에 있어서 큰 배움의 장터였음을 새삼스레 느낄 수 있었다.

청년인턴 OIeh!

청년인턴으로 근무한 지 한 달 정도가 지났을까? 나와 운영처에 근무하던 동기와, 관리자 그리고 양주수도관리단에 있는 4명의 청년인턴들이 모여 일

주일에 한 번씩 KACT 대비 스터디를 시작했다. 우리 4명의 청년인턴들은 매 주 금요일 퇴근 후에 회식자리에 가는 많은 사람들을 지나치며, 몇 개월 후를 생각하며 인내하고 또 인내하며 스터디 룸에 갔다. 2시간씩 스터디를 하였지만 앞의 1시간은 거의 1주일간의 각자의 근황, 근무지에 일어난 일들, 각종 채용정보들, 먼저 입사한 선배님들의 조언 등을 나누는 시간이었다. 일단은 정규직 채용을 위한 스터디 모임이었고, 다들 서로에게 동질감을 느끼고 아꼈기 때문에 수자원공사라는 한 우물만 파며 준비를 하던 나는 다른 청년인턴들에게 다른 곳에도 이력서를 많이 넣으라는 무언의 협박을 받기도 했다. 그러던 도중 같이 운영처에 근무하던 청년인턴은 타 회사에 입사를 했다. 물론 진심으로 축하하고 부럽기도 하고 스스로 의지가 흔들렸던 것도 사실이다. 하지만 나는 의연하게, 무슨 일이 있었냐는 듯이 한 우물만 다시 파기로 했다. 흔히들 한 우물만 판다고 하면 시야가 좁다, 차선택이 없다, 질타부터 하는 사람들이 많았지만 내 개인적인 생각은 많이 달랐다. 한 우물만 판다는 것은 그만큼 남들보다 목적의식이 강하다는 것이고, 다른 곳에 분산되는 생각을 수자원공사 하나에만 집중하겠다는 나의 굳은 의지였다. 지성이면 감천이라던가. KACT 1차 시험을 당당히 합격하고 그 후, 짧은 시간이었지만 열심히 2차 면접 준비를 해서 합격하여, 현재 내가 그렇게 기다리고 기다리던 한국수자원공사에 입사 예정이다.

직접 겪은 청년인턴이란

청년인턴을 하면서 주변에서는 청년인턴을 부정적인 시선으로 바라보는 사

람들이 많은 것을 알게 되었다. 흔히 청년인턴을 또 다른 비정규직이라고 부르는 사람이 많던데, 나의 생각은 많이 다르다. 청년인턴 과정을 겪었기에 목표로 하는 회사에서 일하는 꿈을 직접 더 가까이에서 피부로 느끼며 가질 수 있었고, 그것만으로도 다른 취업 준비생들보다 좋은 입지에 설 수 있었다. 그렇기 때문에 청년인턴은 또 다른 비정규직이 아니라, 취업 준비생이 목표로 하는 회사에서 더 현실감 있는 목표와 꿈을 갖게 해주는 서포트 역할을 한다고 생각한다. 얼마 전 회식자리에서 팀장님께서 좋은 말씀을 많이 해주셨는데 그 중에 가장 기억에 남는 것이 있다. 타 회사에 채용되어 다른 회사로 향하는 청년인턴들과 청년인턴을 겪고 이미 타 회사에서 근무하다가 가끔 찾아오는 분들을 보면 흔들리거나 좌절하는 경우가 많은데, 의연하게 생각하고 내색하지 않고 흔들리지 않는 내 모습이 인상에 많이 남으셨다고 했다.

때문에 청년인턴으로 근무하는 사람들, 앞으로 청년인턴을 거칠 사람들에게도 이렇게 얘기해주고 싶다. ‘한 우물만 파는 것이 때로는 지름길이 되고, 올곧고 튼튼한 길이 된다.’ 그렇기 때문에 청년인턴임을 인생의 기회로 생각하고 흔들리지 않는 의지를 가져야 한다고 말이다.

내 인생에 있어서 가장 큰 변환점이 된 청년인턴은 앞으로도 초심을 잃지 않게 나를 채찍질하면서도 큰 기회가 되어 미래의 나를 그 자리에 있게 해주었다는 것을 잊지 못할 것이다. 청년인턴

5

나와라, 부딪쳐라, 체득하라!

김 ○ ○ / 한국전력공사

청년인턴과 기회비용

인턴 첫 출근날. 무엇을 처음 시작할 때의 두려움과 설렘은 누구에게나 찾아오는 경험일 것이다. 나 역시 그런 아침이었고 애써 불안한 기분을 누르며 일찍 출근길에 올랐다. 한국전력공사 청년인턴에 지원하기 전, 나는 지친 몸을 이끌고 힘겹게 취업전선을 오가는 흔한 청년백수였다. 노력 끝에 합격하게 되었지만, 이 선택을 하면서 기회비용을 생각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 사실이다. ‘그 시간 동안 차라리 공부를 더해라’며 핀잔을 주던 친구의 이야기가 아직도 맴돌기도 했다. 그러나 이미 난 선택했고 출근 중이었다. ‘다음 역은 을지로입구역입니다’ 안내방송이 들렸다. 하차 후, 잠시 무거워진 머리를 들어 맑아진 가을하늘을 한 번 쳐다보고 그저 ‘무엇이든 배워보자!’ 라고 생각했다. 그리고 공기업에 대해 들어왔던 막연한 상상을 하면서 한국전력 서울본부에서의 첫날을 열었다.

사실 난 군대에서 행정병으로 복무했고 제대 후 국가사업이었던 서류전산 화작업에 참여하게 되어 몇몇 국가기관에서 일해 본 경험이 있었기에 한전 청

년인턴 업무도 잘 적응할 것이라 생각했다. 믹스커피 한 잔 옆에 두고 컴퓨터 앞에 앉아 열심히 키보드를 두드리는 일을 상상했고 이런 일이라면 누구보다 자신이 있었다. 이곳에 오기 전 주변으로부터 근무할 직장에 대해 ‘보수적이고 조용하다, 함부로 튀지 마라’ 등의 처세에 관한 잔소리를 들었을 땐 오히려 ‘이거 내 스타일인데?’라는 생각까지 했을 정도니까. 그러나 청년인턴에 관한 ‘인터넷 카더라통신’에서 배운 내멋대로 상상이 깨지는 데는 단 10초면 충분했다.

첫 출근 후 교육을 받고 내가 일할 첫 번째 부서인 요금관리팀에 도착했다.

“아니, 두 배 쓴 것도 아닌데 왜 전기료가 두 배가 나왔냐고!!!!”

입구에 발을 들여놓자마자 내 눈에 들어온 장면은 말끔하게 정장을 차려입으시고 중절모까지 눌러쓰신 어르신 한 분이 소리를 치는 광경이었다. 목소리만은 늙지 않았다는 것을 보여주시려는지 어르신은 큰소리로 본인의 생각을 웅변하고 계셨다. 그 사이 여기저기서 심 없이 울리는 민원인들의 전화벨소리와 통화소리가 배경음악인 양 울려 퍼지고 있었고, 나는 낮은 탄식을 뱉고 눈을 살짝 감았다가 다시 떴다. 자리를 배정받고 조금 후 정신을 차리니 ‘일단 적응해야겠다!’라는 마음의 소리가 들렸고 요금 관련 책자를 모아 한전의 전기요금 부과방식부터 공부하기 시작했다. 가정용, 산업용, 고압, 저압, 누진제 등등. 평소엔 전기를 사서 쓰는 소비자였으면서도 몰라도 너무 모르고 살았다는 사실에 놀랐다. 잠시 후 나에게 종이 한 장 내밀면서 이거 처음 보는 사람 입장에서 잘 이해가 되냐고 여쭙보시는 직원 분이 계셨다. 어려운 이야기가 아니지만, 어렵게 느끼고 이해가 힘든 분들을 위해 최대한 쉽게 홍보를 해

보시려는 담당자 분의 말씀이었다. 그렇구나. 여기가 공기업이구나. 기본적인 누진제의 개념을 아는 사람, 그리고 모르는 사람, 건강한 사람과 늙거나 병든 사람, 장사가 잘되는 사업주나 망해서 전기료도 내지 못하는 사업주. 이 모두가 한전의 고객이었고 이곳은 그들 모두와 소통해야 하는 임무를 가진 분들의 영업 최전선이었다. 그 순간 나는 행정학 책에서 본 ‘공공서비스’라는 단어를 떠올렸고 비로소 그 의미를 머리가 아닌 마음으로 이해하기 시작하였다.

힘든 첫날을 보내고 퇴근길. 아침에 하늘을 본 자리에서 난 다시 생각했다. ‘아직 잘 모르겠다. 하지만 청년인턴, 뭔가 있다!’

‘공공서비스’의 의미를 몸과 마음으로 체득하다

‘차린 건 많지 않지만 맛있게 드시고 오래오래 건강하게 사십시오!’ 난 힘차게 인사하며 외쳤다. 이곳은 서울 강북에 위치한 한 자원봉사 음식점. 지점에서는 정기적으로 자원봉사를 실시했고 난 손을 들어 지원했다. 오늘은 출근 두 번째 날. 몸으로 부딪치며 뒤통지 배워서 적응해야겠다는 다짐을 했고 기회는 예상보다 빨리 왔다. 도착해서 앞치마를 두르고 다른 부서에서 오신 한전 직원 분들과 함께 반찬을 만들기 시작했다. 대략 200인분가량의 계란말이를 만들고 밥을 나르고 설거지를 했다. 오랜만의 육체노동이라 팔다리가 아파왔다. 할 일이 쌓여 있는데도 기꺼이 시간을 내서 나오신 직원 분들과 함께 일을 했다. ‘아! 이곳은 뭔가 있다. 난 알아야겠다고 배워야겠다.’

정기적인 봉사활동 이외에도 일반 국민들의 삶속에서 한전의 존재를 느낄 수 있는 기회는 이곳에서 얼마든지 있는 일이었다. 한전의 이름표를 가슴에

달고 조끼를 입으며 고객들에게 다가가는 일은 이곳의 본업이고 의무였다.

금년 여름, 태풍 블라벤에 뒤이어 태풍 산바가 한반도 남부를 강타했고 피해가 늘어가고 있었다. 내가 청년인턴이기 전의 태풍은 그저 다른 곳에서 부는 비바람에 불과했다. 이곳은 서울지점이지만 여수지역 태풍 복구를 위해 지원자를 뽑았고 다음 날, 나를 포함한 15인의 구조대가 새벽 6시 서울을 출발했다. 입사 후 며칠간은 걸려오는 전화와 찾아오시는 민원인들만 봤었는데, 이제는 우리가 달려간다. 밀려오는 기대감과 걱정스러움에 가는 동안 버스 안에서도 편히 쉴 수가 없었다.

우리가 할 일은 태풍으로 인해 떠밀려온 대나무와 그물을 걷어내는 일이었다. 그것은 누군가의 일년 농사를 위한 구조물이었고 태풍이 지나간 후에는 조업을 망친 어부의 가슴에 얽힌 응어리였다. 경기지사와 전남지사의 직원 분들과 합류하여 본격적으로 걷어내기 작업을 시작하였다. 밧줄로 구조물을 엮어 50명 가까운 장정이 달라붙어 종일 ‘으샤으샤’를 외쳤다. 이미 손바닥 굳은살은 벗겨졌고 팔과 다리는 마비가 올 지경. “어따매 저쪽 양반들은 막걸리를 안 마셔서 힘을 못쓰는당께. 옳로 와서 한잔 들고 하랑께” 마을에서 가장 어리시다는 70세 이장님께서 걸쭉한 막걸리와 농담을 연신 건네셨다. 모두들 힘든 작업 중에서도 껄껄 웃으면서 일했다. 우린 이미 이장님의 마을사람이 되어 있었다.

1박 2일간의 작업 끝에도 영킨 구조물은 전부 걷어내진 못하였다. 어부들의 아픔을 모두 끌어 넘기지 못한 것에 아직도 마음 한 편이 아리다. 그러나 밀려오는 피로감 사이로 뿌듯함도 함께 올라온다. 봉사활동에 대한 의미를 생각할

겨를도 없다. 난 그저 한전 조끼를 입고 온몸으로 내 땀으로 도와드렸다. 이것은 내가 청년인턴이었기 때문에 가능한 경험이고 나는 할 수 있는 최선을 했다. 그저 잘했고 잘했다는 생각만이 머릿속에 가득했다. 올라오는 버스 안에서서는 편안히 쉬면서 올라올 수 있었다.

우리를 환영하던 이장님의 얼굴은 오랫동안 마음속에 남았다. 이처럼 공기업이 이웃과 따뜻함을 나누는 일만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러나 이곳에서는 우리를 불편해 하고 심지어 미워하는 사람도 만날 수 있다. 안타깝게도 그들 중에는 가난하고 힘없는 사람도 있다. 이들을 어떻게 대해야 할까. 결론은 이미 정해져 있다. 한전의 전기를 쓰는 사람이라면 한전의 고객일 수밖에 없고 우리는 모든 것을 감당하고 봉사해야 한다. 난 이곳에서 그렇게 배우고 느끼고 있다. 그렇다면 소외당함 없이 모두가 전기를 안전하게 사용하는 방법은? 그에 수반한 요금제 변화 필요성은? 내 고민의 크기가 경험을 바탕으로 점점 커지고 있었다. 얼마 뒤 우리 부서는 신고를 받고 현장을 방문했다.

‘○○씨 잡시다!’ 내가 제일 좋아하는 차장님의 말씀이다. 연이은 화창한 가을 날씨에 종로거리를 걸으니 기분이 좋다. 따사로운 햇살이 등에 닿아 따끔 거린다. 잠시 뒤 목적지인 충무로 진양상가에 도착하였다. 이곳은 전기로 미납으로 단전이 된 상태. 상인들이 임대한 기름발전기가 큰 소음과 매캐한 냄새를 뿜고 있었다. 이곳은 약 250여 개의 상가와 아파트가 겹쳐진 특이한 구조다. 우리는 단전지에서 전기를 다른 곳에서 끌어다 쓴다는 신고를 접수하고 이곳에 왔다. 관리사무소를 찾아가는 길은 암흑 천지. 초를 피웠는지 복도에는 촛농자국이 있었고 상인들은 그들끼리의 다툼에 단체로 몰려다니며 위압


감을 조성했다. 이윽고 아파트 관리소장과의 면담이 이어졌다. 사무원들은 마치 나 때문에 전기를 못 쓰게 된 듯이 매섭게 나를 쳐다봤다. 햇살에 데워진 등 위로 식은땀이 흘렀다. 전기가 끊겨 초를 켜더니 소방당국이 화재위험을 제기하여 어쩔 수 없이 전기를 끌어쓴다는 이야기, 혹은 평소에 납부하던 전기료의 몇 배의 기름값을 쓰며 임대해온 발전기를 돌리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그들은 하루하루 위태롭게 전기가 없는 세상을 직접 경험하고 있었다. 또한 나와 그들은 평소에 얼마나 값싸고 공해 없는 양질의 에너지를 사용하고 있었는지 통감했다. 개인이 따로 계량기를 달면 이러한 대규모 단전사태는 일어날 일이 없지만 오랫동안 이어온 다툼이 얽혀 있어 쉽게 해결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 나는 현장에서 돌아온 후 이 단전사태가 쉽사리 해결될 문제가 아님을 언론을 통해서도 확인했다. 또한 요금관리팀에서 이러한 상황을 대비해 항상 전기료 미납과 단전에 대해 개별적 안내 및 관련 민원을 수시로 처리하고 있음을 알게 되었다.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없는 것에 마음이 무거웠다. 그저 하루빨리 이권 다툼이 해소되어 예전처럼 전기를 사용하고 영업활동을 이어가길 바랄 뿐이다.

현장을 발로 뛰며 시각을 넓히다

누구든지 어떤 사회문제에 관해 자기만의 해답을 내놓을 수는 있다. 그들은 경험과 사고의 깊이에 따라 천차만별의 대응책을 내놓을 것이다. 이날 내 머릿속은 전기 없는 복도를 지나듯 어둠이었다. 각 분야의 전문가들도 쉽사리 풀지 못하는 문제를 내가 어떻게 풀 수 있을 것인가. 다만 오늘의 경험으로 인

해 사회 문제를 바라보는 시각이 인턴업무를 하기 이전보다 훨씬 넓어졌다는 것으로 스스로를 위안할 수밖에 없었다.

오늘로써 한국전력공사 청년인턴직을 맡은 지 한 달이 되었다. 현재 순환근무정책으로 인해 지중설비팀으로 배정을 받았고 한 달 전의 나처럼 또 다른 세상을 맞이하였다. 이곳에서는 무엇을 겪고 생각하고 배울 것인가? 그것이 무엇일지라도 내가 한 단계 성장할 수 있는 기회인 것은 요금관리팀에서의 경험을 비쳤을 때 분명한 사실이다.

인턴사원이라는 일정한 책임감을 가지고 회사의 일부가 되어 세상과 대화할 수 있는 기회를 얻었다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이해할 수 있는 시간을 보냈다. 이제는 첫 출근을 하며 불안해 하던 나 자신과 5개월간 공부나 더 하라는 친구에게 당당히 말할 수 있다. 교과서는 세상을 이해하도록 도와주지만 세상 그 자체는 아니라고. 이곳은 더 많은 것을 배울 수 있는 세상이라는 이름의 더 큰 도서관이라고 말이다. 후배들에게 외치고 싶다. 청년들이여, 세상으로 나와라. 그리고 부딪쳐라! 온몸으로 체득하라! 

6

청년인턴들이여! 양복을 입어라

이 ○ ○ / 강원대학교병원

2010년 강원대학교병원에 청년인턴으로 입사하여 2011년 직원으로 채용되었고 다음 해 그 병원 임상병리사와 결혼했고 그해 가을, 2세를 얻었다.

많은 사람들이 나를 두고 말한다. ‘운이 참 좋다’고, ‘인생이 술술 풀린다’고. 하지만 직원으로 들어오기까지 얼마나 많은 노력을 하였는지 그들은 모를 것이다.

2010년, 20대 후반에 가출을 하다

2010년 여름, 집을 나왔다. 사실 가출이라기보다 출가에 가까웠다. 어쨌든 부모님께 통보는 하고 집을 나왔으니까. 집을 나오기 전까지 매우 열심히 놀았다. 운동을, 친구를, 유흥을 너무 사랑했다.

전날도 오래간만에 만난 친구 녀석과 동네 놀이터에서 술을 마시는데 녀석이 말했다. 우리가 어릴 적 했던 약속 기억하냐고, 나는 군인이 되어, 너는 경찰이 되어 제복을 입고 이곳에서 다시 만나자고 했던...

친구는 약속을 지켰다. ROTC로 임관하여 지금 내 앞에 제복을 입고 서 있

었다. 그저 추억을 회상하고자 한 말이었겠지만, 가슴에서 뜨거운 것이 용솨음쳤다.

그리고 다음날 부모님께 편지를 쓰고 집을 나왔다. 철없던 나를 원망하며, 현실을 보기 위해, 직접 사회의 벽을 실감하기 위해, 절실함을 느끼기 위해.

2010년 강원대학교병원 청년인턴으로 입사하다

유년 시절 강원대학교병원 근처 동네에 살았다. 지금은 낡고 허름한 동네지만, 내 어린 시절 추억이 서려 있는 동네였다. 그래서 강원대학교병원 근처 원룸에 방을 얻었다. 그리고 우연히 보게 된 병원 청년인턴 채용 공고를 보고 입사 지원을 하였다.

1차 서류를 어렵게 통과하고 면접을 보았다. 지금 현 원장님이 되신 기획조정실장님, 진료지원실장님, 인사위원님이 면접관으로 앉아계셨다. 질문은 세가지였다. 왜 지원했는가. 왜 당신을 뽑아야 하는가. 당신은 무얼 잘하는가.

거창하게 준비한 지원동기도, 어디서 배운 면접의 기본기도 없었다. 그냥 솔직할 수밖에 없었다.

왜 지원했는가라는 물음에 사회의 첫발을 내딛는데 공공기관이라 공정하고 공개적일 것이므로, 업무적으로나 사회경험상으로나 배울 점이 많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고 운 좋게 정식으로 입사하게 된다면 정년을 마치기에 충분히 좋은 직장이라 생각한다고 대답했다.

왜 뽑아야 하는가에 대한 질문엔 더욱 진심을 담았다. 보시는 것처럼 학력이 높은 것도 자격증이 많은 것도 아니지만, 저는 하얀 백지와 같다고, 이러저

런 글로 꼭 차 있는 사람보다 쓸 공간이 많다고, 그것을 가능성의 폭으로 봐주셨으면 한다고 대답했다.

무엇을 잘하는가의 물음엔 PC 활용, 체육활동을 잘한다고 대답했다. 실제로 PC판매 영업 아르바이트를 했었기 때문에 자신 있었다. PC 관련 자격증이 별로 없었기 때문에 정말 잘 하느냐는 물음이 돌아왔고, 뽑아주시면 실무로 보여드리겠다고 답했다. 그리고 입사하여 사무실 PC수리, 소프트웨어 관리를 전부 도맡아 해결했고 인턴이 끝나갈 무렵에는 병원 전체 전산장비 교체건에 대한 기안서를 올리기도 하였다. 그렇게 면접관님들과의 약속을 지켰다.

2011년 절실함이 무엇인지 배우다

우리를 일컬어 88만원 세대라고 한다. 씁쓸한 현실을 풍자한 이야기인데 뉴스나 신문에 '88만원 세대' 라는 언급이 나올 때마다 살짝 미소가 지어진다. 내 생애 처음 받았던 월급이 88만원이었기 때문이다. 채용 공고에는 100만원 상당이라고 되어 있었는데 세금 떼고 4대 보험료 떼고 나니 88만원이 수중에 들어왔다. 어지간한 아르바이트보다 작은 월급에 당황했지만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다. 그것이 내가 처한 현실이니까.

원룸 보증금 및 초기 생활자금을 위해 500만원을 대출을 했다. 제1금융권에서는 신용도가 낮아 거부당했고, 제2금융권에서 40%라는 고리로 대출을 받았다 한 달에 나가는 이자+원금만 40만원이었고, 방세가 30만원, 공과금이 5만원이었다. 한 달 10만원남짓으로 생활해야 했다.

생활비 계산이라는 것을 생애 처음 해봤고, 물건 사고 남은 거스름돈을 100

원, 200원을 모아 한 달에 한 번 8천원짜리 동네 피자를 사먹는 ‘사치’를 즐겼다. 부모님과 살 때는 생각조차 않았던 것들이 독립하니 ‘사치’가 되었다. 피자를 사먹을 때마다 다짐하며 어금니를 꼭 깨물었다. 꼭 성공하리라. 그해 절실함이 무엇인지 온몸으로 배웠다.

첫 월급으로 양복을 사다

출근 한 달 후 처음 받은 월급과 대출금에서 조금 떼어 양복을 샀다. 굉장히 큰 결심이었다. 20만원 정도 하는 양복을 사면 한 달은 저녁을 굶어야 할지도 모르니까 말이다.

무리를 해서라도 양복을 사게 된 것은 이유가 있었다. 당시 환자들 또는 타 부서 직원들이 직원과 봉사학생을 가르치는 1차적인 잣대가 외모였다. 당연한 것이었다. 당시 청년인턴들은 청바지에 잠바 차림으로 학생 봉사자들과 구분이 되지 않았다.

인턴(수습생)이지만 정식 직원으로 인정받고 싶었다. 직원으로 인정받아야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었고, 더 많은 일을 해야만 성과를 낼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옷을 바꾼다는 것은 작은 변화이지만 굉장히 중요하다. 옷을 바꿈으로써 마음가짐을 정돈하고, 외부적 평가를 바꿀 수 있다. 양복을 입고, 나는 이미 정식 직원이라는 생각으로 맡겨진 임무에 최선을 다했다. 그것이 정식 사원으로 가는 첫걸음이었다.

인생의 스승을 만나다

청년인턴제도의 첫 번째 문제점은 채용과정에 있다고 생각한다. 취업난을 해결하고자 하는 의도는 좋았으나, 제도를 이용하는 대다수 기업들의 기업문화가 좋은 의도를 해쳤다. 그런 점에서 강원대학교병원에 청년인턴으로 지원하게 된 것은 행운이었던 것 같다.

청년인턴의 또 다른 문제점은 업무적인 한계에 있다. 단기 채용이기 때문에 중요한 업무를 맡기기가 어렵다. 경력이 짧기 때문에 업무 장악도가 떨어지고, 중요 업무에 요하는 보안 수준에 접근하기가 어렵다는 것이다. 이러한 문제 때문에 청년인턴이 정식직원으로 채용되는 데 필요한 잣대인 '성과'를 내기가 어렵다.

그래서 인턴들을 끌어줄 수 있는 스승(멘토)이 필요하다.

나는 진료지원실이라는 진료부에서 필요로 하는 행정일을 담당하는 부서에서 근무하였는데, 그곳에서 지금도 감사하고 존경하는 스승(멘토)을 만났다. 그분께서는 인턴이 접근하기 어려운 업무에 대해 본인이 맡은 업무를 나눠주고 진행을 지도해주는 방식으로 이끌어주셨다. 그리고 잘 된 성과가 나오면 내 이름을 상부에 거론해 주셨고, 잘못된 점이 나오면 책임을 나누어지셨다.

근무기간 동안 어학을 공부한다든가, 자격증을 준비한다든가 하는 일은 하지 않았다. 대신 스승과 함께, 일에만 집중하였다. 덕분에 인턴의 한계를 넘어서는 많은 업무를 할 수 있었고 수많은 문서에 이름을 남겼다. 병원에서 최초로 실행하는 일에 기안을 하기도 하였으며, 병원협회에서 주관하는 공모전에서 표창을 받기도 하였다.

함께하는 내내 그분께서는 말씀하셨다 “병원이 네것이라 생각하고 일을 해라. 네 것인데 어찌 소홀히 할 수 있겠나”


지금도 그 말씀을 명심하고 일을 한다.

2012년 정식입사하다

2012년은 뜻깊은 한해였다. 정식사원이 되었고, 인턴시절부터 직원이 되기 까지 믿고 곁을 지켜준 여자 친구와 결혼하였다. 그리고 2세를 얻었다.

인턴이던 시절엔 병원 내에 인턴 모임이 있었다. 1년 사이에 많은 인턴들이 들어왔다가 나갔다. 1년을 다 채우는 사람도 있고, 2~3개월만 하고 나가는 사람도 있다. 1년을 다 할지 바로 내일 나갈지 모르지만 언제나 후배 인턴들에게 말한다.

“양복을 입어라. 정식직원이 되었다고 생각하고 일을 해라”

거기에서 소속감이 나오고 네가 소속감을 가지면 성취할 수 있는 업무가 주어진다. 주어진 업무는 반드시 완수해라. 그리고 인정받지 못했다고 실망하지 마라. 누군가는 너희를 지켜보고 있다. 

7

열정과 사명감, 두 가지면 충분합니다

이 ○ ○ /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그해 여름은 뜨거웠다

“도미솔도~~ 오케이!”.

2010년 7월, 나는 캄보디아의 한 대학교에서 학생들에게 피아노를 가르쳤다. 처음 그곳에 도착해 낯선 환경에 적지 않게 당황했던 나는, 현지인과 어울려 농담을 할 정도로 적응하였다. 이렇게 낯선 곳에서도 하루하루를 기쁘게 지낼 수 있었던 원동력은 바로 학생들을 가르치며 느끼는 ‘보람’ 이었다.

교육의 질이 낮은 캄보디아. 하지만 학생들은 빠른 습득력으로 피아노를 배웠다. 나는 그들의 눈빛에서 무한한 가능성과 잠재력을 보았다. 음악가가 되고 싶다면 자신의 적성을 찾은 학생의 모습이 아름다웠다. 그날 나는 한 사람이 자신의 꿈을 발견하도록 하고 그것을 이루도록 돕는 일이 얼마나 가치 있는 일인지를 생각했다. 그리고 한국에 가서도 소외받는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는 일을 하고 싶다고 생각했다.

봄이 아름다운 이유는 혹독한 겨울이 있었기 때문이다.

2012년 1월, 한국에 부푼 꿈을 안고 돌아온 지도 1년이 지났으나 취업을 하

지 못하였다. 100통이 넘는 이력서를 썼지만, 번번이 탈락하였다. 한국에 있는 수많은 회사 중 내가 일할 자리 하나 없다니... 끝이 없는 터널에 갇힌 것 같은 좌절감과 상실감은 비단 나만 느끼는 것이 아니었을 것이다.

2012년 6월,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의 청년인턴 공고문을 보았다. 실업난을 해소하기 위한 목적으로 정부에서 추진하는 인턴제도는 5개월의 기간을 통하여 평가를 거친 뒤 일정 인원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제도이다.

홈페이지에서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이 하는 일을 살펴보았다. 그리고 유튜브, 신문기사 등을 검색하여 공단에 대한 조사를 하기 시작했고 무릎을 쳤다. '이곳이 바로 내가 원하던 곳이다. 사회적 취약계층인 장애인에게 사회진출을 도와주고, 사업체에는 사회적 책임을 다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곳이기 때문이다'.

다음날, 정성껏 자기소개서를 썼다. 캄보디아의 소외된 친구들이 나를 통해 꿈을 찾아가는 모습을 보며 보람을 느꼈던 그때, 내 인생에서 가장 뜨거웠던 그 여름이 문득 스쳐 지나갔다. 그 이후 모든 전형을 통과하여 경기지사 취업 지원부로 발령을 받았다. 한국에 온 지 꼭 18개월째 되던 날이었다.

혹독한 시련의 겨울이 지나고 찾아오는 봄은 유난히 찬란하다고 했던가. '청년인턴제도'는 손톱까지 시리도록 차가운 나의 겨울에 찾아온 찬란한 봄이었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 주었을 때 그는 나에게로 와서 꽃이 되었다(김춘수 「꽃」)

“이○○ 선생님”. 이는 내가 공단에 들어와서 불리는 이름이다. 처음 맡은 임무는 회사 주차박스에서 대표원으로 일할 장애인을 찾아 알선하는 일이었다. 나는 ‘이 정도 썸이야’하고 생각했다. 하지만 장애인에게서 돌아오는 대답은 “저는 왜소증이라서 팔이 짧아요”, “저는 시각 장애가 있기 때문에 컴퓨터를 잘 못봐요”, “저는 언어 장애가 있어서 고객과 의사소통이 불편해요”, “저는 신장 투석을 하기 때문에 근무시간이 맞지 않아요”였다.

이를 동안 주어진 임무를 수행하지 못한 내게 가장 필요한 것은 장애인에 대한 이해였다. 장애인 한 명 한 명의 장애 상태를 이해하고 가능한 직무에 연결해 주되, 장애인의 희망직종과 흥미, 여러 욕구를 고려하여 ‘최적의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 이것은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이 자랑할 만한 서비스이다.

한 달 동안 선배들의 상담을 따라다니고, 사업체에 방문하여 장애인이 수행하는 직무에 대하여 샅샅이 살펴보았다. 15가지 장애 유형에 대하여 공부하였다. 선배들을 쫓아다니며 그들이 귀찮다고 할 정도로 물어보며 부족한 부분을 채우려고 노력했다. 그리고 본격적으로 상담에 임하고 전화 업무를 통하여 많은 고객들을 1:1로 만나기 시작했다.

상담이 끝난 고객에게는 ‘이○○’라는 이름을 알려주는 것 또한 잊지 않았다. 이름을 밝힘으로써 고객들은 공단에 대한 신뢰가 깊어지고, 직원들은 고객에 대한 책임감을 갖게 된다. 또한, 고객이 추후에 추가 서비스를 원할 때 담당직원의 이름을 기억하면 업무를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다.

이후 사무실에는 날 찾는 꽤 많은 장애인 고객의 전화가 걸려온다. “따르

릉” “감사합니다, 한국장애인공단 경기지사 이○○입니다”. 고객들이 내 이름을 불러줄 때 더욱 책임감을 느낀다. 난 오늘도 꿈을 끈다. ‘이○○’, 그 이름을 알고 있는 장애인들이 모두 취업할 수 있기를.

친절한 그녀

공단에서 일하며 가장 힘들 때는 악성 민원인을 만날 때다. 불만에 가득 차서 욕박지르는 민원인의 전화를 받을 때마다 식은땀이 난다. 전화를 끊고 나면 진이 빠진다. 학창시절 이마트에서 아르바이트를 했을 때가 떠오른다. 3개월마다 CS교육을 받아야 했고, 일주일마다 전 직원이 CS 수준을 테스트 받았다.

공단의 고객을 상대할 때 나오는 서비스 마인드는 아마도 그 때의 습관이 몸에 밴 것이 분명하다. 그 이후로 나는 언제나 고객만족을 제고하기 위한 서비스정신에 대해 고민을 한다. 내가 장애인에게 친절을 베푸는 것은 불쌍한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다. 공단의 고객으로 존중하고 감사를 표현하는 것이다. 친절은 마음에서 우러나오며 진심은 고객을 감동시킨다. 앞으로도 나의 진심이 많은 민원인들을 감동시킬 수 있을까.

그녀의 꿈, 그리고 장애인의 꿈

인턴을 시작한 뒤 하루도 충분히 쉬어본 적이 없을 만큼 바쁜 일상이 계속 된다. 업무가 많지 않은 날도 배워야 할 것이 많기에 때로는 사무실에 늦게까지 남는다. 하지만 2시간의 출근 시간에도 불구하고, 매일 아침 회사에 일찍

도착하여 커피를 내리고 사무실의 아침을 여는 것은 나의 기쁨이다.

지금 나에게는 하나의 꿈이 생겼다. 경영학 전공을 살려 장애인을 채용하는 업체에 전문적인 컨설팅을 하고 지속가능한 비즈니스 솔루션을 제공하는 컨설턴트가 되는 것이다. 그래서 많은 기업이 장애인을 고용하길 희망한다. 내 꿈을 통하여 더 많은 장애인들의 꿈이 이루어지길 바란다.

사람이 온다는 것은 실로 어마어마한 일이다.


그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가 함께 오기 때문이다.

한 사람의 일생이 오기 때문이다 (정현종 「방문객」)

최근에 장애인의 채용을 알선했던 회사에서 고용장려금을 최초로 받는다는 소식을 들었다. 장애인 고용에 부담을 느껴 한 번도 채용한 적이 없던 회사에 2명의 장애인을 소개했는데, 그들이 잘 적응하여 직장생활을 하고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한 명의 장애인이 회사에 잘 정착할 수 있도록 돕는 일이 이처럼 쉽지만은 않다. 어깨가 무겁다.

처음 공단에 입사하던 날, 부장님께서 말씀해주신 두 단어가 있다. ‘열정’과 ‘사명감’으로 일하라. 지난 4개월 동안 일하며 이 두 단어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철저하게 깨달았다. 앞으로도 나는 이 두 단어를 늘 기억할 것이다.

취업의 사각지대에서 소외받는 장애인의 취업을 돕는다는 것은 참 힘들고 어려운 일이다. 하지만 동시에 장애인을 위해서 일할 수 있기에 난 정말 행복하다. 인턴으로서의 지난 4개월은 아쉬움이 많이 남는 시간이다. 하지만 누구

보다도 열정과 사명감으로 최선을 다해 일했다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시간들이다. 그리고 나의 첫 사회생활을 도와준 청년인턴제도에 감사를 표한다. 2012년 10월, 나의 가을은 어떤 가을보다도 풍요롭고 아름답다. 

8

꽃피워라, 28청춘!

이 ○ ○ / 중소기업진흥공단

프롤로그

올해 나이 스물여덟.

적지도 많지도 않은 애매한 나이에 청년인턴의 신분으로 사회에 두 번째 발을 내딛기까지 많은 고민의 시간이 필요했다. 대다수의 청년인턴들은 첫 직장 생활에 대한 기대와 설렘을 온몸으로 푹푹하게 풍겨내는 새내기 사회인이지만, 나는 그들과 다르게 두 번째 직장생활에 대한 걱정과 불안감만을 칩칙하게 뿜어내던 헌내기 사회인이었기 때문이다. 또 다시 실패하게 될지도 모른다는 두려운 마음도 들었지만, '실패 없이는 성공할 수도 없다.'라는 마음가짐으로 8개월간 청년인턴의 삶을 보낸 나는 저기 저편 언덕길에서 나를 기다리고 있을 희망을 향해 열심히 내달리고 있다.

2011년 12월 그해 겨울

나의 이야기는 '떡은 사람이 될 수 없지만, 사람은 떡이 될 수 있다.'라는 광고 문구가 마치 나만을 위한 것이라고 느껴질 만큼 심신(心身)이 너털너털했

던 2011년 그해 겨울에서부터 시작된다.

대학에서 중국학을 전공했던 나는 학과 사람들 모두가 선망하는 모교 국제 교류원에서 중국교류업무를 전담하며 2년 8개월이라는 시간을 보냈다. 이 또한 인턴으로 근무하던 중 자체 직원으로 채용이 된 것이니 지금에 와서 생각해 보면 나와 ‘인턴’과의 인연은 이때부터 시작되었던 것 같다.

하지만, 늘 불안정한 계약직 신분과 개인의 성장이 제한된 자들에게만 허락 되는 그 곳에서의 하루하루가 더 이상 ‘보내는 것이 아니라 견디는 것’이 되어 버렸다는 생각이 들었을 때 더 나은 삶을 위한 용기 있는 선택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과감히 학교를 떠나 제2의 취업준비생 인생을 살게 되었다.

2012, 난 이제 달라진다

처음 일주일 정도는 너무도 행복했지만, 여유로움은 그리 오래 가지 않았다. 이미 출퇴근 시간에 맞춰진 나의 생체리듬은 얼른 일상으로 돌아가라고 나를 떠밀기 시작했다. 잡알리오를 뒤적이면서 이 많은 공공기관 중에 나를 받아주는 곳 하나 없을까 하는 막연한 생각을 하며 많은 곳의 문을 두들겼지만, 역시 준비가 부족 했던 탓일까, 안일한 태도가 문제였던 것일까? 매번 필기 전형의 문턱을 높지 못하고 좌절의 쓴맛을 봐야만 했다.

실패를 딛고 성공하기 위해서는 내가 원하는 게 무엇인지 명확히 인식해야 하는 것이 먼저였다. 그러던 중 중소기업진흥공단 청년인턴 공고를 보게 되었고, 안정된 직장을 원했던 나에게 공공기관 청년인턴 채용 공고는 마지막이면서 유일한 기회라는 절박한 생각이 들어 망설임없이 지원하게 되었고, 그렇게

시작된 인연은 현재까지 계속되고 있다.

청년인턴으로 희망의 빛을 발견하다

2012년 2월 22일. 이날은 중소기업진흥공단의 청년인턴으로서 첫 발걸음을 내디딘 날이다. 내가 근무하게 된 곳은 조직개편을 통해 올해 처음 개설된 광역본부 경영관리실로 남부권에 위치한 지역 본지부를 관리하는 곳이다. 첫 출근을 하면서 내 목표는 단 한 가지였다. ‘입은 작게, 눈은 크게, 귀는 활짝!’ 말을 많이 하게 되면 의도하지 않게 실수를 하게 되고, 불필요한 오해를 살 수도 있기 때문에 항상 언행에 주의를 기울였다. 또, 틈틈이 회사 게시물이나 내부 문서들을 읽어보면서 각 구성원들마다 어떤 일을 하는지 지역 본지부와 어떤 내용의 공문서를 수·발신하는지, 작성은 어떻게 하는지를 눈과 손으로 익혀 나갔다. 그리고 통화 내용과 대화 내용에 귀 기울이면서 나 스스로 알아볼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업무에 대한 정보를 얻고자 노력하였다. 말을 많이 하지 않아 초반에는 내성적인 모습으로 비추어지기도 하였으나 갈수록 진중한 성격으로 비춰져 다른 구성원들과 신뢰를 쌓을 수 있는 효과를 얻을 수도 있었다.

내가 처음 맡게 된 업무는 청년창업심의위원회를 준비하는 것이었다. 회의 전 함께 자료를 준비하고 회의장을 준비하던 멘토 대리님께서서는 발표자들의 내용을 듣는 것만으로도 공부가 될 것이라며 회의장에 참관할 수 있도록 배려 해주셨다. 자신의 순서를 기다리며 바짝 타들어가는 입술을 매만지던 새내기 사장님들을 보면서 그들의 화려한 비상을 함께 응원할 수 있었고, 무엇보다도 중진공에서 청년 창업가들을 위한 자금지원 정책을 적극적으로 펼치고 있다

는 점 또한 알 수 있었다. 그날 이후 나는 단순히 심의에 참관하는 것에서 나아가 평가점수를 취합하고, 심의결과를 내부공문으로 작성하여, 각 지역 본지부에 발송하는 일까지 할 수 있게 되었다. 지금은 심의일정이 정해지면 심의위원을 섭외하는 일에서부터 평가서를 작성하고, 현재까지 진행된 심의결과를 정리하는 일까지 맡아서 하게 되었다.

나의 업무는 크게 행정업무 지원과 채권회수업무 지원으로 구분되는데, 그중 채권회수업무는 내가 중진공에서 청년인턴으로 근무하지 않았더라면 결코 알 수 없었을 업무이다. 내가 맡게 된 일은 채권을 회수하면서 발생하는 소송비용을 지출 결의하는 것이었다. 채권금액이 크다보니 소송비용 또한 만만하지 않은 금액이었고, 입력해야 하는 항목도 많다보니 매번 지출 결의를 할 때마다 두 번 세 번 확인이 필요했지만, 과중한 업무로 바쁜 과장님들에게 도움이 된다는 뿌듯함과 다른 지역 본지부에서는 지출 결의가 어려워 인턴에게 맡기지 않는다는 이야기를 듣고 더욱 애착과 책임감을 가지고 임하게 되었다. 시간이 흐를수록 나의 업무처리 능력은 향상되어 갔고, 그 덕분에 중진공 입사를 대비할 수 있는 기회 또한 얻을 수 있게 되었다. 경영관리실에서 자체적으로 사회공헌활동 계획서를 수립하여 본사로 보고하여야 했는데 채용전형에 보고서 작성 시험이 있다는 것을 아신 팀장님께서는 내가 직접 작성해 볼 수 있도록 배려해주셨다. 중진공 내부 보고서 작성 매뉴얼을 참고하긴 하였지만, 책의 내용이 팀장님의 보고서 작성 노하우를 따라갈 순 없었다. 팀장님께서는 바쁘신 와중에도 몇 차례 검수를 해주시며, 보고서는 보고하는 사람이 아닌 보고받는 사람을 위한 것이 되어야 한다며 어디에 중점을 두어 작성해야 하는

지 꼼꼼히 알려주셨고, 그 덕분에 보고서 작성시험을 보다 수월하게 준비할 수 있게 되었다. 무엇보다 직접 일정을 안내한 활동이다보니 나 스스로 주도적으로 참여하게 되었고, 그 결과 지금 나는 경영관리실에서 가장 많이, 그리고 가장 다양한 사회공헌활동을 경험한 ‘달인’이라 불리게 되었다.

8개월이라는 시간 동안 내가 안에서 바라본 중소기업진흥공단은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공공기관으로서 구성원 모두가 기금의 건전성을 위해 노력하고, 진심으로 중소기업의 건강과 성공을 위한 솔루션을 제공하기 위해 고민하고 또 고민하는 곳이었다. 나 역시 그러하였듯이 대부분의 사람들이 널널한 업무 강도와 정년이 보장된다는 점에서 공공기관을 부러운 시선으로 바라보지만, 우리가 정작 부러워해야 하는 것은 공공기관의 일원으로서 가지는 책임감과 자긍심, 그리고 애사심이라는 것을 깨달았다.


에필로그

청년인턴 종료를 2개월 정도 남겨둔 지금의 나는 중진공 하반기 공채를 기다리며 틈틈이 인적성 시험과 보고서 작성을 위한 요령을 익히는 데 대부분의 시간을 보내고 있다. 물론 청년인턴 기간 동안 과거 직장과의 비교하며 ‘난 누군가? 난 여기서 무엇을 하고 있는가?’ 하는 자문을 하며 회의감을 느낀 적도 있었지만 내가 꿈꾸던 곳에서 청년인턴제도를 통해 중진공의 일원이 되었다는 소속감과 매일 내가 일할 수 있는 곳이 있다는 즐거움에 감히 비할 수는 없었다.

누군가는 정규직 전환이 보장되지 않는 청년인턴보다는 토익과 전공시험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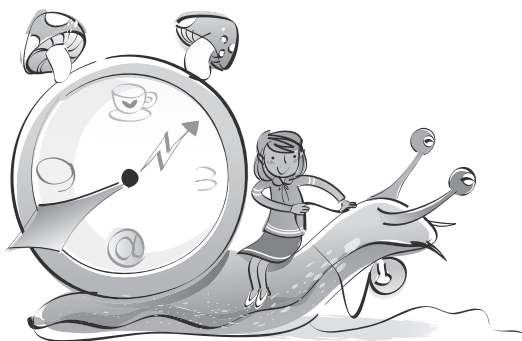
대비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라고 얘기하고, 누군가는 청년인턴 경험을 통하여 나 자신이 조직에 잘 융화될 수 있는 인재인지를 알아보는 것이 더 현명하다고 얘기한다. 사실 여기에 정답은 없다. 어떤 일에 대한 성공과 실패를 결정지를 때는 그 일에 임하는 마음가짐이 가장 정확한 잣대가 되기 때문이다. 성공하였음에도 불안하면 실패한 것이고, 실패하였는데도 평안하다면 성공한 것이 아니겠는가?

비록 나의 청년인턴 생활이 아직 끝나지 않았고, 2013년도 신입직원으로의 채용 또한 불투명한 것이 사실이지만, 그래도 현재 내 위치에서 최선을 다해 살아간다면 지난 8개월간 청년인턴으로서의 내 삶은 분명 성공한 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는다.

마지막으로, 나의 이 체험수기가 나와 같은 고민으로 방황하는 청춘들에게 자그마한 도움이 되길 바라며 이 글을 마친다. 



Ⅲ 유연근무



1

요즘 아빠와 요즘 남편 스타일!

임 ○ ○ / 한국과학창의재단

프롤로그

요즘 인기 개그프로그램 중 「아빠와 아들!」이라는 코너가 있다. 똥똥한 아빠와 아들이 먹는 것을 소재로 재치 있는 콩트를 보여준다. 똥똥한 모습에 먹을 것을 밝히는 모습이 우스꽝스럽지만 아빠와 아들이 닮고, 한없이 다정해 보이는 그 모습은 머릿속에 오래 남아 있다. 우리나라 전통문화는 아빠와 아들이 친한 문화와는 거리가 있다. 대부분 엄마가 육아를 전담하고 아빠는 먼 발치에서 엄마가 잘하고 있는지 지켜볼 뿐이다. 또한, 아빠와 아이 간에 서먹해질 때면 엄마는 애써 중재 역할을 하기도 한다.

2012년 10월 현재 나는 입사 10년차, 결혼 4년차이며 세 살배기 아들의 아빠다. 나의 유연근무제 시작은 2010년 5월 4일 새 생명이 태어나서 100일이 지난 후인 2010년 9월 1일부터이다. 맞벌이인 우리 가정은 아내가 3개월의 출산전·후 휴가 직후에 바로 출근해야 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내가 도와주지 않으면 도저히 아이를 양육할 수 없었다. 게다가, 아내는 직무 특성상 일주일에 이틀 정도는 고정적으로 자정 넘어까지 야근을 해야 했다. 처가와 친가

에 기댈 수 있는 상황도 아니었고 밤늦게까지 마땅히 믿고 맡길 수 있는 안식처를 찾지 못했다. 우리는 머리를 맞대고 고민하기 시작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좋은 엄마, 좋은 아빠로 우리 아이에게 최선을 다할 수 있을지를 고민했다. 고민 끝에 내가 저녁시간을 할애하여 아이를 돌보는 데 최대한 참여해야 가능할 수 있다는 결론을 내렸다. 그러기 위해서 나는 시차출퇴근제(8시 출근, 17시 퇴근)를 2010년 9월부터 신청하여 지금까지 계속 유지하고 있다. 나는 처음에는 썩 내키지 않았지만 지금은 대만족하고 있다. 어떻게 이런 변화가 가능했을까? 그 과정을 생각하면, 이 수기의 소재로 특이하면서도 좋은 사례가 아닐까 싶어 글을 쓰기로 마음먹었다.

내 중심의 생각으로는 행복한 가정을 이룰 수 없어!

시차출퇴근제를 신청하기 전까지 나는 아내와 소소한 의견충돌이 자주 있었다. 아내의 의견은 아이의 양육에 있어서 아빠의 역할을 강조했다. 아이의 교육상 아빠와의 스킨십이 중요하고 아빠와 같이하는 시간이 많을 때 아이의 정서가 안정된다는 자녀 육아책에 나오는 내용들을 읽었다. 또한, 같이 일하고 있으니 집안일을 분담하고 아빠가 적극적으로 참여해 달라는 것이었다. 여기에 ‘일찍 들어오라’는 말은 감초같이 꼭 끼어 있었다. 대부분 가정에서 일어나는 일이라고 쉽게 짐작이 된다. 나는 여러 가지 선입관에 사로잡혀 아내의 입바른 말이 처음엔 들리지 않았다. 인사 업무를 맡은 사람이 직원들과의 관계를 돈독히 하고 두루 살피기 위해서라도 일과 시간 후의 저녁시간에 나누는 진솔한 시간이 꼭 필요해 보였다. 또한, 저녁 때 퇴근 후에 하던 운동(배드

민턴 클럽) 시간도 포기해야 하고, 무엇보다도 남자가 ‘애 데리러 일찍 퇴근한다’는 것을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았다. 뭔가 나의 시간을 빼앗기는 상실감으로 인해 아내의 말에 쉽게 공감하기 어려웠다.

그렇지만, 이러한 내 중심적인 고정관념은 시내버스 안에서 들려오는 라디오 사연을 듣고서 갑자기 바뀌게 되었다. 사연은 아들과 함께하는 아빠의 즐거움으로 인해 행복감을 느끼고 있으며 가족의 소중함을 깨달았다는 내용이였다. 이상하리만큼 그 사연이 나를 자극했다. 아빠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생각이 자연스럽게 생겼고, 사실 따지고 보면 아내의 말이 틀린 말이 아니라는 것도 이때 스스로 느끼게 됐다. 중요한 것은 강요에 의한 것이 아니고 나 스스로 느꼈다는 것이다.

세상은 많이 바뀌었다. 일터에서든 가정에서든 남녀가 하는 일의 경계가 허물어지고 있다. 모든 일을 같이 도와서 균형과 조화를 이루는 것이 요즘의 추세다. 아들이 집안일을 하는 것을 두고 며느리에게 꾸지람을 하는 시어머니도 줄고 있다. 가정에서는 아내의 권한이 강화되는 반면, 남편의 역할이 강조되고 있다. 과거 유교사상의 잔재는 점점 허물어져 가고 있다.

일·가정 양립을 가능케 한 시차출퇴근제

시차출퇴근제는 출근시간을 한 시간 앞당긴 것에 불과한 작은 변화다. 그렇지만 이를 통해 얻은 효과는 그야말로 라이프 스타일의 총체적 변화에 기인하여 사람이 달라졌다는 얘기를 들을 정도로 혁신적이다. 그 몇 가지를 짚어 본다.

첫째, 우리 가정에 행복을 가져다주었다. 아내와 나는 집에서 한 시간 정도의 거리를 출퇴근한다. 당일의 업무량을 고려하여 야근을 해야 하는 경우는 반드시 상대에게 알리고 겹치지 않도록 조율 과정을 거친다. 야근을 하지 않는 사람이 저녁 7시까지 어린이집에 가서 아이를 데리고 와서 씻기고, 밥 먹이고, 책 읽어주고, 같이 놀아주고 재우기까지 해야 한다. 처음엔 아이가 엄마를 찾으면 어떻게 할까 걱정도 많았지만 아이도 잘 따라 주었고, 이젠 나도 아이를 보는 노하우가 습득이 됐다. 이제 어린이집에서 알려오는 알림장을 보면서 아이와 같이 오늘 한 일에 대해서 공유하고 장난치는 여유까지 생겼다. 이제 커가면서 더욱 아빠와 같이할 시간들이 기대되기도 한다. 저녁 7시부터 10시까지 단 3시간이 아이를 위한 시간이 아니고 이제는 내 시간이 된 것이다. 이 시간이 내가 아빠로서, 남편으로서 우리 가정을 행복하게 이끌어가는 힘이 된다. 아내도 이런 나의 변화에 동기 부여를 적극적으로 해주고 긍정의 힘을 불어넣어 주고 있다. 우리 가족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마음을 풀어 놓을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생긴 것이다. 서로 고마워하고 있다.

둘째, 가정의 행복은 일에서도 긍정적인 효과를 발휘된다. 가화만사성(家和萬事成)이라는 말이 있듯이 가정이 화목하면 일도 잘 풀린다. 흔한 말이지만 이 한자성어를 실감하게 됐다. 공(公)과 사(私)는 구별되어야 하지만 동시에 공(公)과 사(私)는 균형과 조화를 이뤄야 한다. 가정이 안정될 때, 일터에서의 업무 효율성도 증대된다. 특히, 아침 8시에 출근하여 업무를 시작하면 근무에 집중할 수 있다. 내·외부의 전화응대로 인한 업무 중단도 없고 생각하며 일할 수 있는 온전한 내 시간이기 때문에 집중력을 발휘할 수 있는 것 같다. 특

히, 인사 업무의 경우 조그만 실수도 용납이 되지 않기 때문에 늦게까지 잡념 속에서 일하는 것보다는 남보다 먼저 출근하여 집중력 있게 처리하는 것이 훨씬 효율적임을 깨달았다. 물론, 일처리의 속도나 생산성, 업무만족도 측면에서도 만족스럽고 그렇게 평가받고 있다고 자부한다. 바로 이것이 일과 가정 양립의 결실이라고 생각한다.

셋째, 아침형 인간이 된다. 나의 하루는 새벽 5시 20분부터 시작된다. 저녁 시간을 아이와 함께하는 대신 아침 시간을 최대한 알차게 활용해야 한다는 생각에 여러 가지 효과적으로 시간을 활용한다. 꾸준한 체력관리를 위해서 새벽 6시까지 일터 근처에 있는 문화체육센터로 온다. 이른 출근시간은 혼잡한 교통상황을 피할 수 있고, 출근시간을 단축할 수 있으며 조용히 외국어 공부를 할 수 있어서 보람도 느낄 수 있다. 문화체육센터에 와서는 클럽회원들과 배드민턴을 1시간 30분가량 친다. 운동량도 많고 안전하며, 회원들 간에 즐거운 분위기에서 하는 운동은 그야말로 피로를 말끔히 씻어주는 활력소가 된다. 운동이 끝나면 8시 업무 시작에 지장이 없도록 정리하고 근무를 시작한다.


넷째, 우리 아이와 친한 아빠, 좋은 남편이 되는 것을 덤으로 얻을 수 있다. 부모와 자식 사이는 사람이 태어나서 가장 먼저 맺는 인간관계이고, 이 세상에서 누구보다도 가장 가까운 관계이다. 더구나 자기 마음대로 선택하거나 바꿀 수도 없는 절대적인 것이기 때문에 오륜 중에서도 첫째로 꼽는다. 그런데, 우리는 자주 잊고 지낸다. 나의 직·간접 경험에 비추어 보면 어릴 적에 아이와 함께한 시간이 적은 부모는 아이가 사춘기일 때 부모 또한 어려움을 겪고, 아이는 본인이 커서 가정을 이루기 전까지는 가정의 소중함을 깨우치기 어려

운 경우가 많다. 나는 이 안타까운 괴리를 좁히고자 우리 아이와 친해지려고 노력하고 있다. 그리고 가정을 올바로 이끌어야 하는 가정의 리더로서의 책임이 있다. 나는 이 모든 문제의 해결책을 시차출퇴근제로 내게 주어진 저녁 3시간에서 찾고자 했고 그 결실에 만족하고 있다. 더불어, 아내에게도 좋은 평점을 받을 수 있는 덤이 따라 왔다고 생각한다.

에필로그

시차출퇴근제는 내게 있어서 라이프 스타일을 긍정적인 방향으로 확 바뀌 놓았고, 일터와 가정에서 균형 잡힌 생활이 가능하도록 했다. 처음에는 인사 담당자라는 부담, 저녁 약속에 대한 부담, 가부장적인 관념으로 인해서 망설였다. 또한, 출근할 때는 모르지만 일찍 퇴근한 자리는 쉽게 눈에 띄기 때문에 부서의 전체 분위기를 해칠 수 있고, 좋게 보지 않는 시선이 있을까봐 걱정도 많았다. 하지만, 2년여 동안 시차출퇴근제를 이용한 지금은 유연근무제 예찬론자가 됐다. 작은 변화지만 크고 소중한 것을 얻을 수 있는 기회가 되기 때문이다.

근로자는 자신의 직무에 최선을 다하고, 경영자는 근로자가 일터와 가정에서 균형 잡힌 생활이 가능하도록 지원하는 이 제도가 계속 확대·발전할 수 있기를 바란다. 특히, 육아로 고민하고 있는 젊은 가정의 아빠들이 그 혜택을 최대한 누릴 수 있도록 권하고 싶다. 더 이상 육아부담은 엄마의 몫이 아니라는 것을 잘 알고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또한, 시간관리만 잘한다면 틈틈이 누릴 수 있는 자기계발 시간이 덤으로 오기 때문에 적극 권하고 싶다.

끝으로, 유연근무제가 올바르게 정착하기 위해서는 근로자는 자신의 근무시간을 양심적으로 최선을 다하여 높은 업무 생산성을 보여야 하고 경영자는 이를 바탕으로 유연근무제를 통한 긍정적인 측면을 고려하여 탄탄한 조직문화로 이끌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2

뜻뜻한 엄마, 뜻뜻한 며느리, 뜻뜻한 직장인

김 ○ ○ / 한국정보화진흥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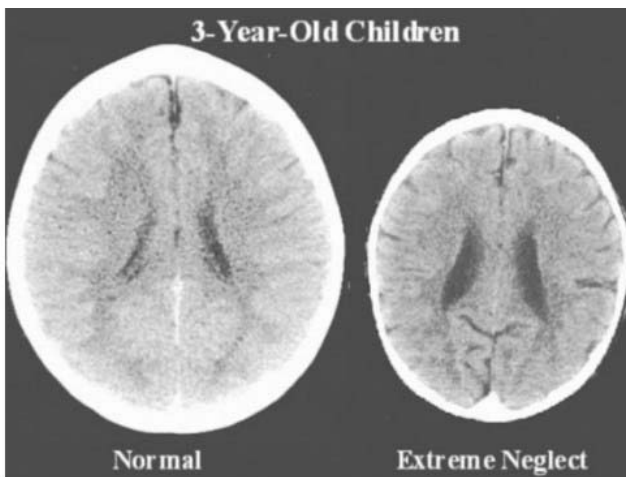
한줄기 빛과 같았던 유연근무제와 스마트워크

저는 43개월짜리 남아를 키우고 있는 대한민국의 평범한 '직장맘'입니다. 우리나라에서 회사에 다니는 많은 엄마들은 아마도 밀도끝도 없는 죄책감을 안고 지냅니다. 회사에 나오면 아이와 아이를 돌봐주는 어느 누군가에 대한 죄책감을 느낍니다. 퇴근하면서는 간혹 내가 끝내지 못한 일을 대신하는 동료나 일을 기한 내에 맞추기를 눈에 불을 켜고 기다리는 상사 혹은 고객에 대하여 뭔가 개운하지 않은 감정을 느낍니다. 언제 어디서나 뜻뜻하지 못한 기분을 느끼는 우리나라의 육아 현실은 정말 참담하기 이를 데 없습니다. 강요되는 모성애, 강요되는 슈퍼우먼으로서의 사회적 역량 발휘에 대해서는 신문이나 방송에서도 많이 다루어졌습니다. 학창시절에도 나름 공부를 잘 했고, 당당한 커리어우먼으로서의 꿈을 그리던 저였지만, 아이를 낳고 보니 현실은 막막하더군요. 저에게 강요되는 많은 역할들 속에서 혼란스러울 때, 육아와 사회생활 사이에서 균형을 잡을 수 있는 한가닥 희망의 빛을 보여준 것은 바로 유연근무제와 스마트워크였습니다.

12개월의 육아휴직을 마치고 업무에 돌아오면서부터 현재까지 저는 8시에 출근하여 오후 5시에 퇴근하는 제도를 택하고 있습니다. 물론 업무가 많거나 고객의 요청이 있으면 기한없는 야근을 합니다만, 저의 권리를 주장하면 언제든지 5시에 당당하게 퇴근을 할 수 있습니다. 5시 정각에 퇴근을 하게 되면, 6시에 집에 도착합니다.

오후 5시에 퇴근하는 것이 직장맘에게 얼마나 큰 의미인지, 보직자와 높은 직급에 계신 분들은 아실지 모르겠습니다. 직장맘에게 5시 퇴근을 할 수 있거나 혹은 10시에 출근을 할 수 있다는 것은 내 아이의 뇌를 통통하게 살찌울 수 있는 아주아주 소중한 시간을 확보해 주는 것이라는 걸 아실까요?

얼마전 영국 데일리메일에서는 미국 국립과학회원보 인터넷판에 실린 ‘방치된 아이의 뇌’와 ‘부모에게 정상적인 돌봄을 받고 자란 아이의 뇌’ 사진과 관련 기사를 보도하였습니다. 아기가 처음 2년간 제대로 돌봄을 받지 못하면



*보통 3살 아이의 뇌(좌측)와 사랑받지 못한 아이의 뇌(사진=데일리메일)

발달에 근본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저는 운이 매우 좋아서 제 가족 중 한 분이 저희 아이를 대신 돌보아 주십니다. 다행히도 좋은 어린이집 선생님을 만나서 적절한 교육적 자극을 받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유연근무제를 하지 않는다면 저는 아이를 하루에 고작 2~3시간밖에 보지 못합니다. 그 2~3시간 중에서도 2시간은 각종 집안일을 하느라, 아이와 시간을 보낼 수는 없죠. 유연근무제를 통해 별개 되는 시간이 고작 1시간이지만, 그 1시간은 제가 오롯하게 아이와 보내는 시간에 보태집니다. 다른 직장맘에 비하여 아이와 보내는 시간이 조금 더 많은 저도 위에 언급한 기사를 보면서 눈물을 주르륵 흘렸는데, 야근을 밥먹듯이 하거나 근무시간이 일정하지 않은 많은 직장맘들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유연근무제 더 확산되고 정확하게 지켜져야

저는 유연근무제가 좀 더 많이 확산되고 정확하게 지켜지기를 희망합니다. 아이들은 우리의 미래라고 하죠. 제도적으로 부모가 아이를 제대로 돌볼 수 있는 최소한의 시간을 마련해주는 이 제도가 정착하기를 희망합니다. 사람의 욕심은 끝이 없어서, 제가 할 수 있는 유연근무제도가 보다 다양해지기를 바랍니다. 현재의 8시~5시 근무만이라도 지속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유연근무제가 가져다 준 그 ‘한 시간’을 통해 저는 ‘뜻뜻한 엄마’가 됩니다. 아이에게 책 한 권을 더 읽어주고, 아이가 한 번 더 웃을 수 있게 노력할 수 있습니다. 그 ‘한 시간’ 때문에 저의 아이를 돌봐 주시는 시어머님께 저는 보다 ‘뜻뜻한 며느리’가 될 수 있습니다. 아이와 시부모님 저녁밥이라도 한번

더 차릴 수 있는 시간이 생겼죠.

유연근무제가 보장하는 퇴근시간 '5시'는 제가 멋뻐하게 제 업무를 마무리 짓고 나갈 수 있게 해줍니다. 우리나라의 근무제도상 아침에 아무리 일찍 나와 일해도 그건 초과근무나 근무시간으로 인정해 주지 않습니다. 제가 매일 30분 일찍 나와 일해도 한번 5분 일찍 퇴근하면 그것은 근무태만인 것이죠. 제도적으로 보장하는 퇴근 시간 '5시'는 제가 '멋뻐한 직장인'으로 상사와 고객을 대할 수 있게 해줍니다. '저는 유연근무제 중입니다. 5시에 퇴근하니, 업무에 참고해 주세요.'


일주일에 한번 정도는 집 근처 스마트워크센터에서 근무를 합니다. 업무일정과 고객과의 협의를 위한 약 2달여간 스마트워크를 못하고 있습니다만, 일정 조정에 여유가 생기면 다시 스마트워크를 재개할 계획입니다. 스마트워크를 하려는 가장 큰 이유는 역시 멋뻐한 엄마, 멋뻐한 며느리, 멋뻐한 직장인이 되기 위해서입니다. 43개월짜리 아기는 병원에 갈 일이 참 많습니다. 감기가 걸려 콧물만 나오면 열이 훌쩍 40도가 됩니다. 콧물이 일주일 넘게 지속되면 금새 중이염으로 병이 깊어지기도 합니다. 일반적인 동네 소아과는 6시 반이면 마지막 진료 접수를 받습니다. 습진이 나서 피부과에 가려고 하면, 5시 반까지는 와야 진료를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 가서 예방접종 확인증이나 정기 건강검진 결과표를 가져오라고 합니다. 병원 갈 때 연차를 쓰면 되지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을 줄로 압니다. 연차는 아이가 정말 아파서 병원에 장기로 입원해야 할 때나 아이를 맡길 데가 없어질지 모르는 그런 비상사태를 위해 아껴두고 싶은 게 엄마의 마음입니다. 일정 조정이

안되는 학부모 면담과 같은 때에도 쪼개 써야 하는 것이 직장맘의 아주아주 소중한 연차입니다. 너무나 기쁘게도 스마트워크를 하면 아이를 6시 반 이전에 병원에 데려갈 수 있습니다. 집 근처에서 스마트워크를 하면 아이 면담에 늦지 않고 가서 선생님 눈치를 보지 않아도 됩니다. 스마트워크를 하면 일주일에 한 번 반찬거리를 사들고 가서 식구들에게 맛있는 음식을 해줄 수 있습니다. 다시금 얼굴에 웃음을 띠며 저는 떳떳한 엄마, 떳떳한 며느리가 되어 봅니다.

스마트워크로 다시 찾는 일상의 행복

스마트워크의 또 다른 장점은 업무 몰입의 극대화입니다. 사무실이 주는 안정감은 업무추진에 있어 매우 중요한 요소입니다. 보고서를 작성하거나 아이디어를 내는 업무가 종종 있는 저에게는 때로 전화나 주변의 잡담이 없는 조용한 공간이 필요합니다. 스마트워크센터는 이럴 때 정말 유용한 근무환경을 제공하여 줍니다. 다른 기관과 조직에서 온 분들이 함께 근무하기 때문에 오히려 잡담을 하거나 다른 일을 하기 어렵더군요. 근무가 태만해질 수 있다는 우려를 하시는 분은 주변의 시선에 아랑곳하지 않는 일명 ‘간이 크신 분’이거나 스마트워크를 해 보지 않은 분들이라고 생각됩니다. 스마트워크센터의 회의실에서 동료와 회의를 하면 새로운 환경 덕분에 회의 분위기가 매우 좋습니다. 일상적인 분위기에서 벗어나니 아이디어도 잘 나옵니다. 직장인에게 가장 위협한 것은 매너리즘일 수 있습니다. 스마트워크는 매너리즘에 빠진 직장인에게 숨 쉴 수 있는 좋은 대안도 될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도 듭니다.

사람의 욕심은 끝이 없는지라, 스마트워크센터에서 근무할 때도 유연근무제 시간에 맞추어 근무할 수 있었으면 정말 더 이상 바랄 것이 없겠다는 생각도 해봅니다. 하지만, 이건 제 욕심일 것 같네요. 센터를 관리해 주시는 직원은 그럼 하루에 최대 10시간은 일하셔야 하니, 그것은 근로기준법에 위배되는 일이 될 것도 같습니다.

대한민국에서 평범하게 아이를 키우는 30대 여성으로서 저는 유연근무제와 스마트워크를 통해서 우리나라의 근로문화가 지속적으로 바뀌어 나가기를 희망합니다. 제가 누리고 있는 혜택을 일반 기업에 다니는 제 친구, 제 선배, 제 후배들이 누릴 수 있기를 희망해 봅니다. 내 아이를 내 손으로 돌볼 수 있는 그런 나라가 되기를 희망해 봅니다. 

3

일과 학업! 자기계발의 든든한 지원자 유연근무!

문 ○ ○ / 한국건설교통기술평가원

일과 학업! 자기계발의 꿈을 키우다

저는 건설교통 분야 국가연구개발사업을 기획, 평가, 관리하는 연구관리 전문기관에 재직중입니다. 제가 재직중인 기관은 특성상 임직원 대부분이 건설교통 분야 석·박사 출신으로 연구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데 있어 자기계발이 끊임없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저도 다른 직원들과 마찬가지로 토목분야 석사로서 2006년 지금 회사에 입사하여 전공과 관련한 연구관리 업무를 수행해 오고 있습니다.

제가 약 6년이 넘게 현재 직장에서 일하면서 가장 크게 느꼈던 점은 건설교통 분야 국가 연구개발사업을 기획, 평가, 관리하는 담당자로서 관련 분야에 대해 지속적으로 기술 트렌드를 파악할 수 있도록 제 능력을 계발하는 것이었습니다. 회사에서 실시하는 각종 교육만으로는 자기계발을 충족하기에 부족하여, 제 스스로 고민 끝에 내린 결론은 학업을 병행하여 전공 관련 지식을 좀 더 넓히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회사 업무 특성상 업무 강도가 높으며 야근이 잦은 상황에서 제가

일과 병행하여 학교에 진학한다는 것은 그리 쉽지 않았습니다. 특히 입사 이후 약 5년간은 사회 초년생으로서 회사업무에 집중할 수밖에 없었으며, 일과 시간에 학교 수업을 수강하기 위해서는 개인 연차를 사용해야 하는 등 학업을 병행한다는 것은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정부에서 추진한 유연근무제도 도입은 제게 정말 반가운 소식이었습니다. 바쁜 일상이지만 자기계발을 위해 근무시간을 공식적으로 제가 조정할 수 있는 제도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동안 제가 계획하고 있던 학업을 통한 자기계발을 이루고자 금년부터 대학원 박사과정에 진학을 하였고, 회사에서도 유연근무를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유연근무 실시 이전에도 야근이 잦았던 저에게는 공식적으로 자기계발 시간을 투자할 수 있는 유연근무가 매우 좋은 기회였습니다.

유연근무를 통한 자기계발 실천

이러한 배경으로 저는 금년 3월부터 유연근무를 통해 일과 학업을 병행하고 있습니다. 일주일 일과시간 중 월요일, 수요일 오후는 대학원 수업을 위해 일과시간을 비우고, 비운 시간은 월~목요일 출근 및 저녁 근무시간을 조정하여 1주 40시간 근무를 준수하고 있습니다.

또한, 유연근무에 따른 출퇴근 시간 등 근태관리를 철저히 준수하여 유연근무자로서 본 제도의 기본 취지를 성실히 수행하고 있습니다. 학업도 일과시간을 할애해서 다니는 만큼 더욱 열심히 매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석사 졸업 후 8년 만에 다시 학업을 시작하는 상황에서 학업에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이 절실

했던 저에게는 유연근무제도는 든든한 지원자였습니다.

요일	유연근무시간 (40H)	자기계발(학업, 10H)	비고
월	08:00 ~ 12:00 (4H) 18:00 ~ 21:00 (2H)	13:00 ~ 18:00 (5H)	출퇴근시간 조정
화	08:00 ~ 18:00 (9H)	-	출근시간 조정
수	08:00 ~ 12:00 (4H) 18:00 ~ 21:00 (2H)	13:00 ~ 18:00 (5H)	출퇴근시간 조정
목	09:00 ~ 21:00 (10H)	-	퇴근시간 조정
금	09:00 ~ 19:00 (9H)	-	퇴근시간 조정


자기계발과 그 이상의 만족감

직장인이라면 누구나 꿈꿀 것입니다. 일과 가정, 일과 취미, 일과 학업 등 일에만 몰두하기보다는 다른 생활 활력, 자기계발을 추구하고자 할 것입니다. 저는 그 중에서도 일과 학업의 병행을 추구하고, 이를 실천하기 위해 유연근무제도를 적극 활용하였습니다. 저에게 유연근무는 단순히 자기계발을 위한 시간을 제공해 준다는 물리적인 도움보다 더 많은 것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첫째는, 무엇보다 일에 대한 자신감입니다. 사실 제가 일과 학업을 병행하고자 계획을 세운 것은 이미 3년 전이었습니다. 그러나 직장생활을 시작한 지 3년남짓 지나지 않은 시점에서 선뜻 학업을 병행하기는 어려웠습니다. 일과 시간에 자기계발을 위한 시간을 할애할 수 없는 상황이기도 했지만, 무엇보다 일과 학업을 잘 수행해 나갈 수 있을까라는 걱정부터 앞섰던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회사에 유연근무제도가 도입되고 나서부터는 자기계발 시간 확보, 업

무시간의 유연성 확보를 통해 일과 학업을 병행할 수 있었고,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을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두 번째는 업무 집중력 향상 및 시간활용의 효율성 제고입니다. 학업 병행은 기회이자 일상 업무에 지친 저에게 또 다른 활력소가 되었습니다. 잠시 일과시간을 벗어나 대학 캠퍼스, 강의실에서 자기계발을 위한 시간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은 분명 저에게는 전환의 기회이자 업무시간에 집중할 수 있는 동기 부여가 되었습니다. 자기계발을 위한 시간을 할애하는 만큼 업무시간에는 좀 더 집중하여 효율을 높여야 한다는 것을 스스로 느낄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또한 회사에서 학교까지 오가는 시간을 활용하여 회사에서 실시하는 온라인 교육 등 각종 부수적인 업무를 수행하여 시간활용의 효율성도 높일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저는 유연근무를 통해 그동안 고민해 오던 자기계발을 실천할 수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제가 회사업무를 수행하는 데 있어 좀 더 자신감과 책임감을 가질 수 있게 되었으며, 시간활용의 효율성도 높일 수 있었습니다. 나 자신의 한 단계 발전을 실천할 수 있도록 밑거름이 되었던 유연근무제도의 활용을 다른 분들께도 적극 추천드립니다. 

4

'행복 복원 기술원'에서 일한답니다

박 ○ ○ / 국립공원관리공단

나는 도시에서 태어났다. 도시에서 자랐고 일을 배웠고 결혼을 했다. 내가 살았던 공간은 시멘트와 포장도로와 밝은 불빛의 세상이었다. 상을 받을 만큼 열심히는 아니었지만, 그래도 크게 게으름을 피우거나 불평을 일삼으며 살지는 않았다. 사는 일은 그리 녹록치 않았지만 그렇다고 쓰디 쓴 것만도 아니었다. 힘든 일은 힘든 만큼, 편한 일은 편한 만큼 조금씩은 행복하고 조금은 불행했다. 그리고 나는 그 공간과 그 시간이 그대로 지속될 것이라 생각했던 것 같다. 그러면서 나이가 들어갔다.

일이 즐겁지 않은 것도 아니었고 급여가 불만인 것도 아니었지만, 도시에서의 삶은 늘 쫓기는 삶이었다. 새벽에 일어나 출근하고 해가 진 뒤에나 퇴근하는 생활이 반복되면서 나는 점차 건조해져 갔다. 감정도 생각도 파삭파삭 말라갔고 어쩌다 활짝 핀 봄 벚꽃을 보거나 셋노랑게 물든 은행잎을 보면서 이렇게 떠밀리며 늙어도 되는 것인지, 이렇게 말라붙으면서 낙엽처럼 부서져 버리는 것은 아닌지 불안해 하였다. 내게 필요한 것은 나를 돌아보고 지금 이 자리에서 주어진 것을 즐길 여유였지만 휴일조차 일을 생각하고 걱정해야 하는

생활에서 오롯이 나를 찾고 생각하는 시간은, 늘 닳치는 일거리와 걱정거리 때문에 언제나 뒷전이였다.

삭막한 도시를 벗어나 시작한 시골살이

힘에 부친다는 기분이 들 무렵, 남편은 책상에서 일하는 것을 그만두고 시골로 가서 살자고 했다. 길으로는 나름대로 세련되게 잘 적응해서 살고 있었지만, 시골 출신인 남편에게는 도시의 삶이 늘 빌려 입은 옷처럼 맞지 않았던 것 같았다. 늦더위가 안 그래도 고단한 저녁시간을 더 힘들게 했던 몇 해 전 그날 저녁, 남편은 그렇게 귀농도 아닌 무작정 시골살이를 제안했다. 진지하게 생각해 본 적도 없고 꿈 꿔 본 적도 없는 시골행 제안이었다. 하지만 살다 보니 꼭 내가 꿈꾸는 대로 살 수 있거나 상상한 일만 일어나는 것은 아니라는 것 정도는 알 나이였고 뭐 별 거 있으랴 싶은 심정이었다. 사실 그때 마음 저 밑바닥에서는 막연한 불안이 있었다. 시골이라니. 그곳은 어린 시절의 외갓집이거나 피서철의 여행지이지 내가 살아갈 곳과는 거리가 먼 곳이었다. 호기심이 고양이를 잡는 법이다. 본능이 호소하는 불안은 새로운 생활에 대한 호기심과 일에서 도망치고 싶은 마음 때문에 잠깐 떠오르다 묻혔다. 그렇게 나는 시골로 왔다.

우리가 살게 될 집이라고, 꽤 괜찮은 집을 운 좋게 구했노라 자신 있게 남편이 보여준 집을 처음 본 순간 나는 현실을 깨달았다. 별 좋고 아늑한 남향집은 파리떼에게도 아늑했나 보다. 새로 벽지를 하얗게 바르고 마르라고 열어둔 창

문으로 11월의 찬바람을 피해 들어온 파리떼가 온 방안에 가득했다. 내 머리도 파리떼와 함께 어지럽게 빙빙 돌았다. 그나마 그것은 시작이었다. 한밤중에 불에 댄 듯 손가락이 아파 불을 켜면 한 뺨도 넘는 큰 지네가 손가락을 물고 이불 위로 도망치고 있었고, 화장실에 앉아 있으면 천정에서 눈앞으로 시커먼 거미가 줄을 치며 내려왔다. 아침에 마당에 나서면 뱀이 지나가고 고양이뺨 만한 텃밭에 쭈그러 앉아 새싹을 들여다보고 있으면 두더지가 땅속에서 튀어 올라왔다. 충격과 공포 그 자체였다. 누가 시골이 조용하다고 했던가. 먼동이 겨우 틀 무렵부터 귀가 따가운 새소리와 함께 도무지 의미를 새기기 힘든 사투리의 이장님 방송이 단잠을 깨운다. 애써 외면하고 이불을 끌어 올리지만 이번엔 전쟁영화에서 본 탱크에서나 날 만큼 엄청난 소리를 내며 경운기가 집 앞 골목을 내달린다. 지난 밤에 늦게 잤건, 감기몸살 기운이 있건 말건 아침의 소리들은 늘 지나치게 친절한 모닝콜처럼 여지없이 제 시간에 잠을 깨운다. 그리고 손 쓸 시간도 없는 날것 그대로의 하루가 시작된다. 여름엔 불볕이, 겨울엔 지리산을 내달려온 찬 눈바람이 문을 여는 순간 들이닥친다. 도시에도 더위와 추위는 있었지만 이렇게 노골적이고 적대적인 맨날의 자연은 겪어 본 적이 없었다. 모양새나 멋은 고사하고 그저 닥친 더위와 추위를 어떻게든 모면해 보려 애쓰는 하루다.

다행스럽게도 사람은 습관의 동물이다. 도무지 익숙해질 것 같지 않던 낯선 환경도 한 해 두 해 지나다 보니 그 자극이 약해졌다. 혼비백산 기겁하던 것이 차츰 무덤덤해지고 견딜만해졌다. 하지만, 정말 큰 문제는 바깥의 문제가 아니라 내 문제였다. 도시 출신의 사십대 중반 여자가 농촌에서는 아무 쓸모가

없다는 것이 문제였다. 로마사 연표를 알고 있고, 방송 큐시트를 주루룩 쓸 수 있다는 것, 매장 경영계획서를 쓰고 이벤트 기획안을 작성할 수 있다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었다. 그보다는 언제 상추며 시금치 씨앗을 뿌려야 하는지 아는 것과, 개냉이와 냉이를 구별하는 방법이 더 쓸모가 있었다. 그리고 나는 그 모든 것에 철저히 무능했다.

스스로 크게 유능하거나 똑똑하다고 생각하고 살지는 않았지만, 그렇다고 또 철저히 무능한 인간이라고는 생각하지 못했었다. 적어도 이 시골마을에 살기 전까지는 말이다. 그러나 이 전혀 다른 공간은 이런 생각이 오만이었음을 아프게 알려주었다. 사람이 살아가는 데 필요한 것을 알려주는 것은 많은 책과 지식만이 아니라는 것을, 그리고 나는 이 세상을 움직이는 또 다른 진짜 얼굴을 전혀 모르고 살아왔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었다. 자신이 별 쓸모가 없다는 것을 인정하는 일은 씁쓸한 일이다. 그리고 아픈 일이다. 시골살이가 싫어지고 도시가 그리워졌다. 아니 내가 그렇게까지 무능한 사람은 아니라고 항변을 하고 싶어졌다. 하지만 어떻게 내가 쓸모 있음을 증명할 것인가? 손이 닿지 않는 등 가운데의 가려움 같은 그 고민을, 나는 다음해 봄이 다가도록 안고 있었다.

그 무렵 이곳에서 알게 된 분으로부터 종 복원 기술원에서 일해 보지 않겠냐는 권유를 받았다. 국립공원관리공단? 반달곰? 생소했다. 강아지도 못 만지는 내가 무려 반달곰을 다시 숲에 살게 하는 곳에서 일을 한다는 것은, 내가 시골 살이를 상상하지 못했던 것만큼이나 전혀 상상 밖의 일이었다. 그리고 어차피 시골로 온 바에는 다시 도시의 숨가쁜 삶으로 돌아가지는 않겠다고 생

각했기에 직장생활을 또 시작한다는 것이 썩 달갑지가 않았다. 그런데 근무 조건이 솔깃했다. 주 3일 유연근무제라는 근무형태란다. 일주일에 3일만 일 하면 되는데다 업무내용도 매장관리와 탐방객 안내라니 아주 낮은 일은 아니다. 하루 곰곰이 생각해 보니 해야 할 일이었다. 내가 비록 생각과 조릿대를 착각하고, 땅콩이 땅속에서 캐는 것이라는 것을 모른다고 해도 그렇게 철저히 무능력하지만은 않다는 것을 증명하고 싶어졌다. 내 스스로에게 말이다. 그렇게 나는 국립공원관리공단 중 복원 기술원의 유연근무제 직원이 되었다.


자연과 함께하는 직장, 또다른 행복

3일을 일하고 4일을 쉬는 것은 하고 보니 참 괜찮은 일이다. 출근해서 근무하는 것이 조금 힘들어지기 시작할 쯤이면 휴일이다. 쉬면서 부지런히 하고 싶은 것을 하다가 조금 지루해질 쯤이면 다시 출근이다. 일이 크게 벅차지 않으니 출근도 즐겁고, 직장이 있으니 설 때도 즐거운 긴장이 있다. 약기를 배우는 일만 해도 내쳐 신다면 아마 미루고 미루다 손을 놓고 말텐데 내일부터 출근이다 싶으면 귀찮아도 또 연습을 하게 된다.

출근길은 내 산책길이다. 4일 쉬고 출근길에 나서면 그새 들녘과 산의 풍경이 달라져 있다. 늘 오가는 길이지만 새롭고 반갑다. 열심히 땀 흘려 일한 농부들이 만들어 놓은 논밭 풍경이 고맙고, 한 푼 돈 들이지 않아도 늘 풍성하고 아름다운 정원으로 다가서는 지리산이 고맙다. 반달곰이 어떻게 사는지, 국립공원과 그곳을 지키는 사람들은 무슨 일을 하는지, 생물과 환경에 대해서는 전문가이고 누구보다 현장을 잘 아는 동료들이 해주는 이야기를 듣는 것은 큰

즐거움이자 공부다. 나는 이곳에서 나를 둘러싼 산과 강과 들에 사는 여러 생명들과 풍경의 의미를 이론이 아닌 실제로 생생히 보고 배웠다. 이름 없는 들꽃이 아니라 꿀풀, 쑥부쟁이, 이질풀이고 그냥 새가 아니라 삵꾸기와 동박새라는 것을 알았다. 출퇴근길에 만나는 이 모두에게 나는 소리 높여 ‘안녕’ 하고 인사를 한다.

쉬는 날에는 가족과 나를 위해 시간이 오래 걸리고 공이 들어가야 하는 효소를 만들고 밀반찬을 만든다. 예전에 배우다 손 놓았던 우크렐레를 다시 배우기 시작했다. 함께 쉬는 날에는 남편과 지리산 둘레길을 걷고 건강을 위해 춤도 배운다. 욕심껏 책을 읽고 음악을 듣는다. 그리고 때때로 아무것도 하지 않고 마당에 나서면 눈앞에 가득한 이 아름다운 세상을 바라본다. 돈에 대한 욕심, 권력과 지위에 대한 욕심을 조금 덜어냈는데 그보다 훨씬 많이 채워진 내 작은 행복들을 되새겨본다. 멀리 있는 줄 알고 숨 가쁘게 앞만 보고 달리며 찾지 못했던 평화와 행복이 지금 내 곁에 앉아 있는 것을 안다. 가끔 만나는 옛 지인들이 좋아 보인다며 요새 무슨 일을 하냐고 물으면 나는 짐짓 뭔가 심오한 삶의 비의라도 아는 것 같은 표정을 지으며 이렇게 대답해 준다.

“저, 요새 행복 복원 기술원에서 일한답니다.” 

5

飛上 _ 날개를 달다

차 ○ ○ / 국민체육진흥공단

저는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 인재경영팀에서 근무하고 있는 차○○입니다.

불과 몇 달 전만 해도 입사와 함께 잠시 중단하였던 대학원 학업을 지속하기 위한 좋은 방안이 없을까하고 깊은 고민에 빠졌던 기억이 나네요.... 공단 내부적으로 유연근무제도가 시스템화되어 있어 많은 직원들이 시행하고 있었으나, 팀의 막내로서 시행에 앞서 망설이고 고민했던 시간들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어디까지나 기우였을 뿐, 현재는 시차출퇴근형 유연근무제를 적극 활용하여 즐거운 마음으로 학업을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정부 주도하에 각 기관에서도 유연근무제 사용을 권장하고 있지만 몇 달 전의 저와 같이 유연근무제 시행을 망설이시는 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을 드리고 나아가서는 유연근무제의 확산과 활성화에 조금이나마 일조하고픈 바람으로 이렇게 수기 공모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알을 깨고 세상 밖으로

2010년 12월 27일.

유난히 추웠지만, 마음만은 여느 때보다 따뜻했던 날로 기억이 됩니다. 서울의 허브, 올림픽공원에 위치한 국민체육진흥공단으로 첫 출근을 하던 날이었지요.

대학에서 체육교육을 전공하고, 대학원에서 스포츠 사회학을 세부전공으로 학업을 이어나가면서 공단의 역할을 익히 알고 있었기에 국민체육진흥공단은 오랫동안 입사를 희망했던 기업이었습니다. 공단에 입사해서는 경영지원실 인재경영팀으로 부서 배치를 받아, 현재까지 기간제근로자 채용 및 직원복무 관리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입사 후, 잠시 중단하였던 대학원은 마음 한구석에 자리잡고 있는 걱정거리였습니다. 공단 자체적으로 유연근무제도가 잘 정립되어 있었고 적극 사용을 권장하고 있었지만, 부서의 막내로서 유연근무제를 선택했다는 점에서 스스로 눈치를 보게 되고, 인사상 불이익을 받진 않을까 하는 걱정이 앞섰습니다. 마음속에 자리잡고 있던 걱정거리가 표면에 떠오른 것은 올해 초였습니다. 휴학 가능 연한으로 인하여 불가피하게 등록을 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었기에, 고민은 더욱 커졌습니다. 팀장님을 비롯하여 부서원들에게 조언을 구하기조차도 스스로 눈치가 보였기에 고민은 날로 늘어났습니다.

몇날 몇일의 고민 끝에 팀장님께 조언을 구하기로 하고 조심스레 말문을 열었습니다. 하지만, 저의 그간 고민이 일순간에 기우가 되어버리는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학업 이야기를 꺼냄과 동시에 팀장님께서도 유연근무제도의 활

용을 선뜻 권유해 주셨습니다. 나아가 다른 팀원들에게도 유연근무제 사용을 재차 권장하셨습니다.

팀의 막내로서 저 스스로가 쌓아 놓은 벽에 갇혀 쓸데없는 눈치를 보고 움츠러들었던 저의 모습이 부끄러웠고, 동시에 팀장님을 비롯한 부서원들 그리고 공단에 대한 애정이 새록새록 샘솟았습니다.

날개를 달다

2012년 3월 7일.

매주 수, 목요일 08:00 출근 / 17:00 퇴근하는 시차출퇴근제도를 활용하여 개강과 함께 수업 오리엔테이션에 참석하는 날이었습니다. 오랜만에 가본 캠퍼스의 풍경이 어찌나 아름다웠는지 잊을 수 없습니다.

유연근무제의 활용으로 학업을 재개함으로써, 과거 학생일 때와는 조금은 다른 마음가짐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무엇보다도 능동적으로 수업에 임하는 저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었고, 저의 학업을 위해 편의를 제공해주는 부서원들의 애정, 공단에 대한 애사심을 통하여 더욱 책임감 있고 열정적으로 수업에 임할 수 있었습니다.

유연근무제 시행 초기에는, 다른 부서원들이 열심히 근무하고 있는 매주 수, 목요일 17:00에 먼저 퇴근하면서 부서원들에게 미안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러한 마음이 들지 않도록 저에게 주어진 업무를 보다 확실하게 처리하게 되면서 업무 효율성은 더욱 증가하였고, 업무처리 능력도 향상되었습니다. 부서원들의 전폭적인 지지와 이해 아래 현재는 즐거운 마음으로 퇴근인사를

건네면 부서원들 또한 진심어린 응원의 메시지를 보내주고 있습니다.


부서원들의 응원 덕분에 지난 2012년도 1학기에는 수강하였던 모든 과목에서 A+이라는 전무한 성적을 받아 더없이 뿌듯했습니다.

비상을 꿈꾸며

유연근무제를 시행하면서 학업을 재개할 수 있는 발판이 되었고, 이를 계기로 업무 효율성 및 능력이 향상됨을 몸소 느끼고 있습니다. 나아가 부서원들과의 친밀감은 더욱 높아졌으며, 이는 자연스럽게 회사에 대한 애사심의 증가로 이어졌습니다.

유연근무제 시행에 앞서 고민하고 있는 직원들을 보면 적극 추천해주고 있습니다만, 과거 저와 같이 쓸데없는 눈치보기와 걱정으로 망설이고 있는 직원들이 많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에 금번 수기공모를 통하여 보다 많은 분들과 저의 활용사례 공유를 통하여 유연근무제 사용에 망설이시는 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유연근무제를 희망하시는 많은 공공기관 직원분들께서 알을 깨고 힘차게 도약하여 다함께 비상하는 날을 기대해 봅니다!

6

'유연근무' 행복한 가정, 즐거운 직장생활의 시작

정 ○ ○ / 교통안전공단

오늘 아침도 일찍 눈을 떴지만 회사까지 가는 데 소요되는 시간을 생각하니 적지 않은 부담감에 마음만 조급해집니다. 전철역까지 가는 버스를 타고 서울시내 전철보다 드문드문 들어오는 경춘선 전철시간을 맞추려니 또 다시 발걸음이 빨라집니다.

아침 6시 40분 쯤 집을 나서면서 곤히 자고 있는 아이들이 부스럭거리는 소리에 잠을 설칠까 아침도 먹는둥 마는둥 했지만 아직 꿈나라에 빠져 있는 모습이 무척이나 사랑스럽기만 한 내 가족과 하루 동안 잠시 작별을 해야 합니다.

시차출근형 유연근무로 찾은 행복

그래도 오늘은 일찍 귀가하여 가족들과 즐거운 저녁시간을 보낼 생각에 집으로 향하는 나의 발걸음은 더욱 가벼워집니다. 회사에서 시행중인 시차출근형 유연근무 후 가족들에 대한 미안함이 한결 가벼워진 덕분입니다. 시차출근형 유연근무란 정규 근무시간은 지키되 출퇴근 시간을 조정하여 업무의 유연성과 효율성을 증대시키고자 하는 탄력적인 근무제도입니다.

평소보다 한 시간 일찍 출근하면 그 시간만큼 퇴근시간이 빨라지니 평일에도 사랑하는 아내와 아이들과 짧은 시간이라도 함께 할 수 있는 여유가 생깁니다.

한 시간이라는 단위는 어떤 상황에서는 매우 짧고 무언가를 해내기엔 꽤나 부족한 시간이겠지만 가족들과 함께하는 단 한 시간은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한 추억의 시간이 됩니다.

얼마 전까지는 개인적으로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전문성을 지니고자 유연근무 등의 시간을 활용하여 노력한 끝에 자동차정비 기능장 자격증 취득의 쾌거(?)를 이루었고 요즘은 이 한 시간의 보너스로 가족들과 집 근처에 있는 체육문화센터에서 함께 수영을 하며 가족의 행복과 건강을 지키는 기회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서둘러서 왔다고 생각했는데 회사에 도착해 보니 어김없이 검사대상 차량이 이미 도착하여 대기하고 있습니다. 아마 예전 같았으면 지금부터 한 시간은 더 기다려야 했을 겁니다.

저는 차량용 천연가스용기 및 가스설비를 검사하는 검사원으로서 교통안전공단 노원 내압용기검사장에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차량용 천연가스용기는 주로 시민의 발이 되고 있는 천연가스버스에 장착되어 있고 검사대상 차량은 개인차주가 아닌 대부분 운수회사 소유로서 실제 검사를 위해 방문하는 고객은 운수회사 직원들입니다.

서울시내에 있는 운수회사는 노원구 하계동에 위치한 이곳 검사장까지 큰 부담 없이 오갈 수 있지만 서울 외곽지역(의정부, 포천, 철원 등)에 차고지를

두고 있는 운수회사의 직원들은 검사 차량 준비를 위해 우리보다 훨씬 일찍 새벽같이 출근하고 딱 막힌 도로를 피하기 위해 서둘러 수십 킬로 떨어진 이곳까지 아침 일찍 도착한 것입니다.

처음 유연근무 시행 후 한 시간 정도 검사받는 시간을 절약할 수 있게 되고 고객들은 새벽같이 준비하고 출발한 보람을 느끼며 매우 만족해 하던 기억이 납니다.

저는 재빨리 검사 복장으로 갈아입고 검사를 받기 위해 접수를 기다리는 고객에게 오늘 아침의 즐거운 기분만큼 웃으면서 따뜻한 인사말과 차 한잔을 대접 후 한 시간 빠른 업무 준비를 합니다.

직원과 고객이 모두 만족하는 유연근무제

대상차량을 검사장에 입고하고 신청접수를 받을 즈음 직원들이 하나 둘씩 출근합니다. 우리 검사장은 하루 검사물량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단 4명의 직원이 가족과 같은 분위기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이전에도 워낙 분위기만큼은 좋았지만 유연근무 시작 후 업무에 임하는 태도들이 더욱 활기차 보입니다. 기분 탓일까요? 하하...

유연근무제도 시행 전에는 우리 업무의 특성상(오전 오후 각각 약 4시간씩 검사시간이 소요됩니다.) 점심시간은 남들보다 1시간이 늦거나 오후 검사대상 차량이라도 일찍 도착하게 되면 고객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휴식시간도 마다한 채 오후검사를 시작하게 됩니다. 그래도 오후 여섯시가 가까워져야 검사가 마무리되어 우리 직원들뿐만 아니라 고객들도 다시 차고지로 돌아가서 늦

은 퇴근을 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습니다. 그렇다고 검사를 소홀히 할 수도 없는 노릇이구요.


유연근무 시행 후 그러한 문제점이 어느 정도 해소되었습니다. 우리 검사장 직원들도 제때에 맞춰 점심식사를 할 수 있게 되었고 오후 검사도 오후 5시 쯤 마무리가 되어 고객들 편의가 증대되고 우리도 마감 시 일상 업무도 퇴근 시간인 정시에 맞추는 것이 가능해졌습니다. 그만큼 업무 능률이나 효율 면에서도 향상된 것이 업무추진 결과나 고객만족도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제 오늘의 유연근무자인 저는 한 시간 일찍 퇴근하여 기다리고 있을 가족들에게로 향하는 길입니다.

내일은 우리 검사장의 '지식인' 이○○ 주임이 유연근무를 하는 날입니다. 매주 이틀씩 대학원 야간수업을 듣기 위해 멀리 수원까지 통학해야 하는 이 주임이 이 제도의 가장 큰 수혜자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검사장 책임자로서 본인 업무와 병행하면서 공부하겠다는 부하직원이 기특하기만 한데 이런 제도로 많은 도움이 된다고 하니 한결 마음이 놓입니다. 전에는 배우고 싶지만 엄두를 못 내던 다른 직원들도 내년에는 더 큰 도전을 할 마음이 생기나 봅니다.

그리고 올해 신입으로 들어온 이○○ 주임은 나이는 신입치고는 다소 많지만, 막 돌이 지난 아기의 아빠입니다. 첫 아이라 그런지 보고 싶기도 하고 신경이 많이 쓰이나 봅니다. 유연근무를 하는 날은 본인보다는 집에 있는 분이 많이 좋아하더라란 얘기를 들었습니다. 아무래도 한창 보호의 손길이 필요한 때라 직장에 나와 있는 아빠의 도움이 조금이나마 더 필요할 겁니다. 검사장에서는 막내라 퇴근이 가까워지면 일들이 많을 텐데 유연근무할 때만이라도 다

른 선배들이 일을 덜어주니 마음 놓고 조기퇴근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으로 우리 검사장에서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주는 박○○ 대리... 일하는 자세만큼은 절대 소홀함 없이 꼼꼼하게 일 처리하는 모습과는 달리 맞벌이하는 관계로 조기퇴근 시에는 뒤도 안 돌아보고 아이들이 다니는 유치원으로 달려가는 모습은 낯설기도 하지만 요즘같이 부모가 다 나가서 사회생활을 하는 시기에 큰 도움이 되겠구나 하고 새삼 느껴집니다.

드디어 저는 가족들과 함께 행복했던 하루 일정을 모두 마치고 아이들을 방에 재우고 나서 아내와 오랜만에 여유롭게 맥주 한 잔 하면서 둘만의 시간을 가집니다. 전에는 무관심한 남편에 어려워만 하던 아빠였는데 요즘 들어 아이들도 아빠가 일찍 들어오기만을 기다린다는 아내의 얘기를 들으며 나를 흡족해하면서 다음 번 조기퇴근하는 날에는 가족들과 함께 할 새로운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6

워킹맘으로 사는 법! 어렵지 않아~요!

이 ○ ○ / 국민연금공단

2009년 11월 7일, 27살의 나이로 친구들 중에 첫 테이프를 끊으며 결혼에 골인하였고 2011년 5월 6일, 29살 제 인생에서 가장 큰일이 발생하였습니다. 그것은 바로, 철없는 20대였던 제가 엄마가 된 일입니다.

3남매 중 장녀로 태어나 2명의 동생이 있고 특히, 막내동생은 저와 띠동갑으로 제가 중학교 때 태어나 막내동생의 성장과정을 지켜봤기 때문에 육아에 대해서 두려움이 없었고 오히려 막연한 자신감까지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이를 낳고 키워보니 제가 학교를 마치고 집에 돌아와 잠깐씩 동생을 봐주던 것과 엄마로서 아이를 키우는 일은 하늘과 땅 차이임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어떤 일보다 낫설고 힘든 육아

벅속에 있을 때는 무겁고 힘들어서 세상에만 나오면 똑딱 키워낼 것 같은 마음으로 얼른 나오길 원했는데 아이가 세상에 나오는 순간 내가 이렇게 무능한 인간인가에 대한 자괴감을 느낄 정도로 육아는 상상 그 이상이었습니다. 아이를 안는 것도, 모유수유를 하는 것도, 기저귀를 갈고 아이를 재우는 것도

저에게는 세상의 어떤 일보다도 낯설고 힘들었습니다. 정말이지 육아가 서울대 입학하는 것보다 힘들게 느껴졌습니다. 양가 부모님은 지방에 계셔서 낮에는 이 아이를 오로지 저 혼자 돌봐야만 했고 초보 엄마의 하루는 길고도 길었습니다. 아이를 겨우 재워서 눕히면 등에 센서라도 있는 듯 깨서 보채기 일쑤여서잠을 제대로 잘 수 없었고 하루 종일 아이를 안고 먹이고 재우고 기저귀 갈며 힘든 나날들을 보냈습니다. 얼른 회사에 나가고 싶다고 생각하며, 일하는 것이 얼마나 즐거웠는지 새삼 깨달았습니다. 힘든 하루하루를 보내다 보니 목도 못 가누고 누워만 있던 아이가 목을 가누고, 몸을 뒤집고, 혼자 앉고 서고, 걸으며 점점 성장했습니다. 아이가 성장해나가는 모습을 보니 힘든 육아에도 숨통이 트이고 즐거움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아이는 어느덧 말도 하고 약간의 의사표현도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아이는 저에게 엄마, 엄마하고 부르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런데 언제부턴가 제가 화장실에 가거나 잠깐만 눈에 보이지 않아도 아이는 엄마를 찾으며 항상 함께 있고 싶어 했습니다. 책에서만 보던 분리불안이 시작된 것입니다. 아이가 제가 없으면 불안감을 느끼기 시작하니 복직하는 것이 걱정되기 시작했습니다. 복직 예정일은 몇 달 남지 않았는데 아이의 분리불안은 계속되었고 저는 복직하면 어떻게 육아를 해야 될지 정말 고민이 되었습니다. 친정 부모님과 시댁 부모님은 지방에 계셔서 부모님께 맡기려면 아이를 지방에 보내고 주말에만 만나야 하는데 아이가 엄마와 떨어져 살게 되면 심리적으로 많이 불안하고 성장에도 안 좋은 영향을 줄 것 같아 망설여졌습니다. 육아 도우미를 고용하여 아이를 맡기자니 대중매체에서 연일 나오는 육아 도우미의 아이 학대 사건이 남

의 일 같지 않게 느껴져 믿을만한 사람을 선뜻 선택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게 고민을 하고 있던 어느 날, 제가 다니는 교회의 어린이집에서 0세반이 새로 생긴다는 소식을 듣고 아이를 어린이집에 보내기로 했습니다.

복직하기 전에 미리 어린이집에 적응을 시켜놓아야 할 것 같아서 복직 두 달 전부터 어린이집에 보내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아이가 잘 적응하는 듯 하더니 점점 시간이 지날수록 어린이집에 오랜 시간 있기 힘들어하고, 아프거나 컨디션이 안 좋은 날은 더욱 가기 싫어하여 정말 난감하고 힘들었습니다. 하루 종일 어린이집에 있다 보니 자꾸 아프고 수족구 같은 전염병도 걸려서 아이가 힘들어했습니다. 출근을 하면 최소한 하루 10시간은 어린이집에 맡겨야 하는데 아이는 오전에는 잘 놀다가 오후가 되면 울기 시작하고 다른 친구들이 있어 낮잠도 못자고 힘들어했습니다. 저에게 무엇보다 소중한 아이인데, 정말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 해주고 싶은 금쪽같은 내 아이가 힘들어 하는 모습을 보고 복직을 포기해야 하나 하는 생각까지 들었습니다. 남편과 많은 이야기를 나누었는데 남편은 둘이 떨어져 살다가 혼자 떨어져 셋이 살려니 힘들다며 제가 복직을 했으면 하는 눈치였고 저는 그런 남편이 야속하게만 느껴져서 혼자서 눈물도 흘렸습니다.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을 때 회사 선배에게 상담을 하게 되었는데 저는 정말 반가운 소식을 들었습니다. 제가 다니는 회사에서 2011년 10월부터 단시간근로제도를 운영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급여는 절반 정도지만 오전근무만 할 수 있고 9시부터 1시, 9시부터 2시 중에 선택도 가능했습니다. 오전에는 어린이집에서 잘 지내는 우리 아이를 생각하면 정말 저에게는 꼭 필요한

제도였습니다. 단시간근로 기간 1년까지는 근속기간도 100% 인정해주는 등 단시간근로 제도 관련 정보를 수집하면 할수록 복직에 대한 자신감이 생겼습니다. 남편과도 상의를 하며 많은 대화를 했는데 남편도 단시간근로에 대해 긍정적인 생각이었습니다. 야속하게만 느껴졌던 남편도 단시간근로에 대해 찬성하고 그 일로 대화를 많이 나누다 보니 섭섭한 마음에 소원해졌던 남편과의 관계도 회복되었습니다.

단시간근로제로 얻은 육아의 자신감


자신감을 얻은 저는 아이를 출근할 때처럼 어린이집에 8시 30분부터 1시 30분까지 5시간씩 다니도록 적응을 시키고 복직 예정일보다 한 달 일찍 복직했습니다. 복직 전에는 혹시 이도저도 아닌 반인반수 같은 생활이 되지 않을까 걱정도 되었습니다. 복직을 하고 나서 1년 3개월 만의 직장생활이 낯설고 아이가 걱정되기도 했지만 직장 동료들의 배려로, 복직 후 직장생활에 대해 출산 전에는 몰랐던 새로운 즐거움을 알게 되었습니다. 출산을 하고 아이를 키우면서도 즐겁게 직장생활을 할 수 있다는 사실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직장생활이 즐겁고 출산 전에 있던 업무 스트레스마저도 가볍게 느껴졌습니다. 또한, 직장에서 육아 선배들의 조언들도 육아에 많은 도움이 되었고 집에서 혼자 육아만 할 때보다 선배들과의 활발한 의사소통으로 육아에 대한 풍부한 정보를 얻게 되어 일뿐만 아니라 육아에도 자신감이 생겼습니다.

열심히 노력하는 사람은 즐기는 사람을 따라갈 수가 없다는 말이 있습니다. 일과 육아 모두에 자신감이 생기면서 스스로 즐길 수 있게 되니 어느 때보다

도 뿌듯하고 즐거운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 아이도 오전시간은 어린이 집에서 즐겁게 생활하고 엄마 퇴근시간이 되면 스스로 집에 갈 준비를 할 정도로 잘 적응을 하였습니다. 주변에 보면 출산 후에 육아문제로 복직을 포기하고 회사를 그만두거나 휴직을 연장하는 사례들도 많습니다. 하지만 저는 단시간근로제라는 소중한 제도를 통해 일과 육아 모두에 자신감과 즐거움을 얻을 기회를 얻게 되어 행복합니다. 단시간근로제도가 육아에 있어서 저에게는 친정엄마보다도 고마운 존재가 되었습니다. 주변에 아가 키우는 엄마들도 1시까지 근무하며 아이를 키울 수 있는 저의 상황을 매우 부러워하고, 저 또한 자부심을 많이 느낍니다. 휴직중인 직장동료들이 단시간근로제도에 대해 많이 물어보고 의견을 구하는데 저는 망설임없이 이용해 보라고 강력히 추천하고 있습니다.

단시간근로제도를 통해 육아와 일을 병행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얻으면서 우리 부부에게는 큰 변화가 생겼습니다. 직장 다니면서 아이를 키우는 것이 얼마나 힘든 일인지 실감하면서 아이는 하나로 끝내자고 생각했던 우리 부부가 단시간근로를 통해 육아와 직장생활을 거뜰히 해낼 수 있다는 자신감을 얻으면서 용감하게 둘째를 계획하게 되었고 결과는 대성공이었습니다. 내년 봄에 둘째를 출산하게 되는데 단시간근로제도가 있어서 둘째 키우는 것도 잘 해낼 수 있을 거라는 자신감이 생깁니다.

저는 요즘 행복합니다! 출근할 때는 오늘은 직장에서 어떤 하루를 보낼까 하는 기대감으로 출근을 하고 1시에 퇴근을 하면서는 우리 아이가 어떤 모습으로 엄마를 기다릴까 하는 설렘으로 아이를 데리러 갑니다. 아이를 데리고

나와서 오후에는 동물원도 가고 공원 산책도 하며 둘만의 즐거운 시간을 보냅니다. 우리 아이와 이렇게 소중한 시간을 함께 할 수 있게 해준 단시간근로제도에 진심으로 감사한 마음을 다시 한번 표하며 저처럼 아이를 봐줄 수 있는 사람이 없지만 직장생활을 계속 하고 싶으신 분들께는 단시간근로제도를 적극 추천합니다. 그리고 단시간근로제도가 점점 더 많은 직장에서 시행되어 모든 대한민국 워킹맘들이 맘 놓고 일하고 아이를 키울 수 있는 세상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8



유연근무제를 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 ○ / 한국소비자원

철인에 가까운 1인 다역의 직장맘

한국소비자원에 소비자상담 계약직으로 입사하여 소비자상담 업무에 젊은 청춘을 보낸 지 10년이 훌쩍 지나갔다. 결혼하고 입사한 후 직장을 다니면서 두 남자아이의 엄마로서 아내로서 며느리로서 정말 철인에 가까운 정신없는 나날들이었던 것 같다.

첫 아이 때는 육아휴직제도가 없어 전혀 업무도 내지 못했던 것을 2004년 둘째아이를 출산하면서 1년 육아휴직을 쓰게 되었다.

첫째 아이는 내 손보다는 외할머니 손에서 자랐기에 나와서 유대관계가 없었던 것이 사실이었다. 큰 애는 첫 번째로 좋아하는 사람을 물으면 어디에서 나 '외할머니!' 라고 외칠 때마다 마음이 좀 아렸다.

친정엄마가 3년 동안 큰애를 키워주시느라 많이 힘들었을 텐데 말없이 돌봐주신 것에 대해 친정아버지, 엄마한테 항상 고마워하고 있다.

큰애가 커가면서 좋은 엄마 모습을 보여주고 심적으로 더 이상 거리를 두게 하지 말아야 하겠다는 생각에 육아휴직기간 동안 둘째를 돌보면서 어린이집

에서 끝나고 돌아오는 큰애를 웃는 얼굴로 마중 나가고, 같이 놀이터에서 놀아주고, 책도 읽어주고, 좋아하는 간식도 함께 만들어주면서 하루하루를 즐겁게 보냈다. 처음에는 큰애가 외할머니만 찾아 속상했고, 마음이 흔들린 것도 사실이었는데 포기하지 않고 큰애의 마음을 이해해 주면서 옆에 있어 주니 내 마음을 알아주기라도 하는 듯 나한테 웃어주는 일이 많아졌다. 그 행복은 표현할 수 없을 정도였다.

1년을 그렇게 빨리 보낸 후 다시 직장에 복직을 할 때가 다가오면서 남편과 나는 많은 고민을 했다. 엄마와의 유대관계를 쌓아야 하는 돌도 지나지 않은 둘째아이와 다섯 살배기 큰애를 어린이집에 이른 아침부터 늦은 저녁까지 보내야 한다는 것이었다. 더군다나 큰애 어린이집은 영아반이 없어 다른 영아반에 가야 했다. 다행히 운이 좋아 첫째도 둘째도 모두 집근처 시립 어린이집에 들어갈 수 있게 되었고, 시립 어린이집 선생님들이 좋은 분들이셔서 남편과 나는 마음이 좀 놓였다.

다행히 둘째아이가 적응을 잘하여 무리 없이 어린이집 생활을 하게 되었다. 그런데 아이가 하나만 있을 때와는 차원이 다르게 아이 둘을 키우면서 엄마가 사회생활을 한다는 것은 정말 철인이 되어야 한다는 걸 알았다. 처음 6개월 정도는 나의 다짐 대로 잘 했던 것 같다. 이후에는 나의 체력도 바닥나 감기를 달고 살았고, 아이들도 감기로 많이 힘들어했다. 회사에서 연차, 월차 휴가를 쪼개어 사용하는 것이 가능하였기에 아이들이 아플 때마다 휴가를 알뜰히 사용하면서 육아와 직장을 모두 포기하지 않고 버틸 수 있었다.

천방지축인 둘째 아이가 7살이 되면서 초등학교 생활에서의 적응에 대해

많이 걱정하고 있을 때, 유연근무제제도가 도입되면서 우리 기관이 여성근무자가 많은 관계로 시범운영기관에 뽑혀 1년간의 유연근무제(단시간근로) 신청을 받았다.

1년을 신청할 수 있었으나 우리 부서 같은 팀에서 나와 다른 동료가 신청을 하였고, 근무여건상 둘 다 신청할 수 없어 협의하여 6개월씩 유연근무를 하는 것으로 하여 나는 둘째 아이 초등학교 입학시기에 맞물려 2011. 1. 1~2011. 6. 30까지 단시간근로를 하는 것으로 신청하였다. 회사에서 이러한 기회를 나와 우리 가족한테 주었다는 것에 너무나 감사했고, 직장에 누가 되지 않도록 주 5일 4시간(오전 10시~오후 3시) 유연근무를 하면서 어떤 때에는 시간을 초과하면서까지 나에게 맡겨진 일을 당겨서 끝마쳤다.

유연근무제를 시작하기 전에는 남편, 아이들 챙기느라 집안을 정신없이 뛰어다니다 아이들보다 먼저 대문을 뛰쳐 나갔었는데, 출근 준비하면서 아이들 등교 준비도 도와줄 수 있게 되니 미리 엄마가 유연근무제를 한다고 말은 했지만, 아이들이 어색한지 처음에는 ‘엄마 회사 안가?’, ‘휴가야?’, ‘누가 아파?’ 이런 질문을 하였다.

퇴근 후에는 아이들이 학교와 어린이집, 학원이 끝나는 시간과 맞물렸기에 아이들이 집에 오면 항상 엄마가 있다는 것에 기뻐하고 심적으로 안정되었는지 그날 있었던 일들을 얘기하는데, 남자아이들이 수다를 떨면 여자아이들보다 훨씬 심하다는 것을 그때서 알았다. 특별히 여행을 가지는 못했어도 집에서 같이 저녁을 먹거나, 외식할 때도 있었지만, 아이들도 엄마와 더 많은 시간을 보내는 것에 즐거워했고, 그만큼 웃는 모습들이 많아졌다.

어느덧 6개월의 유연근무기간이 도래되었기에 아이들과 재미난 시간을 뒤로 하고 다시 정상적인 생활로 돌아와야 한다는 생각 때문에, 무척 아쉽고 섭섭했다. 더욱이 곧 여름방학이 다가와서 더 아쉬웠다. 특히 남편이 유연근무를 연장해주길 바랬다. 하지만 다른 사람들에게도 기회를 주어야 하기에 연장은 무리였다. 아이들에게 어떻게 말해야 할지 많이 고민했다. 할 수 없이 거짓말을 하게 되었다. 6개월 뒤에 다시 신청하는 것으로 가족에게 안심을 시키고 2011년 7월 1일부터 정상 근무를 하였다.

첫째아이는 의젓하게 학교를 잘 다녔고, 둘째 또한 학기초 적응을 잘 해주어 개구쟁이이지만, 2학기를 무난히 마칠 수 있게 되었다.

두번째 유연근무, 더 가까워진 가족

항상 유연근무가 짧은 시간이었다는 아쉬움이 있었는데, 정말 운 좋게 2012. 1. 1~2012. 6. 30 기간 동안 다시 유연근무제를 신청할 수 있는 기회를 왔고, 이번에는 주2회(월, 화) 8시간 근무가 허락되었다. 아이들에게 약속을 지키게 되어 정말 기뻐다. 겨울방학과 맞물려 가장 먼저 계획한 것이 스키를 배우는 것이었다. 올해 초 겨울은 엄청 추운 날이 많았다. 그래도 어김없이 스키를 배우러 갔다. 회사 일도 근무하는 동안 야근하면서 열심히 하고 근무의 시간에는 아이들과 스키를 배우며 함께 방학을 즐겁게 보낼 수 있어 무척 좋았다.


항상 환절기 때는 어김없이 기침 감기가 몰려왔었는데, 운동을 하면서 피곤함도 없어지고 아직까지 감기도 걸리지 않게 되었다.

또한, 둘째 아이가 초등학교 2학년이었기에 작년과 달리 많이 자라고 정신

적으로도 많이 성장한 것 같다. 사실 나는 특별한 이벤트를 해준 적은 없었다. 다만 평범한 일상으로 하루하루를 게을리 보내진 않았다. 이번에는 첫 번째 신청과 달리 둘째 아이에게 유연근무에 대해 설명하고 종료기간도 말해 주었다. 유연근로기간이 도래되는 시점인 6월에 누가 시킨 것도 아닌데 둘째 아이가 나한테 다가와 ‘엄마, 나 이제 혼자서 할 수 있으니 다시 회사 매일 출근해. 나 형이랑 잘 지낼 수 있고, 학원도 시간표 정해주면 잘 다닐게.’ 개구쟁이 막내가 아홉살인데 너무나 기특했다. 눈물이 나는 것을 꼭 안아주며 숨겼다.

1년 동안의 유연근무제를 통해 나의 건강도 많이 회복되고, 아이들 양육에 있어 보다 더 여유로운 시각에서 아이들을 바라보며 지도하게 되었다.

아이들도 이전에는 말도 없고 무뚝뚝하기만 하고 솔직히 말하지 않고 짜증만 부렸던 적이 많았는데, 밝게 웃는 얼굴과, 솔직히 말해주고 힘든 문제를 같이 들어주길 원하고 도움받길 원하고, 함께 깔깔 웃을 수 있는 기회가 많이 생겼다. 이렇듯, 아이들과 부모와의 관계가 더 친밀해졌기에 더없이 행복했던 시간들이었다.

앞으로, 나와 같이 육아고민을 갖고 있는 많은 직장맘들이 이렇게 좋은 유연근무제를 잘 활용할 수 있도록, 정부가 적극적으로 뒷받침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공공기관 고졸 채용 · 청년인턴 · 유연근무
수기공모 우수 사례집**

2012년 11월 16일 인쇄

2012년 11월 23일 발행

발행인 조 원 동

발행처 한국조세연구원

☎138-774 서울특별시 송파구 송파대로 28길 28

TEL : 2186-2114(대) www.kipf.re.kr

등 록 1993년 7월 15일 제21-466호

인 쇄 상일인쇄

©한국조세연구원 2012

* 잘못 만들어진 책은 바꾸어 드립니다.

